금주의 법구-〈법구경〉
분에 넘치는 이익을 바라지 말라.
넘치는 이익은 마음을 어리석게 한다.
적은 이익으로써 부자가 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08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9월 24일) 2022년 10월 19일 수요일



국화 장엄한 조계사서 가을 만끽

서울 도심 한폭판, 조계사 경내를 장엄한 국화향기가 오가는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는다. 매년 가을을 맞아 국화축제를 개최해 온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가 10월 11일 '제12회 국화향기나눔전' 개막식을 열고, 종교와 세대를 넘어 부처님 도량에서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열었다. **사진=박재완 기자**

열암곡 마애불 '入佛', 대국민 원력불사로

불교중흥 위한 새 집행부 과제

① 경주 열암곡 마애불 바로 세우기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경주 남산 마애 부처님을 일으켜 세워 드려야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민족의 문화 자산을 천년이 넘도록 넘어진 채로 방치하는 것은 우리들의 부끄러움이자 직무 유기입니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사에서 국민에게 밝힌 제안이다. 진우 스님의 대국민 제안 이후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사진〉을 바로 세우기 위한 목소리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경주시는 입불(入佛)과 보존 방안을 위한 용역연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북도와 문화재청은 관련 사업에 대해 최대한 협조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조계종 역시 '열암곡 마애불 바로 세우기'를 우선 과제로 삼고 대국민 원력불사로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조계종 총무원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0월 12일 열린 종무회의에서 열암곡 마애불 바로 세우기와 관련한 자료 취합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진우 스님은 마애불 입불 사업의 슬로건으로 '천년을 세우다'를 제안했으며, 성금 모연 등을 통해 대국민 원력 불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진우 스님은 10월 31일 경주 남산 열암곡 현장을 찾아 마애불 입불을 발원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조계종 문화부장 탄원 스님은 "불교를 넣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국민적 관심사로 확대하기 위해 '천년을 세우다'라는 슬로건을 총무원장 진우 스님께서 제안하셨다"면서 "성금 모연 등을 통해 문화재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대국민 원력불사로 나아갈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T/F 조직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암곡 마애불은 지난 2007년 5월 22일 경주 남산 열암곡 석불좌상 복원정비사업 관련 발굴조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마애불은 발견 당시 불상 상호가 바닥 바위와 5cm 떨어져 파손되지 않은 채 발견돼 '5cm의 기적'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다.

넘어진 열암곡 마애불에 대한 입불 사업은 문화재청의 보존 정책에 따라 달라져 왔다. 문화재청은 2011년 12월 마애불을 현 상태로 보존할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하부에 관람 공간을 조성하려 했지만, 이듬해 손상이 우려돼 거동 방안을 검토했다. 2013년에는 현 상태 보존을 결정했지만, 2015년에는 해당 지자체인 경주시로 사업을 이관해 입불 방안 용역 등이 진행돼 왔다.

이후 조계종 제36대 집행부가 백만원력결집불사 중 하나로 열암곡 마애불 바로 세우기를 과제로 정하고 지난 2021년 11월 기원법회를 봉행하며 입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9월 28일 취임한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사에서 밝힌 대국민 제안 이후 관련 정부 부처와 해당 지자체들도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불 국민 제안했던 진우 스님
10월31일 경주 현장 방문 예정
'천년을 세우다'를 슬로건으로
국민 참여 원력불사 확대 추진
경주시·경북도 협조방안 강구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문화재청 등은 열암곡 마애불에 대해서는 그간 현상 유지를 통한 보존·관리에 중점을 뒀지만, 진우 스님의 대국민 제안 이후에는 입불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경북도 5개 본사에서도 마애불 바로 세우기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주시와 경북도 등도 열암곡 마애불의 입불에는 큰 이견이 없다. 류문규 경북도 문화재활용팀장은 "현재 실효적 복원 방안을 강구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경주시와 문화재청 등과 함께 여러 의견을 수렴해 입불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주시는 내년 하반기까지 마애불 입불과 보존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해당 연구용역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열암곡 마애불의 본래 위치다.

권상돈 경주시 문화재정비팀장은 "현재 주변 정비를 통해 입불할 수 있는 공법적 기반들은 확보한 상황"이라면서 "입불할 때 가장 먼저 우선돼야 할 점은 마애불의 본래 위치를 찾는 것으로 현재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인 임영애 동국대 문화재학과 교수 역시 입불의 선결 과제로 본래 자리 찾기를 꼽았다. 임 교수는 "제대로 복원을 하면 불상의 원 위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경주시의 용역에서도 해당 부분이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함께 고려할 것은 안정성 확보다. 경주 지역은 과거에도 지진이 일어난 곳이고, 불상도 지진 때문에 엎어졌다"면서 "이런 부분이 선결돼야 마애불을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18대 중앙종회 81명 의원 최종 확정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의원 81명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중앙종회의원 선거는 직선직 의원을 선출하는 24개 교구본사 중 19곳이 무투표당선을 확정지음에 따라, 5곳만 경선으로 진행됐다. 직능직 의원 20명과 비구니 의원 10명도 일찌감치 자격심사를 통해 당선이 확정돼, 종단 내부적으로 화합을 위해 과열경쟁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인됐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0월 13일 오후 1시~3시 5개 교구본사에서 중앙종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진행됐다. 선거가 진행된 교구는 직할교구와 제6교구 마곡사, 제11교구 불국사, 제21교구 송광사, 제24교구 선운사다.

선거 결과 직할교구에서는 효명 스님과 종원 스님, 도심 스님과 탄웅 스님이, 마곡사는 종봉 스님과 태진 스님이, 불국사는 성행 스님과 성제 스님이, 송광사는 일화 스님과 시공 스님이, 선운사는 태효 스님과 재안 스님이 선출됐다.

과열경선 자제로 화합분위기
10월 13일 5개 본사서 경선
10월 10일 직능선출위 열어
직능·비구니의원도 최종확정

직할교구는 도심 스님이 78표로 최다표를 획득한 가운데 탄웅 스님이 67표, 효명 스님이 52표, 종원 스님이 49표를 받아 당선됐다. 진우 스님은 19표를 받아 낙선했다.

마곡사는 선거인단 124명 중 1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봉 스님과 태진 스님이 각각 57표와 34표를 득해, 27표를 받은 제민 스님을 제치고 당선됐다. 불국사는 선거인단 92명 중 68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행 스님과 성제 스님이 각각 24표씩 획득해 20표를 받는 각천 스님을 제치고 당선됐다.

송광사는 선거인단 242명 중 211명이 참석해 접전 끝에 일화 스님과 시공 스님이 각각 77표, 70표로, 63표를 받은 진경 스님을 7표 차로 이겨 당선확정됐다. 선운사는 선거인단 101명 전원 참석해 태효 스님과 재안 스님이 각각 39표, 29표로 당선됐다. 도정 스님은 20표를 받았으며 무효표는 2표로 확인됐다.

앞서 후보등록에서 가장 많은 후보가 등록했던 제12교구 해인사는 자격 심사 전 종인 스님과 불암 스님, 향록 스님이 사퇴를 결정했고, 경선이 예상됐던 제15교구 통도사는 진무 스님이, 제17교구 금산사는 원묵 스님이 사퇴하면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또 제9교구 동화사도 선안 스님의 사퇴로, 제14교구 범어사는 범종 스님의 사퇴, 제16교구 고운사는 등안 스님의 사퇴로 경선 없이 후보가 선출됐다.

지난 10월 10일 직능대표선출위원회(위원장 진우)는 제42차 회의를 열고 직능대표 20명과 비구니 10명에 대한 선출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분야별 직능대표는 율원분야에 경암 스님과 원명 스님, 선원분야에 성웅(철산) 스님과 심우 스님, 강원분야에 무관 스님과 오심 스님, 교육분야에 진각 스님과 법성 스님, 포교분야에 각연 스님과 가섭 스님, 사회분야에 유석 스님과 법원 스님(대흥사), 복지분야에 보인 스님과 무경 스님, 문화분야에 현담 스님과 원각 스님, 법제분야에 덕현 스님과 법원 스님, 행정분야에 진화 스님과 우봉 스님이 확정됐다.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은 정운 스님, 철우 스님, 진명 스님, 정관 스님, 혜도 스님, 진상 스님, 혜성 스님, 법해 스님, 지인 스님, 설해 스님 등 10명이 확정됐다.

새롭게 선출된 제18대 중앙종회의원은 11월 9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관련기사 5면〉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백만원력 결집불사
희망의 불교,
미래의 불교를 함께 열어갑시다.

백만원력 결집불사

-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분황사 준공
-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
- 불교요양원 건립
- 경주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 세종시 광제사 및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 10.27법난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관 건립
-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 기금 조성
- 위례 상월선원 신축불사
- 나눔 및 교육기금 조성

대한불교조계종


●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분황사 준공


●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


● 세종시 광제사 및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 경주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모연동참안내

백만원력결집불사, 대한불교조계종 검색
NAVER Daum
www.buddhism.or.kr

▶매일 발우저금통에 보시
▶정기후원(CMS) : 신청서 또는 전화신청
▶후원계좌 예금주 : 재)아름다운동행(백만원력결집)
농 협 301-0248-0882-41
국민은행 008601-04-152458
우 체 국 010579-01-005480
▶ARS 060-700-0012(한통화 3,000원)
▶문의전화 02)6273-0108, 0109

• 모아진 발우저금통은 재적사찰 또는 문의전화로 상담해주세요.
• 재)아름다운동행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설립한 기부재단으로 백만원력결집 공식 모금창구입니다.

불교문화로 가을 장엄할 '문화대전' 열린다

조계종 문화부, '2022 불교문화대전' 개최

10월 19~26일 '불교문화주간'
전국 사찰서 다양한 문화행사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이벤트
불미전서 종정예하 작품 선봬
"일상 회복 · 치유의 장 될 것"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10월 12일 열린 간담회에서 조계종 문화부장 탄원 스님이 '2022 불교문화대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불교 음악, 미술, 출판, 문학 등을 집중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불교문화주간 행사가 마련된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탄원)는 10월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침체돼 있던 불교 문화 행사 활성화를 위해 '2022 불교문화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2 불교문화대전'은 오는 10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 간을 '불교문화주간'으로 선포하고 음악 · 미술 · 출판 ·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행사를 전국 사찰과 불교 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번 불교문화대전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오프라인 행사여서 의미를 더한다.

'2022 불교문화대전'의 시작은 10월 19일 오후 3시30분 조계사에서 열리는 개막식과 오후 4시 30분 서울 종로 아라아트센터에서 진행되는 불교미술대전 오프닝 행사가 알린다. 이번 불교미술대전은 작가들의 기획 전시로 진행되며, 옻칠 작가로도 잘 알려진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의 새로운 작품 2점이 처음 공개돼 눈길을 끈다. 이밖에도 성효 스님, 송천 스님 등 작가 32명이 조각, 회화, 공예 등 총 43점의 작품을 선뵌다.

이후 8일 동안 전국 사찰에서는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이어진다. 10월 20일 오전 11시 조계사에서 문화공연(김희진, 파스텔걸스, 브라스밴드)과 오후 4시 환경콘서트(천도 스님, 라마)가 열리며, 21일 오후 3시 남양주 봉선사에서 문화공연(신성, 권미희, 인풍류)이 진행된다. 22일에는 서울 금선사와 정읍 보림사에서 각각 산사문화예술제가 개최되며, 23일 오전 10시 해군교육사령부에서는 문화공연(설하윤, 오로라)이, 25일 오후 1시 당진 영탑사에서는 음악공연(가릉빈가 소리)이 열릴 예정이다.

'올해의 불서10'에 선정된 작가들과의 북콘서트도 눈길을 끈다. 10월 21일 오후 1시 수국사를 시작으로 △서울 연화사(23일 오후 2시) △서울 학도암(24일 오후 12시 30분) △종로 노인복지관(24일 오후 3시) △전국비구니회관(25일 오후 1시)에서 북콘서트가 진행된다.

'2022 불교문화대전'의 대미는 폐막식과 함께 통합돼 진행되는 불교언론문화상, 불교출판문화상, 불교음악상 시상식이 장식한다. 불교언론문화상과 불교출판문화상, 불교음악상이 통합돼 시상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조계종 문화부는 주요 본사와 개산대재들과 연계하는 등 '불교문화대전'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화부장 탄원 스님은 "'2022 불교문화대전'은 3년 동안 코로나19로 고통받았던 국민과 불자들의 일상 회복과 심신 치유를 위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전국 본사와 사찰과 연계하고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해 불교문화대전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종교구장 후보에 능원 스님 추천



조계종 6대 군종특별교구장 후보자로 능원 스님〈사진〉이 추천됐다. 군종특별교구는 10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회의실에서 2022년 1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6대 군종특별교구장 후보자로 現교구장 직무대행이자 수석부교구장인 능원 스님을 추천했다.

능원 스님은 1985년 영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6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0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동국대 선학과 졸업 후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육군 군법사로 복무했으며, 해인사, 직지사, 수덕사, 수도암, 칠불사 등 제방선원에서 안거를 성만했다.

능원 스님은 진주 보광사 주지, 남해 보리암 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2020년 3월부터 군종교구 부교구장으로 활동했다.

능원 스님은 이날 후보 추천에 대해 "종단과 군승법사들의 의견을 두루 청취, 소통하고 화합하는 군종특별교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1차 상임위 회의에는 총무원 총무부장 호산 스님, 기획실장 성화 스님, 교육원 교육부장 서봉 스님, 포교원 포교부장 선업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 보문사 주지 선조 스님, 군종교구장 직무대행 능원 스님, 부교구장 법원 스님 등 상임위원 21명 중 19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상주 교수들, 소그룹 맞춤교육 논의

조계종 교육원, 10월 12일 연찬회서 교수법 등 논의

출가자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그룹 맞춤 승가교육을 위한 교수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직무대행 서봉)은 10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21세기 소그룹 중심 맞춤교육 방법론 찾기'를 주제로 상주교수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해인사 승가대학 학장 직무대행 보일 스님이 '소그룹 중심의 학인 지도법-해인사 사례를 중심으로'를 발제했으며, 하오선 동국대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수이 '소그룹 학인 맞춤 수업 방법론'을 주제 특강을 진행했다.

보일 스님은 △해인사 승가대학 토론대회 △호스피스병동 자원봉사 프로그램 △탁실라 프로젝트 △편잡아트(FUN雜ART) 프로젝트 △AI부디즘 프로젝트 등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승가교육이 '받는 수업'에서 '하는 수업'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스님은 "'하는 수업'은 공부한 내용을 다양한 문맥과 상황에서 직접 실천해보도록 가르치는 것이며 이는 불교 전통과도 결코 다른 것이 아니다"라면서 "다양한 개성과 근기를 지닌 학인들이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목표를 이수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 존중, 협동심 등이 함양될 수 있다. 이는 학인 개인의 자산이 될 뿐 아니라 승가공동체 전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한국불교의 힘을 키우는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연찬회에서는 前 해인사 승가대학장 무애 스님과 동국대 불교학술원 전문연구원 선암 스님이 신편 치문 편찬 보고를 진행했다.

조계종 교육원장 직무대행 서봉 스님은 "수년 전부터 출가자가 급격히 감소해 가고 있고, 공공연하게 기본교육 통폐합 문제가 거론되는 등 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면서 "소그룹 중심 학인 지도법이나 맞춤수업 강의법을 통해 학인들에게 적합한 교육 방법론을 찾는다면 사찰 승가대학과 승가대학원이 새로운 불교학의 요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10월 12일 조계종 교육원이 주최한 상주교수 연찬회에 참가한 상주교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통사찰 보수 자부담 철폐 · 문화재 환수 '쟁점'

21대 국회 국정감사로 본 불교정책 향방

10월 12일 문화재청 감사서
"자부담 비례원칙 역행"지적
최응천 청장, "긍정적 검토"
도난문화재 예산 확충 요구
'금동관음입상' 환수 촉구도

21대 국회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전통사찰 보수시 자부담 철폐와 도난문화재 정책 강화,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 환수 방안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특히 전통사찰 보수시 자부담이 명확한 근거 없이 20%로 책정된데 따른 부당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현실화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국회는 10월 12일 문화재청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이개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통사찰 보수시 자부율 문제에 대해 질의한데 이어, 도난문화재 환수를 위한 전담수사인력 및 예산 확충을 촉구했다. 또 배현진 의원은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환지본처에 대한 조속추진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으며, '백제금동보살관음입상'을 비롯해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 환수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이개호 의원은 전통사찰 보수시 20%의 자부담율이 책정되는 문제에 대해 "비례원칙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자부담율 철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를 위한 예산은 전액 국비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반면, 문화재를 보유하지 않은 전통사찰의 경우 보수예산의 20%를 자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도 전통사찰 자부담금 철폐에 대한 검토가 이미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화재청도 함께 협조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방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전환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도난문화재 회수를 위해 실질적인 대안으로 현재 200만원으로 책정된 '신고 포상금' 예산을 확충하고 문화재 관련 전담수사인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문화재 관련 수사전담인력은 4명에 불과하며, 연구소를 포함해 최대 7명을 추가로 운용할 수 있지만 여전히 도난문화재 회수율은 5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조선왕조실록 · 의궤 오대산 사고본의 환지본처에 대한 질의도 제기됐다. 배현진 의원(국민의힘)은 "조선왕조실록 · 의궤가 일제강점기 불법반출된 후 정부와 민간, 조계종과 월정사의 노력으로 환수됐지만 오대산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돼 있다"며 "지난 2월 88명의 여 · 야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실록 · 의궤 환지본처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조속히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도 "월정사가 기부채납 의향서를 제출했고, 이번 달 채납이 완료될 예정"이라며 "행정안전부의 직제 절차와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반영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국립조선왕조실록 · 의궤전시관을 개편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외 반출 문화재 환수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특히 일제강점기 반출돼 현재 일본인이 소장 중인 '백제금동보살관음입상'과 관련, 문화재 반환을 위해 매입기금 상한액을 제한한 응찰상한액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문체위원장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핵심은 문화재를 반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한액을 더 현실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황보승희 의원(국민의힘)도 "소유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경매로 넘긴다면 추후에 환수 비용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며 적극 협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10·27법난 제42주년 추념문화제

지난 1980년 10월 27일 독재정권에 의해 자행된 '10.27법난'은 군인과 경찰 등 3만여명의 공권력이 전국 5천여개 사찰을 군홧발로 짓밟고, 2천여명의 스님과 불교관계자들을 연행하여 고문한 한국불교 근현대사에 있어서 최대의 수난사입니다.

올해로 '10.27법난'이 자행 된지 어느덧 4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역사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우리는 그 고통의 역사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불법적이고 불행한 사건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10.27법난'의 아픔을 역사의 기억으로 간직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공권력에 의한 탄압과 인권침해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10.27법난' 제42주년 추념문화제를 개최합니다.

10·27법난 제42주년 추념문화제

2022. 10. 27(목)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공연장

문의 : 02-2011-1824(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불교계, '국가부도' 스리랑카에 인도적 지원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해외교구 미중서부 7개 사찰
총무원장 스님에 9270달러
아름다운동행, 11월까지 모금
마하위하라, 마을 식료품도

국가부도 사태로 고통 받고 있는 스리랑카 국민들을 위해 불교계가 인도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당장 생계에 필요한 식료품부터 의학품까지 생활필수품을 지원하기 위해 불자들이 적극적인 기금 모연에 동참하고 있어 훈훈한 감동이 일고 있다.

조계종 해외특별교구 미중서부해외지회는 10월 1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아름다운동행에 스리랑카 구호기금 미화 9270달러(약 1270만 원)를 지정기탁 했다.

이날 전달한 성금은 스리랑카 국민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미중서부해외지회 7개 사찰이 자발적으로 긴급 후원 모금을 실시, 마련한 것이라 의미가 크다. LA 지역 사찰인 반야사, 고려사, 달마사, 한마음선원, 우리절, 법왕사, 금강선원을 비롯해 재가단체인 보리선우회, LA 거주 스님들, LA포교사단, 그리고 불자들은 9월 중순, 조계종이 스리랑카를 위한 쌀 모금에 나섰다는 소식을 접하고 모금운동을 펼쳐왔다.

이날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먼저, 배석한 LA고려사 주지 묘경 스님과 텍사스 달라스 보현사 주지 지암 스님에게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진우 스님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교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스님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해외교구를 지원해야할 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신경 쓰겠다"고 약속했다.

LA고려사 주지 묘경 스님은 "불교국가인 스리랑카의 상황을 듣고 열심히 기금을 모았다"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름다운동행은 이번 모연금을 활용,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리랑카 국민들에게 쌀과 렌틸콩, 소금 등으로 구성된 식료품 키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방법은 △재한 스리랑카 법당인 아산 마하위하라사원(주지 담마끼띠)을 통한 현지 사원 보급 △조계종 복지타운을 통한 보급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중이다.

지난 7월, 주한스리랑카대사관에 1억 5000여만 원 상당의 필수의약품을 전달한 재한 스리랑카 사찰 마하위하라 사원은 2차 필수의약품 전달을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스리랑카 보건국에 다시 한 번 긴급처치를 위한 시급 의약품 리스트에 대한 협조를 구한 상태다. 마하위하라 사원은 의약품뿐 아니라 식량 위기로 극심한 기근을 겪고 있는 10여 개 마을을 선정, 약 500인분의 식료품을 스리랑카 내 사원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지원금은 현재까지 2000여만 원에 달한다.



조계종 해외특별교구 미중서부해외지회는 10월 11일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스리랑카 구호기금 미화 9270달러를 전달했다.

담마끼띠 스님은 "재한 스리랑카인 및 한국불자들의 보시금으로 가능한 일"이라며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마을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불자들의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마하위하라 사원은 기금이 모이는 대로 지원 마을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금을 지속적으로 모연중이다. 기업은행 641-042679-04-016(사)마하위하라.

한편 스리랑카는 지난 2월 국가 비상사태 선포 이후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면서 대통령 교체, 물자 부족 등 사회·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처한 상태다. 아름다운동행은 11월까지 쌀과 렌틸콩, 소금 등을 전달하기 위한 모금활동을 불교계 전반에서 펼치고 있다. 농협 301-0315-9664-31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

문체부 "신안군 천사섬 사업은 종교차별"

10월 6일 조계종 종평위에 회신
신안군측에 시정·재발방지 권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신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천사섬' 브랜드사업에 대해 "종교차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1004섬 신안'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조성된 예배당 순례길, 12사도 조각상 설립 공원 등에 이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홀리랜드 사업' 등에 대한 진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계종 사회부는 10월 13일 "문체부 산하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가 10월 6일 회신을 통해 신안군의 천사섬 브랜드 사업은 특정 종교적 색채가 부각되며, 이는 종교차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올해 4월 12일과 8월 17일,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에 두 차례에 걸쳐 신한군의 기독교편향 사업을 신고했다.

조계종 사회부에 따르면 문체부는 공직자종교차별자문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 신안군이 자체 재원으로 추진한 '천사섬' 브랜드사업은 특정종교적 색채가 부각됐던 바, "종교차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추후 타 지자체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신안군에게 신속한 시정조치 계획수립 및 추진과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권고했다.

신안군은 관광 활성화라는 명분하에 군내 도서에 공적자금으로 기독교 선교사업을 정책으로 채택, 대대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1004섬 신안'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기점소악도에 십자가와 함께 12사도의 명칭이 달린 예배당을 건립하고 순례길을 조성했다. 병풍도에는 십자가가 12사도 조각상이 세워진 공원이 조성됐으며, 임자도에 '홀리랜드 사업' 일환으로 기독체험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국·군비 95억 원을 책정한 상태다. 성시화로 추정되는 사업에도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한 조계종 사회부는 개신교 편향적인 사업을 민간의 주도가 아닌 지자체가 직접 추진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며 종교 간 화합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라며 꾸준히 시정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신안군 측은 "종교편향은 아니다"는 입장만 반복해 빈축을 사왔다.

문체부의 판단에 대해 조계종 사회부장 범종 스님은 "다시는 종교편향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대안을 철저히 마련하고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사찰 경제 활성화·지역공동체 실현 기대"

조계종 사업부, 10월 12일 사회적기업 포럼

사찰 사례 토대로 발전 모색
불교네트워크 추진위도 발족

"사찰 사회적 경제 활성화 동기 부여뿐 아니라 사람과 지구를 살리는 탄소중립을 실천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 실현에도 동참할 수 있었죠."

지구사랑 작은실천 사회적협동조합 이사 혜눌 스님이 조계종 사업부(사업부장 주혜)가 10월 1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불교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포럼' <사진>에서 사례발표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포럼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창업한 사찰 사례를 통해 불교사회적경제의 방향성을 살펴보고 발전방향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한마음선원 작은실천 사회적협동조합과 수월암 마인드푸드 협동조합이 발제자로 나서, 설립과정과 주요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지구사랑 작은실천은 한마음선원이 2018년 EM지구사랑작은실천 승가결사체를 조직한 후 조계종 사업부의 컨설팅을 받고 2022년 1월 설립했다. EM스마트 발효기 특허 2종은 현재 학교 등 187개 지역공동체에서 사용 중이다. EM친환경제품은 사찰 사회적경제기업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마인드푸드협동조합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사찰건강밥상'을 모토로 건강한 식문화 보급 및 사찰음식 및 문화프로그램 제공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사례발표 후에는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희유 스님, 박주언 사람과사회적경제 센터장, 윤종헌 사람인협도조합 이사장, 강경환 사회적기업 눈 대표가 나서 종합토론을 이어갔다. 이들은 △스님과 재가불자를 대상으로 한 종단 차원의 주기적인 권역별 교육 실시 △사회적경제를 자발적으로 실천하려는 사찰 발굴을 통한 개별 수익 모델 판로 확보 △지자체, 종단과의 연계 방안 모색 △사업 조기 정착을 위한 집중 컨설팅 및 지원 실시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포럼에서 조계종 사업부는 사찰기반 불교사회적경제기업의 연계 및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네트워크협의체 추진위를 발족하기도 했다. 사업부는 협의체 추진위를 기반으로 불교사회적경제의 생태계 기반조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사찰간의 협력과 협업사업의 다양화를 통한 사찰과 신도단체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조계종 사업부장 주혜 스님은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실현은 자비와 나눔이라는 부처님 실천적 가르침과도 상통하며 불교계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경제여건 확충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다양한 발제와 담론을 통해 사회적 경제의 가치와 정신을 불교적 가치와 정신에 비춰보고 이를 통해 불교공동체 속에 뿌리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 사업부는 지난 4년간 사람과사회적경제와 함께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총 26여 개 사찰 및 기관에 컨설팅을 지원했고 7개 사찰과 기관에서 협동조합 등을 창업했다. 또 3개 사찰에서는 창업을 준비하는 등 사회적경제의 불교 저변확대에 성과를 이루고 있다.

임은호 기자

20돌 템플스테이, 미래 발전 방향 논한다

문화사업단, 10월 24일 국회서 20주년 세미나

20년 성과와 발전 방향 논의
템플스테이 세계화 방안 살펴

템플스테이 20년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명, 이하 문화사업단)은 10월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템플스테이20년의 성과와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의 핵심 내용은 20년을 맞은 템플스테이의 세계화로, 템플스테이가 국내를 넘어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대표 전통문화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사찰음식의 발전 방향에서도 논의가 이뤄진다.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나눠 진행되는 세미나에서는 전병길 동국대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교수가 '템플스테이 20년의 성과와 발전방향'을, 이규민 경희대 외식경영학과 교수가 '사찰음식 성과와 미래 방향'을 각각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초빙석좌연구위원을 좌장으로 템플스테이 전문위원이자 망경산사 주지인 하원 스님, 심원섭 목포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사찰음식 명장 선재 스님, 김종덕 국제슬로푸드 한국협회장이 참여한다.

이번 세미나의 참가신청은 10월 19일까지 안내문 QR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국회의원회관 출입을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세미나 당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템플스테이 20주년 사진전 개막식도 진행된다. 템플스테이 20주년 사진전은 10월 28일까지 이어진다.

문화사업단장 원명 스님은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방한한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해 시작한 템플스테이가 오늘까지 이어져 20주년을 맞았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앞으로의 성과는 발전시켜 나가고,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점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템플스테이를 지속가능한 전통불교문화 콘텐츠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정중 무상공 존자 사바강탄 1338주년 기념

제1회 (사)세계불교 승황성 창립 법회

- 국민 화합 세상 길 찾기 행사 -

일시 2022년 10월 29일 토요일 12:00시

장소 (사)세계불교 승황성 근본 도량 마강사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TEL 041-832-4153 HP 010-6478-1569

주관 (사)세계불교승황성, (사)호국불교 승가회, (사)대한생활불교회

후원 호국불교 조계종, ㈜조안건설, 극락사 세종수목장, 광제당 한약방, ㈜정명산업, 지방모드

※ 전국 사부대중 수희 동참바랍니다. ※

정중 무상공 존자

(無相 : 684-762)은 신화 신문왕의 제4왕자로 728년 당에 건너가 처절한 구법행각으로 정중 보당 선파를 창립 홍인(弘忍)의 수선승단(修禪僧團)인 동산법문(東山法門)에서 방지(旁支)로 분화된 지선을(智詵)을 개조(開祖)로 하여 처적(處寂)-무상(無相)-무주(無住)-신회(神會)에 이르는 사천(四川)의 가장 큰 종파(宗派)로 종밀의 圓覺經 大疏鈔에서 정중종(淨衆宗)을 선종의 제2가(家)로 분류 하였다.
중국의 역대 2,000여 고승(高僧)가운데 실존 인물로 오백나한에 들어간 분은 동아시아의 고승 가운데는 오직 무상존자(無相尊者)만이 유일하다.
돈황석실(敦煌石室)에서 발굴된 무상오경전(無相五輕轉)과 무상어록(無相語錄)이 있으며 남조도전(南詔圖傳)과 역대법보기(歷代法寶記)에 무상 선사를 성인(聖人)으로 숭상하는 자료들이 남아 있다.

경쟁 지친 청년 위한 명상캠프 열린다

문경명상마을, 10월 28~30일 청년명상 힐링캠프

만18~39세 청년 대상 진행
각산 · 마가 · 월호 스님 등
한국 대표 명상 멘토 강연도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한국을 대표하는 참선명상센터로 거듭난 간화선 국제선센터 문경세계명상마을(회주 의정)이 학업과 취업난에 지친 청년층을 위한 명상 축제를 마련했다. 국민명상센터를 지향하며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히고자 앞장서는 문경세계명상마을이 이번에는 청년들의 삶에 주목했다.

문경세계명상마을 선원장 각산 스님은 10월 28~30일 3일간 '청년이여 비상하라, 청년명상힐링캠프'를 개최한다. 만 18~39세 대한민국 청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한국참선지도자협회 공동회장 각산 · 마가 스님과 행불선원장 월호 스님, 비베카 킴 인도 비베카난다요가대 한국지부 대표, 채희걸 세계선무도총연맹 이사가 직접 강의하는 요가 · 선무도 · 밤하늘별보기 등 다양한 강연과 명상체험으로 구성됐다.

행사는 청년 미래의 꿈과 창업 그리고 청년 직장인의 업무 스트레스와 학업에 따른 육체적 심리 압박을 명상으로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원초적 수행을 갖춘 불교명상의 참선은 일반 명상과는 결이 다르게 내면의 숨겨진 나를 만나 지혜의 빛을 비추게 한다.

유발 하라리, 빌게이츠, 아놀드 슈워제네거, 스티브 잡스 등 세계 유수 리더들은 이미 불교명상에 젖어있다. 청년불자들에게도 이번 청년명상힐링캠프를 통해 붓다의 고차원적인 철학적 진리와 불교만이 갖는 고품격 명상 수행을 체험해 청년불자들의 불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년들에게 바쁜 생활 속에서 참선 명상으로 나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갖게해 어떻게 새로운 삶을 만들 것인가를 스스로 탐구하게 하고자 한다. 참가자는 100명으로 마감되었고, 현재는 대기자 신청만 받는다.

참석자들 신청 동기 면면을 들여다 보면, "전통 간화선 수행의 참 진리를 알고 싶다" "정확한 초기불교 명상을 알고 싶다" "내면을 탐색하고 싶다" "내면의 생각이 너무 많아서다" "명상으로 잡생각을 없애고 싶다" "명상을 시작하고 많이 달라졌기에 더 배우고 싶다" "참선으로 마음의 정화를 하고 싶다" "마음이 답답하고 공허해서다" "명상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싶은 시간을 갖고 싶다" 등등이다.

문경세계명상마을 선원장 각산 스님(참불선원 선원장)은 "한국불교의 미래는 청년 불자에게 달려 있다. 오늘날 명상이 지식층서 대세로 굳혀지며 외국에선 변호사 · 구글 엔지니어 등 20~30대의 엘리트들이 명상을 접하고 있다"며 "세계명상마을에서 프랑스 떼제공동체 낭만도 접하면서 간화선과 초기불교 통합수행의 원초적 명상을 체험하며 청년들이 당당한 내면의 불성을 찾고, 봉암사 희양산의 밤하늘 별을 마음껏 감상하며 힐링과 자유를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은 2박3일 동안 단체명상을 체험할 수 있고, 차명상, 숲속 걷기명상 체험과 선무도, 요가 체험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명상마스터 강연 및 선승과의 대화를 통해 통찰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28일 오후 1시 세계명상마을에 집결해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며, 마가 스님 강연과 비베카 킴 대표의 요가 수업으로 본 행사가 시작된다. 다음날인 29일은 종소리 명상 · 채희걸 이사의 선무도 강연 · 숲속 걷기명상 · 월호 스님 강연 등이 진행된다.

마지막날인 30일에는 각자 방사 청소 후 해단식이 열린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예불과 참선, 밤 9~12시 밤하늘 보기 명상도 이뤄진다. 캠프 시작날인 28일 점촌터미널서 세계명상마을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하며 참가자들은 개인 이불 · 손전등 · 세면도구 등을 지참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프로그램으로서 참가비는 무료이다.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문의)1577-4327

"일붕 서경보 스님 가르침 계승할 터"

일붕문도중앙회, 영평사서 문도의 날 기념법회 봉행 문도회장 정림 스님 취임

국내외 각지에서 일붕 서경보 스님의 유지를 계승하고 있는 1만여 일붕문도가 51년째 기념법석을 열고 제25대 일붕문도중앙회장 정림 스님의 연임을 계기로 그 가르침을 널리 확산시키겠다는 서원을 모았다.

공익법인 세계법왕일붕문도중앙회는 10월 11일 안성 영평사에서 '제51회 세계법왕 일붕문도의 날 기념법회 및 제25대 회장 정림 스님 취임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일붕문도가 한자리에 모여 스님의 가르침인 자비와 평화 사상을 되새기고 실현하기 위한 법석으로 진행됐다. 일붕문도는 일붕 서경보 스님의 열반 이후에도 매년 전국 일붕문도의 날을 지속해 왔다.

51회를 맞은 일붕문도의 날 기념법회에서는 제25대 중앙회장으로 영평사 주지 정림 스님이 연임됐다. 이날 25대 회장에 취임한 정림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의 대스승인 세계법왕 일붕 서경보 존자님은 열반에 드셨지만 항상 우리 곁에 있다"며 "세연을 다한지 27년이 지나도 많은 제자분들이 그 가르침을 추앙하면서 사상을 더욱 드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법왕일붕문도중앙회는 10월 11일 안성 영평사에서 '제51회 세계법왕 일붕문도의 날 기념법회 및 제25대 회장 정림 스님 취임대법회'를 봉행했다.

스님에 따르면 일붕 서경보 스님은 특히 남북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한반도 최남단 제주도 마라도에서 최북단 통일전망대까지 850여개의 기념비를 건립했으며,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세계불교법왕청을 설립해 초대 세계법왕으로 추대된 바 있다.

25대 임원진에는 수석고문에 의현 대종사, 문장에 혜운 스님, 총재 동봉 스님, 명예회장에 천강 스님 등이 추대됐다.

문장 혜운 스님(일붕사 회주)은 인사말에서 "일붕 서경보 존자의 생존시부터 함께 한국불교를 이끌어오신 서의현 대종사께서 일붕문도중앙회 수석고문으로 추대되심을 1만여 문도의 환영인사를 대신 전한다"고 감사를 전했다.

대한불교종정협의회장 · 이사장 월인 대종사도 격려사에서 "일붕 스님은 일찍이 독특한 선수행과 포교활동으로 한국불교 큰 스승으로 존경받았다"며 "이 자리가 큰스님께서 염원하신 세계평화와 남북평화통일, 국태민안 국운융창을 위한 절실한 기도와 원력을 모으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총재 동봉 스님과 명예회장 천강 스님도 일붕문도의 역할을 재차 당부했으며, 종정협의회 수석부회장 정산 대종사와 일붕문도중앙회 상임고문 법륜 스님, 수석부회장 광명심(최혜숙)원장,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을 비롯한 각계 내빈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한편 일붕문도는 이날 자천강 명예회장에 일붕평화대상을, 최혜숙 수석부회장에 봉사상 수여했다.

안성=송지희 기자

전국 청년 불자들 한자리에

대불청, 29~30일 금산사서 청년대회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장정화, 이하 대불청)는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김제 금산사 처영기념관에서 창립 102주년 기념 제40차 전국불교청년대회를 개최한다.

'청년불자! 미륵불을 만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서는 29일 식전행사로 금산사 사찰문화답사와 체험활동이 진행되며, 본대회서는 성악공연과 스님 초청법문, 시상식, 전국청년불자결의 등이 이어진다. 또 본대회 후 대동놀이 행사로 국악공연 및 난타공연, 김용진 가수의 음성공양이 이어진다.

10월 30일에는 회향식과 함께 내장사, 선운사, 금당사, 탑사 등 각 지구별 성지순례가 진행된다.

대불청 측은 "이번 대회는 어려운 여건에도 꾸준한 활동을 이어온 회원들이 서로 법우애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화합의 자리"라며 "태공 월주 스님의 정신이 깃든 김제 금산사에서 불청대회를 개최하여 참여와 나눔, 화합, 실천의 미래 청년포교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노덕현 기자

생명나눔, 생명나눔대상 후보자 공모

11월 6일까지 본부로 접수
대상 · 홍보 · 생명 · 나눔 등
11월 19일 건국대서 시상식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가 오는 11월 6일까지 '제3회 생명나눔대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생명나눔대상은 올 한해 생명나눔 문화확산을 위해 기여한 이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생명나눔 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법인행사 기여도, 홍보 횟수, 전문성 및 성실성, 법인에 대한 관심도, 장기 및 조혈모세포 등록 활성화, 기부 등의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생명나눔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심의해 그 공로를 높이 치하할 계획이다.

추천 부문은 대상과 홍보상, 생명상, 나눔상 등 4개 부문이다. 대상은 생명나눔 전 부문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홍보상은 언론과 출판, 문화부문에서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생명상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 등록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나눔상은 봉사 · 기부 문화 확산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 후보자 추천은 생명나눔실천본부 홈페이지(www.lisa.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접수하면 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 원, 홍보상 · 생명상 · 나눔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100만 원이 수여된다.

시상은 11월 19일 건국대서 예정된 제13회 생명나눔 자선음악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임은호 기자

청주 평화사, 동국대에 1000만원 기부

건학위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기금에 전달

청주 평화사(주지 선현)가 동국대에 1000만 원을 쾌척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는 10월 12일 본관 5층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평화사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수여식에는 건학위원회 위원장 돈관 스님, 박기련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학교법인에서는 지정학 법인사무처장, 동국대 서울캠퍼스에서는 윤성이 총장과 박광현 교무학생처장, 평화사 장학생 10명이 함께 했다. 평화사 주지 선현 스님은 사찰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기획부총장 종호 스님이 대신 참석했다.

돈관 스님은 "오늘 장학생들은 지역 인재로서 장학생이 된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평화사 장학생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 왼쪽 의자 착석자부터)윤성이 동국대 총장,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 기획부총장 종호 스님과 평화사 장학생 등 참석자들이 기부금 전달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현대불교신문 창간 28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운 문 사
회주 명성 율주 일진
학장 진광 주지 운산
신도회장 박순곤
운문사 사부대중일동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 전화 054)372-8800 팩스 054)371-0359 www.unmunsa.or.kr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의원 당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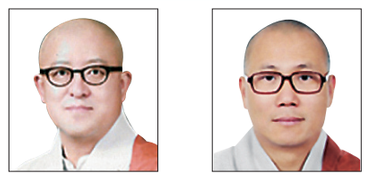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의원 81명이 10월 13일 직선직의원 선거를 끝으로 최종 확정됐다. 24개 교구본사 가운데 직할교구와 마곡사, 불국사, 송광사, 선운사 등 5곳에서 경선이 치러졌으며, 19개 교구본사는 무투표 당선으로 선출됐다. 18대 중앙종회의원 임기는 11월 9일부터 시작된다.

직할교구



효명 스님 종원 스님 도심 스님 탄웅 스님

용주사



탄탄 스님 덕운 스님

신흥사



우송 스님 삼조 스님

월정사



해량 스님 설암 스님

법주사



정덕 스님 원경 스님

마곡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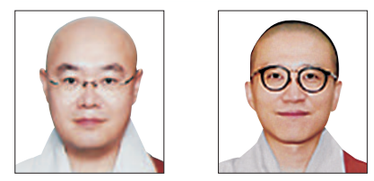
종봉 스님 태진 스님

수덕사



주경 스님 정범 스님

직지사



묘장 스님 현무 스님

동화사



선광 스님 호암 스님

은해사



성로 스님 성원 스님

불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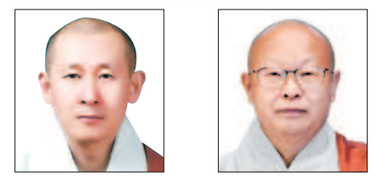
성행 스님 성제 스님

해인사



응관 스님 학암 스님 제정 스님

쌍계사



지현 스님 현담 스님

범어사



석산 스님 도림 스님

통도사



진각 스님 보화 스님

고운사



도륜 스님 혜산 스님

금산사



화평 스님 각진 스님

백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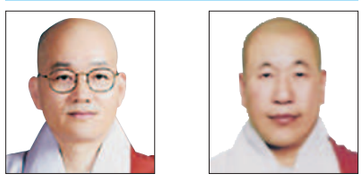
만당 스님 석장 스님

화엄사



대진 스님 연규 스님

송광사



일화 스님 시공 스님

대흥사



설도 스님 향문 스님

관음사



도성 스님 탄하 스님

선운사



태효 스님 재안 스님

봉선사



보관 스님 혜공 스님

직능



보인 스님 경암 스님 법원 스님 진화 스님 가섭 스님 우석 스님 덕현 스님 진각 스님 무관 스님

직능



오심 스님 심우 스님 원명 스님 현담 스님 우봉 스님 법원 스님(대흥사) 성웅 스님 각연 스님 법성 스님 원각 스님 무경 스님

비구니



정운 스님 철우 스님 진명 스님 정관 스님 혜도 스님 진상 스님 혜성 스님 법해 스님 지인 스님 설해 스님

현대불교신문 창간 28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포항지원

지원장 혜 문

사부대중일동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로 59(우현동) 전화 054)232-3163 팩스 054)241-3503



현대불교신문 창간 28주년을 축하합니다

大韓佛教 天台宗

종정 김도용 대종사

총무원
총무원장 김무원
총무부장 김갈수
교무부장 서덕재
교육부장 구성해
재무부장 정장호
사회부장 정도웅
규정부장 박거홍
기획실장 이갈지

원로원
원로원장 주정산
원로간사 김도산

종의회
종의회의장 김세운
종의회부의장 황세열

감사원
감사원장 조진덕
감사위원 곽수산

종정사서실
사서실장 박덕수

금강대학교 총장 정용덕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주 소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총본산 구인사
전 화 (043)423-7100 팩스 (043)420-7399
홈페이지 www.cheontae.org

광명사, 창립 53주년·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법회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일상수행 위한 천태지관다법 첫 선 시민들과 함께하는 들차회 및 공연 쌀 10kg 100포 성금 300만 원 전달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천태종 부산 광명사(주지 춘광)가 10월 9일 3층 지관전에서 '창립 53주년 및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법회'를 개최했다.

광명사는 이번 창립 기념법회를 통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고 부산의 발전과 번영을 바라는 마음으로 법회를 열었다.

법회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 부산불교연합회장 보운 스님, 삼광사 주지 영제 스님, 박형준 부산시장, 하윤수 부산교육감, 백종헌 국회의원, 김제윤 금정구청장, 이재동 광명사 신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법회는 △삼귀의례 △찬불가 △상월원각대조사 법어 봉독 △국운융창기원 △이웃 나눔 △연혁보고 △봉행사 △법문 △축사 △기원문 낭독 △관음정진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광명사는 먼저 헌다 의식을 통해 창립을 기념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를 기원했다. 헌다의식에는 부산 광명사·삼광사, 울산 정광사, 김해 해성사, 진해 해장사, 창원 원흥사, 진주 월경사 등 천태종 사찰 소속 다도회가 장엄한 헌다의식을 연출했다. 아울러 중국 천태종 개창조인 천태 지의대사와 한국 천태종을 개립한 대각국사 의천 스님께 차를 올리는 천태지관다법을 선보였다. 천태지관다법은 이번 행사를 통해 처음 소개하는 다법으로, 일상생활 가운데서 차를 통해 지관 수행을 가능하게 돕는다. 천태지관다법에서 앞차행다법은 고려의 대차를 우려내는 다법으로 '천태소지관'의 지관수행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말차행다법은 고려의 뇌원차점다법과 〈법화경〉의 제약법을 수용한 다법이며 지자대사의 '마하지관'의 지관수행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광명사는 법회와 헌다의식 외에도 들차회와 광명문화예술제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회향했다. 들차회에는 천태종 소속 사찰 다도회와 부산여대(배귀점 교수), 이초신 금낭화 팀이 동참했으며 광명문화예술제에는 광명합창단과 어린이합창단을 비롯해 박현진 소프라노, 김화정 테너, 판소리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졌다.


천태종 부산 광명사가 10월 9일 3층 지관전에서 '창립 53주년 및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법회'를 개최했다.

무원 스님은 법문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중심을 잡고 부처님 가르침을 법식으로 삼아 마음을 건강하게 해야 한다"며 "창립 53주년을 맞은 광명사에서 열심히 기도 정진하고 힘들 때면 찾아와 수행하며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지 춘광 스님은 "앞으로 광명사 사부대중은 부산시민과 함께 자비와 지혜, 사랑으로 소통하고 불안과 근심 걱정을 해소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포교의 문을 활짝 열기 위해 명상힐링센터 운영과 생활차문화대학, 법화산림법회 등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정신안정과 행복을 위해 시대적 책임을 다하는 광명사가 될 것"이라 말했다.

춘광 스님은 법회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해주길 당부하며 쌀 10kg 100포를 금정구청에 전달하고, 성금 300만 원을 부산광명복지회에 전달했다.

광명사는 1969년 10월 15일 부산시 동구 좌천동 김정숙 불자의 집에서 부산신도회 창립법회를 개최하며 시작됐다. 1973년 12월 5일 부산시 장전동 구 관음사 법당을 매입한 후 상월원각대조사가 '광명사'로 명명해 부산 천태신앙의 번영과 토대를 마련했다. 1981년 3월 30일 광명사 초대 주지로 주정산 스님이 임명되었으며, 1982년 6월 4일 광명사 관음불상 봉안식, 2008년 6월 6일 지관전 대법당 기공식, 2009년 8월 15일 법당 상량식, 2016년 12월 12일 일주문 낙성식, 2022년 6월 5일 미륵대범종각 기공식을 봉행했다.

창원불교聯, 제32회 산해원문화상 후보자 공모



창원특례시불교연합회(회장 정인)가 제32회 향기로운 산해원(山海原) 문화상 수상 후보자를 모집한다.

산해원문화상의 분야는 문학상, 예술상, 언론상, 한마음행원상이다. 후보자격은 해당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전문 활동경력을 가진 자로 선정하며, 지역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남 지역인을 선정한다. 후보자의 종교와는 무관하게 추천 가능하다.

가 부문 수상자에게는 창작지원금 700만 원 및 상패가 주어지며 시상식은 12월 5일 창원 그랜드 머큐어 엠배서드 창원(구,풀만호텔)에서 개최된다.

접수 마감은 10월 31일까지이며 추천권자는 기관단체장, 문화예술, 언론, 봉사단체 대표 등 이다. 010-3875-5593. 성낙두 경남지사장

홍법사, 개산 19주년·창건주 탄생 100주년 기려

허공마지 선차대회 등 다양한 행사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가 10월 8일 경내 잔디마당에서 '제3회 허공마지 선차문화 대회 및 제5회 홍법 사찰음식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개산 19주년과 창건주 하도명화 보살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고,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1부 사찰음식 명장 대안스님과 함께하는 한국전통사찰음식 만찬회, 2부 전국 30여 다회의 선차 시음들차회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주지 심산 스님과 석태암 주지 만초 스님, 청송사 주지 묘경 스님, 양재생 홍법사 신도회장,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장, 이병진 부산행정부시장, 백종헌 국회의원,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도경창 주부산중국총영사 직무대행, 칙터 우너르자야 주부산몽골총영사 등 108인의 내빈이 참석했다.

사찰음식으로 마련된 만찬에서 내빈들의 축사와 주지 심산 스님의 인사말이 이어졌으며 공양 후 잔디마당에 마련된 3000개의 평안등에 불을 밝혔다. 또 잔디마당에서는 30개의 다도팀이 참여해 찻자리를 마련하고 다법 및 선차를 직접 시음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주지 심산 스님은 "차와 음식은 우리의 일상이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에서 벗어나 불교의 일상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이다. 일상은 문화이며 문화는 우리의 정신이 된다"며 "화려한 먹거리에서 벗어나 소박하고 자연과 생명과 공생하는 불교문화를 함께 맛보며 우리의 삶이 더욱 성장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홍법사는 널리 법을 펼친다는 뜻으로 홍법(弘法)이란 이름을 걸고 2003년 9월 농장 비닐하우스농막에 부처님을 모시고 불사를 시작했다. 2009년 4월 전통과 현대적인 건축문화가 잘 어우러진 원형 법당을 조성하고 낙성식을 봉행했으며, 원형법당은 전통불교 건축형식의 틀을 깨고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복지화, 세계화'를 위한 도약의 발판으로 삼았다. 홍법사의 상징이 된 높이 21m의 아미타 대불은 2010년에 조성됐다. 건물의 높이까지 더하면 45m로, 국내 최대의 좌불이다. 특히 점안식을 앞두고 홍법사의 원대한 포교 원력을 전해들은 달라이라마 존자가 부처님 진신사리를 전해왔다. 현재 법당에서는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 일만배 기도, 1080배 기도, 사경, 독경 등 수행을 이어가고 있으며, 독성각에는 창건주 하도명화의 원불(願佛)인 나반존자를 안치해 창건주의 기도 및 수행정신을 기리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천불정사, 행정고시 합격자 축하행사

5급 합격자 장명훈 참석해 감사인사

인재불사도량 부산 천불정사(회주 고담)가 10월 7일 경내 법당에서 '천불정사 인재불사 5급 행정고시 합격 축하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천불정사에서 후원한 신목정과 고담정에서 공부하고 2022년 5급(행정) 공채에 최종 합격한 장명훈 학생(부산대학교 심리학과 12학번)이 참석해 고담 스님께 감사 인사를 올렸다. 이번 해 5급(행정) 공채에 최종 합격한 합격자는 장명훈 학생과 김태훈 학생(건축공학과 15학번) 등이 있다.



강재호 행정학과 교수는 "매년 스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심양면 후원해주셔서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회주 고담 스님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여건이었는데 좋은 결과를 가지고 만날 수 있어 장하고 앞으로도 초심을 잊지 말고 사회와 나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성주사, 청소년 사생대회 및 전시회

불모산 창원 성주사(주지 법안)는 10월 8일 성주사 지장전 앞 마당에서 백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했다.

백일장에는 성주사 현덕 스님, 김일태 경남문인협회 창원예총 고문, 양연규 前 진해 석동중 교장, 문양수 前김해 대정고 교장, 장선자 경남산가람 미술협회회장, 강주연 미술협회부회장, 경남포교사단 포교사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이원환 포교사 사회로 개회식, 현덕 스님 인사말, 심사위원 소개, 심사위원장 인사 등이 진행됐다.



현덕 스님은 "청소년들의 가을 하늘처럼 맑고 깨끗한 마음을 글과 그림으로서 멋지게 표현하길 바란다"며 "성주사 곳곳의 문화유산을 좋은 글로 나타내 달라"고 당부했다.

김일태 심사위원장은 심사소감에서 "성주사에 오니 머리도 맑아지고 마음도 맑고 깨끗해지는 듯하다. 이런 마음으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면 좋은 작품이 저절로 만들어 진다"며 "불가에서 이야기하는 수행의 과정을 선시와 선화는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성주사 곳곳에서는 전시전이 함께 펼쳐졌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템플스테이 20년의 성과와 발전방향 세미나

10.24(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2층)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국회정각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CULTURE, SPORTS AND TOURISM COMMITTEE
주관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Cultural Corps of Korean Buddhism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참가신청 QR코드를 통해 10월 19일(수)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 2031-2024
※국회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 QR코드

템플스테이 20주년 사진전
10.24월 ~28금
개막식 10.24(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2층)

조계종 어산종장 덕산 스님 고불법회 봉행

前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
대덕스님 참석해 지정축하
금선암 대중 승보공양 올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주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의 조계종 어산종장 지정기념 고불법회가 봉행됐다. 10월 9일 금선암 극락보전에서 봉행된 이날 고불법회는 보배경, 자비경, 축복경 독송으로 시작됐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前 총무원장 원행 스님,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 조계종 어장 인묵 스님, 여향 선원장 성찬 스님, 완주 송광사 주지 법진 스님, 익산 정각사 일행 스님, 김용수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하유호 108산사순례단장, 송재면 화엄불교대학 총동문회장, 오종근 전주불교연합회장, 안준아 금선암 신도회장 등 신행단체장들과 불자들이 참석해 덕산 스님의 어산종장 지정을 축하했다.

금선암 사부대중은 이날 참석한 스님들께 존경의 의미를 담아 작은 선물을 스님들께 대중공양했다. 또 포교원력을 실천하고 있는 김덕순 포교사에 격려금을 전달했다.

송광사 주지 법진 스님은 고유문을 통해 "비구 덕산이 내는 소리는 육근을 조화롭게 만드는 아름다운 하늘소리이다. 종단에서도 덕산의 깊은 내력을 알고 조계종 어산종장으로 지정했다" 고 덕산 스님을 칭송했다.

스님은 이어 "덕산 스님은 부끄럽다며 스스로 낮추었지만 후학과 종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깊은 원력과 신심을 잘 알고 있다"며 "금선암에는 경사스런 일이다. 덕산 스님이 세운 원력이 물러나지 않는다. 이 법석에 참석하신 불자들과 모든 생명존재들에게 이익과 행복을 고루 나누어 드리고자한다"고 부처님 전에 고했다.

덕산 스님은 인사말에서 "금선암 중창주 스님과 무형문화재 일응 스님, 스승이신 인묵 스님 덕분에 오늘의 자리가 있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를 사명감을 느낀다. 지역불교발전은 물론 불교의 사회화, 현대화, 대중화와 지역불교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어산종장으로 지정된 덕산 스님(사진 왼쪽)을 조계종 前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축하하고 있다.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은 "약한 교세에 비해 강점을 가진 어산 범패분야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덕산 스님께서 놓아주었다"며 "덕산 스님의 어산종장 지정을 17교구 사부대중과 함께 축하하며 앞으로 17교구 차원에서 어산 전문스님 양성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여향선원 선원장 성찬 스님은 축사에서 "염불은 찬불을 뜻하고 찬불은 공덕모으고 쌓아 깨달음을 얻기 위함이며 깨달음을 얻는 것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며 "이러한 뜻을 알고 꾸준히 정진해온 덕산 스님의 어산종장 지정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안준아 금선암 신도회장은 "늘 함께 해왔던 덕산 스님의 공덕을 미쳐 모르고 잘 모시지 못한 점이 아쉽다. 소중한 자리에 참석해주신 스님들과 신도단체장 및 신도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십선계 잘 지켜나가는 불자들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원행 스님은 법문에서 "금선암은 오랫동안 덕산 스님과 함께 십선계 실천운동을 하는 도량으로 알고있다"며 "종단에서 군장병들에게 내리는 십계는 출가사미에게 주는 것으로 맞지않다 여기고 총무원장 취임 후 십선계로 바꾸게 했다"고 총무원장 재직 중 일화를 소개했다.

스님은 이어 "금산사 방등계단은 사부대중이 평등하게 계를 수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곳으로 오랫동안 이곳에서 십선계를 수지했다. 〈천수경〉의 십악참회를 반대로 하면을 바로 십선이 된다"며 "〈미륵삼부경〉에 미륵부처님은 중생들이 십선법을 행할 때 사바세계에 나투신다고 했다. 앞으로도 십선계를 수지하고 실천하는 불자들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안동장애인서포터즈 가을 나들이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도륜)은 10월 12일 복지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울진 일대로 가을여행을 떠났다. '2022년 자원봉사자와 함께 가을 바람 맞으러!' 를 주제로 열린 이번 여행에서는 13개 단체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다.

안동장애인복지관 측은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복지관 운영에 큰 힘이 된다며, 이번 가을 여행이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대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고 전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달빛내륙철도 조기착공 기원

해인사 10월 6일
국민힐링 달빛 콘서트 봉행



법보종찰 합천 해인사(주지 현응)는 10월 6일 해인사 경내에서 달빛내륙철도 조기착공을 염원하는 국민힐링 달빛 콘서트를 개최했다.

달빛내륙철도는 대구 달구벌과 광주 빛고을에서 이름을 딴 철도로 동서 화합과 문화 관광의 교류를 상징한다.

이날 콘서트에는 해인사 방장 원각스님을 비롯해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 총무국장 진각 스님 등 대중스님들과 주호영 김정호 김기현 정희용 국회의원,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윤철 합천군수, 이종화 대구경제부시장, 구인모 거창군수, 이남철 고령군수, 진병영 함양군수, 조삼술 합천군의회의장, 김성우 성주군의회의장, 가수 최성수, 주현미, 웅산, 임태경 등 2500여 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해인사 포교국장 승우스님의 사회로 주지 스님 인사, 각 단체장 축사, 해인사 홍보영상 상영, 축하공연 순서로 진행됐다.

주지 현문 스님은 "오늘 콘서트는 달빛내륙철도의 조기착공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가을밤 달빛이 어우러지는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감사하다. 오늘 모인 마음으로 내륙철도가 조기 착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회의원은 격려사를 통해 "콘서트로 많은 이들이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 사회가 밝아지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불교성지 해인사에서 열린 콘서트가 화합의 장이 될 것"이라며 "내륙철도 조기 착공으로 동서화합 기회가 열리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한편, 해인사 일원에서는 10월 31일까지 개산 1220주년 기념 국화전이 진행되며, 10월 21~22일 제62회 해인사 보살계 수계법회, 10월 21일 학사대 최치원상 제막이 열린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창원 정법사, 제1회 역대조사 다례재

창건 110주년… 만발공양도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주지 광우)는 10월 8일 정법사 만불전에서 창건 110주년 및 제1회 역대조사 다례재를 봉행했다.

1부 다례재는 △나발 헌향 위패 봉안 △개식 △삼귀의 △영축다도회 육법공양 △조사 헌다 △헌화 △다례 시연 △주지스님 봉행사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다례재 후에는 제9탄약창 장병들에게 500만 원의 성금이 전달됐으며, 분다리카 합창단의 축가로 마무리 됐다. 다례재에서 전달된 장학금은 매월 정법사 신도들이 다라니기도로 모은 것으로 제9탄약창 장병들의 건강을 위한 운동기구 구입에 사용될 예정이다.

2부 문화행사는 루체현악앙상블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비건버거 등이 선보인 만발공양, 사홍서원으로 회향됐다. 이어 참가대중들은 정법사 전시장에 마련된 〈발우, 사발〉 展을 둘러보았다.

광우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정법사는 부처님 가르침을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곳이며,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곳"이라며 "앞으로 외로운 이웃들과 함께 하는 곳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우 스님은 이어 "오늘 다례재와 함께 진행된 만발공양은 우리의 음식을 살피고, 지구 환경도 함께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다"며 "우리 마음속 밝은 지혜의 등불을 밝히고 정법 촛불 하나가 수천 수만의 사람들에게 환하게 밝혀지길 서원한다"고 말했다.

창원불교연합회장 정인 스님은 축사를 통해 "스님과 사부대중 모두 함께 탁마하고 공부하는 인연이 된 것 같다"며 "오늘을 계기로 신도대중들이 열심히 정진하고 정법사가 더욱 더 대가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통도사 율원장 덕문 스님은 축사에서 "전통과 역사를 지켜가는 것은 소중한 일"이라며 "정법으로 수행하고 교화하는 스님들의 공덕과 가르침을 잊지 않고 계속이어 가자. 첫 다례재와 만발공양의 의미를 살려 발전시켜나가자"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울산 정관암, 불감 점안·제막법회

10월 9일 정관암 경내서 점안
사물놀이·떡매치기 등 공연도
"울산에도 불감 조성돼 기뻐"



울산 정관암(주지 대활)은 10월 9일 문수산 정관암 경내애서 불감 점안식을 봉행했다.

점안식에는 정관암 대활 스님, 울산불교종단연합회장 백양사 산옹 스님, 화림사 대원 스님, 해남사 혜원 스님, 성불사 혜안 스님, 벽선암 혜진 스님, 원명사 무일 스님, 보은사 지륜스님 등 대중스님들과 정갑윤 前 국회의원, 김영철 울주군의회의장, 이병호 울산불교신도회장, 송호남 태고종 울산교구 신도회장, 권상록 정광사 신도회장, 이태로 전의이씨 회장, 이상용 용하석재 대표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점안식 2부 타종, 개회, 삼귀의례, 반야심경, 내빈소개, 감사패 전달, 경과보고, 주지스님 인사말, 격려사(울산불교종단연합회장 백양사 산옹 스님), 축사, 축원(대원 스님), 3부 불감 제막, 헌화, 헌무(태평무), 사진촬영, 폐회로 진행됐다. 3부에 이어 사물놀이, 떡매치기 및 공연도 진행됐다.

주지 대활 스님은 "어느날 새벽 꿈속에서 불감 조성을 하게 됐고, 그 것이 승려의 의미 있는 삶이라는 생각이 들어 조성하게 됐"며 "참고문헌 부재로 동분서주했다. 어려운 시기 불사에 동참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울산불교연합회회장 백양사 산옹 스님은 "내가 없는 너는 존재하지 않기에 더불어 한 법을 관하면 부처를 이룬다"며 "불감 탑 조성을 계기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찾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감사인사를 했다.

이병호 울산불교신도회장은 "순천 송광사 석조삼존여래불 불감 등이 있었지만, 자취를 감춘지 오래"라며 "울산에도 불감이 조성돼 기쁘게 생각한다. 불감 조성의 원력으로 정관암 신도들과 사부대중 가정에 건강과 가피가 함께하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다연기획과 함께 2023 불교카렌다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독판 달력 제작 상담 및 카다로그가 필요하신 사찰은 문의 바랍니다.



봉축 행사 용품 및 현수막 제작
각종 불교 용품 판매합니다.



달력 종류 : 벽걸이 특호 / 벽걸이 대 / 벽걸이 소 / 탁상 / 미니 차량 / 메모 수첩

도서출판 다연기획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4길 14 (조계사 옆) Tel. 02)723-4301 Fax. 02)723-4303 E-mail. lotus4301@daum.net 농협 053-12-162413 (남정숙)

日, 절에서 함께 울리는 염불과 찬송가

350년 전 그리스도교 인연 눈길
신도등록으로 천주교인들 보호
마지막까지 기독신앙 이어진 곳
"정기적인 교류로 역사 전할 것"

박영빈 객원기자


십자가를 중심으로 불교와 기독교의 내용을 담은 위령비. 사진출처=요미우리 신문

일본 동북부 이와테현(岩手縣県), 이치노세키시(一関市)에 소재한 쵸토쿠지(長徳寺). 최근 이 사찰 경내엔 독특한 위령비가 건립됐다. 십자가가 가운데 새겨진 위령비 앞에 스님들과 신부, 목사들이 모두 모여 각자 염불과 예배를 진행했다. 중세, 박해받던 천주교도들을 보호했던 쵸토쿠지의 은덕을 기리고 희생된 이들을 위령하기 위해 세워진 위령비에 대해 10월 5일, 일본의 '토호쿠 방송', '야후재팬 뉴스' 등이 특별 보도했다.

쵸토쿠지는 14세기 창건된 고찰로 오랫동안 지역 신앙의 중심이 되어온 사찰이다. 쵸토쿠지는 지난 9월 초 사찰 대중들의 발의로 지역 기독교 단체들과 함께 경내에 중세시기 극심한 박해 속에 끝내 순교하거나 관련자로 체포되어 목숨을 잃은 이들을 위령하는 비석을 건립했다. 비석은 검은 대리석으로 조성됐으며, 가운데 십자가를 중심으로 좌우에 '나무아미타불'의 육자명호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성경구절이 새겨졌다. 쵸토쿠지는 타종교의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비를 세우게 된 계기에 대해 "본 사찰은 350년 전부터 그리스도교와 인연이 있는 사찰"이라며 긴 역사에 대해서 설명했다.

쵸토쿠지의 주지 시부야 마사유키 스님은 "이곳 이와테현은 천주교가 나라로부터 박해를 받던 시절, 가장 마지막까지 교회가 남아 있던 지역"이라며 "끝내 신앙을 지킨 300여명의 신자들과 사제들이 순교한 처형장에 당시 쵸토쿠지의 주지였던 치톤(智頓)스님이 육자명호를 새긴 위령비를 세워 넋을 기린 것이 기독교와의 첫 인연이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스님은 "당시 나라에선 배교한 신자들의 이름과 거주지를 〈종문개장(宗門改帳)〉이라는 명부에 적어 사찰의 신도로서 감시, 관리하도록 위임했다"면서 "쵸토쿠지에도 많은 수의 배교자들이 신도로 등록됐다"며 이어지는 역사를 설명했다.

스님은 토호쿠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뜻밖의 증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시부야 스님은 "당시 쵸토쿠지의 신도로 등록된 배교자들 가운데는, 겉으로만 배교했을 뿐 실제로는 비밀리에 신앙을 지키던 교인들이 많았다. 사찰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묵인했다. 서류상으로 그들은 쵸토쿠지의 신도기에 절의 보증으로 처형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며 사찰이 박해받던 천주교인들을 보호한 사실을 밝혔다.

신도로 등록돼 살아남은 교인들의 후손들은 여전히 해당 사찰의 신도로 그대를 이어 오고 있으며, 일부는 종교의 자유와 함께 천주교로 복귀한 것으로 전했다. 선조가 교인이었다는 한 신도는 기념비를 앞에서 "지금에 와서는 슬픔을 이야기하기보다, 지금 이렇게 이어지고 있음을 전하고 싶다"며 위령비가 세워진 뜻을 되새겼다.

지역 교회사에 밝은 카와가미 나오야 목사는 "이 지역은 마지막까지 기독교 신앙이 지켜지던 곳으로, 당시 지역의 영주가문 역시 최대한 박해를 미루던 입장이었다. 또 당시 교인들의 경우 서양 선교사들의 교육을 받은 고급 인재였던 경우가 많아 서류상으로 배교로 등록하여 지역의 경제나 생산을 위해 실제 신앙은 묵인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쵸토쿠지와 지역 기독교 단체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교류를 진행하며 위령기도회를 비롯해 두 종교 간의 역사와 미래를 향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시부야 스님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는 것이 많다. 새로운 정보들이 튀어나오기도 한다"면서 "두 종교가 공존한 역사를 앞으로 더 찾아내어 후대에 전하겠다"며 앞으로도 사찰의 역사를 전하는 다양한 자료들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印 거물 정치인, 불교 개종행사 이끌어

델리지구 사회복지부 장관 라젠드라 팔 고탐 논란

10월5일, 불가촉천민 1만 명
스님에 계받고 불교로 개종


뉴델리에서 열린 대규모 불교 개종식을 이끄는 라젠드라 (사진중앙). 사진출처=인디안 투데이

인도 거물 정치인이 힌두교에서 불교로 개종하는 불가촉천민들의 개종식을 이끈 것으로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다. 10월 9일 인도 유력 일간지 '인디아 투데이'가 "델리지구 사회복지부 장관인 라젠드라 팔 고탐이 단상에 올라 개종식을 이끌었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개종식과 그 내용이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불이 붙고 있다.

지난 10월 5일 뉴델리 암베드카르 박사 기념공원에서 인도불교협회 주최로 대규모 불교 개종행사가 진행됐다. 불가촉천민이라 불리는 달리트(Dalit)계급들을 중심으로 약 1만 명의 힌두교도들이 스님들께 계를 받고, 힌두교를 거부하는 선언을 함으로써 불교로 개종했다. 행사에 대해서 인도 현지에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일었다. 행사가 진행되는 날이 힌두교 신을 기리는 축제일과 겹치는 것에서 노골적인 반 힌두 노선을 보인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번 행사에서 인도의 거물 정치인인 라젠드라 팔 고탐(Rajendra Pal Gautam)이 개종식을 이끈 영상과 사진이 SNS를 통해 공개 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라젠드라는 현재 인도 델리 연방 수도지구 사회복지부 장관이자 인도 최대 야당인 AAP소속 입법회 의원으로 2015년부터 활동하고 있다. 라젠드라는 정치인으로 활동하기 전에 이미 불교를 믿었으며, 불교활동가로 인도에서 활발한 행보를 보였던 것으로 전했다.

문제가 된 영상에서 라젠드라는 단상에서 스님들과 함께 힌두교를 거부하는 맹세문을 선창하며 개종식에 참석한 이들을 이끌었다. 맹세문에는 "더이상 힌두신들에 대한 믿음이 없으며, 그들을 숭배하지도 않을 것이다. 신의 화신이라고 하는 라마와 크리슈나를 믿지 않고 숭배하지 않는다"며 강력하게 힌두교를 거절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어진 연설에서 라젠드라는 "카스트가 타고 난 것이라면 왜 다른 나라에는 카스트가 없는가?"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 행사와 라젠드라의 연설을 계기로, 인도의 여당인 BJP 델리지부는 "라젠드라 연설은 노골적으로 반힌두교적이며, 종교간 반목을 일으켰다"며 모든 공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라젠드라와 AAP는 이를 거부하고 BJP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종교행사가 정치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태국 불교계, 총기 희생자 화장터 마련

학살 현장 인근 사찰 3곳
희생자 장례…유가족 위로


태국 북동부에 마련된 어른이집 총기난사 희생자 화장터 모습. 사진출처=모닝스타

태국 어린이집 총기난사 참사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태국 불교계가 희생된 어린이들을 위한 화장터를 마련했다.

태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북동부 농부아람푸주 나끌랑 지역에 위치한 랫 사마키 사원(the Rat Samakee temple) 스님들은 총기난사 희생자들을 위한 화장터를 마련했다. 해당 사찰은 어린이집에서 약 2마일(약 3.2km) 떨어졌다.

주지인 프라 크루 아디살 키자누왓(phra Kru Adisal Kijjanuwat) 스님은 "3일 간 장례 절차를 마치고 9월 11일 희생자 중 19명을 이곳에서 화장했다"며 "사찰에 있던 화장시설이 1곳뿐이어서, 여러 명을 함께 화장하는 만큼 피해 유가족들을 배려해 화장시설을 더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모두 함께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근 사원 두 곳에서도 19명 외 다른 희생자들을 위한 임시 화장시설을 설치했다.

다만 학살범의 경우 해당 사원들에서 화장을 거부해 다른 지역으로 옮겨져 화장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 6일 전직 경찰 빤야 캄랍(34)은 마약 소지 혐의로 해고된 후 나끌랑 지역 어린이집에 침입해 어린이와 교사들을 총과 칼로 살해했다. 이에 어린이 23명 등 35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해당 어린이집은 자신의 아들이 다니던 곳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3살 아들까지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편 태국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 2월에도 방콕 북동부 나콘랏차시마에서 군인이 지휘관 등을 총으로 쏘고 무기고에서 총기와 탄약을 탈취한 뒤 대형 쇼핑몰에서 총기를 난사해 27명이 사망하고 57명이 부상당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반다브가르 동굴, 불교 유적 아니다"

아쇼카대 나얀조트 라히리 교수 "힌두교 유적 가깝다"


인도 반다브가르 호랑이 보호구역. 사진출처=더힌두

인도 반다브가르 호랑이 보호구역(Bandhavgarh Tiger Reserve) 내 동굴이 불교 유적이 아닌 힌두교 유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인도 매체 더힌두의 10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아쇼카대학교는 최근 "아쇼카대 역사학 교수인 나얀조트 라히리의 조사에 따르면 해당 동굴은 불교 유적이 아니"라며 "그의 보고는 ASI보다 선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도고고학조사국(ASI)이 최근 마디아 프라데시 주(州)의 반다브가르 호랑이 보호구역 내 동굴은 2세기 조성된 불교 유물, 사원터는 8~9세기 조성된 힌두교 사원이라고 발표했다.

아쇼카대학 측은 "그 동굴들이 불교 공동체를 위해 만들어졌다면 불교적 성격을 지닌 기념탑과 조각 등이 있어야 한다"며 "인도 초기 조성된 암각화 사원들과 비교하면 이해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아쇼카대학 측은 또 인도의 고고학자 N.P. 차크라바르티(N.P. Chakravarti, 1983~1956)가 해당 동굴에 대한 조사 보고서에서 "기원전 2세기에 이 지역에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주거지"라고 기록한 점에 주목했다. 아울러 "동굴이 생성 당시부터 종교적 용도로 형성된 것은 아니라고 추정된다. 8세기 칼라츄리 왕조 당시 종교적 용도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이어 "시바신을 모시는 사원이 동굴 인근 고원의 꼭대기와 아래 언덕 경사면, 평지 등에 건설돼 있다"며 "비슷한 시기에 동굴도 사이바신전으로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ASI는 우리가 이미 지난해 3월부터 해당 동굴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며 "그들은 우리에게 조사 협조 요청이 오기도 했었다"라고 주장했다.

2022년도 하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신규지원 신청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승려복지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2022년도 하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신규지원 신청을 공고합니다.

신청자격
1.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으로 매 안거 결계신고를 필하고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스님
2.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지역가입자에 한함)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

※ 단, 종단 미등록 사찰·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스님은 지원하지 아니함

신청서류
1.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조계종 홈페이지 '공지사항' 양식다운)
2.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발급방법)
   1)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 방문 발급
   2)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발급
   3) 국민연금관리공단 콜센터(1355) 전화 신청 후 팩스 발급 요청
   4) 모바일앱(Play스토어) 〈내곁에 국민연금〉 설치 → 로그인(간편인증)
      → 우측상단 증명발급 선택 → 연금산정용가입내역서 선택
      → 화면 맨 하단 팩스발급 선택 → 팩스번호 입력 후 확인 선택
      → 요청하신 팩스번호로 발급 완료
3.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4. 주민등록등본

지 원 금
1인당 월 36,000원(정액)이며, 현재 36,000원 미만 가입하고 계신 스님은 납부하신 금액으로 지원됨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22년 10월 1일(토) ~ 10월 31일(월)**까지 승적상 재적 교구본사로 접수
2. 신청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접수
3. 지원절차 : 재적 교구본사 서류 접수 → 승려복지회 서류 이관 → 서류심사 및 지원 결정 → 지원금 입금(12월말 입금 예정)

보험료 지원중지 대상자
1. 매년 3월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미제출된 스님
   ※ 신규 지원신청하신 분들은 차기년도부터 해당되며, 기지원자 스님은 보험료 납부종료시까지 매년 3월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하셔야 지원 혜택이 가능함
2.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미납된 스님
3. 2020년도 분한신고 및 전 결계 미등재된 스님
4.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변경된 스님
5.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종료된 스님
6. 보험료 미납하신 스님
7. 군 복무 중인 스님
8. 기타

※ 위 항목에 해당되시는 스님은 지원이 불가하오니 중도에 변동사항 발생 시 꼭 승려복지회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 의 처
1. 문의처 : **02-2011-1980~1, 1726~7**
2. 기 타 : 세부사항 및 관련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게재

불기2566(2022)년 9월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장 **삼 혜**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12~10/18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6	조론역주(선어록총서5)	승조/감산 역주	운주사
2	천천히가리숨쉬며그리고웃으며:틱낫한그가남기고간참된깨달음의노래	틱낫한/라샤니 레아 그림	담앤북스	7	주경야선:가행정진으로재가자도성불할수있다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3	관(명상을통해얻어지는자유)	수자타/하숙희	불일출판사	8	디가니까야(2)길게설하신경	각묵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4	딱돌해설서:바르도에서닦지않고해탈하는법	중암선해 역저	금빛소리	9	요가니드라	사라스와띠 지음	한국요가출판사
5	성자와범부가함께읽는금강경	김원수 지음	청우당	10	불교도는어떻게살아야하는가:초기경전에나타난붓다의가르침	마성	민족사

책세상

'한글 뜻그림' 완성…보고 느끼고 나누는 글씨와 그림



화가의 한글사랑
이호신 글 글씨 그림
뜨란 펴냄/2만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2010년 지리산 자락 경남 산청 남사마을로 낙향해 우리나라의 자연과 문화 현장을 꾸준히 화판에 옮긴 생활 산수화를 발표해온 이호신 화백. 그가 이번에는 오랜 세월 연구한 한글서예 이미지화 작업인 '한글 뜻그림'을 한 데 모은 책 〈화가의 한글사랑〉을 출간했다. 책에 나와 있는 '한글 뜻그림'이란 화가의 시각에서 한글서예를 표현한 '그림이면서 서예이고, 서예이면서 그림'인 새로운 예술양식이다.

이는 한글이 지닌 조형성과 문장을 아름다운 시각예술로 표현한 것인데, 한글에 담긴 내용을 이미지로 극대화하고 시각적 공감을 자아내는 작업이다. '한글 뜻그림'은 이호신 화백의 화가적 감성과 모국어에 대한 인문학적 사랑서 기인한다. 이 화백은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30여년간 한글을 '무명을 밝히는 세상의 빛'으로 규정한 뒤 표음문자인 한글로 언어가 함축한 뜻을 표현하는 방법에 천착한 결과 마침내 한글의 우수성을 아름다운 조형 언어로 드러낸 '한글 뜻그림'을 창안했다. 그리고 이번 책은 그 모든 작업의 결실을 응축해 담아냈다. 이 작업은 우리 선조들의 언어표현이던 문장(시), 글씨(서), 그림(화)과 민화 문자도(文字圖)의 재발견인 셈이다. 기존의 한글서예나 문인화, 시화와는 또 다른 조형 방법으로서 작가는 스스로 '한글 뜻그림'으로 명명했다. 이호신 화백의 '한글 뜻그림'은 문자와 회화가 조화를 이루어 시각적 공감을 자아낸다.

그는 자연과 생활 속에서 얻은 통찰을 '한글 뜻그림'에 담아 한글 창제의 본질인 사랑과 나눔 정신을 실천한다. 또한 글의 내용에 따라 글씨체에 변화를 주거나 구성을 달리하고, 주제에 맞는 상징성과 이미지를 회화적으로 다채롭게 표현하는가 하면, 이미지 극대화를 위해 화면 구도는 종종 틀을 깨는 파격을 추구한다. 여기에 먹과 붓은 물론 화려한 색감과 크레용, 탁본 기법 등을 활용해 끝없이 일탈한다. 그래서 보는 이로 하여금 글자를 의미 그 자체로 해석하고 받아들여 공감하게 만든다. 한마디로 이호신 화백의 '한글 뜻그림'은 보고 느끼고 나누는 글씨와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호신 화백의 '한글 뜻그림'은 일면 글자에서 그림으로 회귀하는 작업이다. 글자를 넘어 필획 자체가 그림이 돼 글자가 그림의 정체로 각인된다. 예를 들어, 〈불〉은 얼핏 검은 색 글자 '불'과 그 바탕에 붉은 불이 오버랩 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검은 색 '불' 자는 이미 그림이 되어 검은 불꽃과 붉은 그림자 불꽃이 더불어 활활 타오르는 느낌이다. 얼핏 보면 글자 속에 그림이 꿈틀대는 것 같다. 이호신 화백의 〈불〉은 그림 속에 글씨가 있고, 글씨 속에 그림이 있는 대표적인 한글 뜻그림이다. 〈한 잔 술 두 잔 술〉 역시 더 이상 글자와 그림의 구분이 무색하다. 술이라는 문자의 구조가 한글 서예의 필획으로 치환돼 있다. 한편 자작시구 또한 술의 문자구조와 같이 가로와 세로로 배치해 단순한 시가 아니라 그림의 일부로 녹아들게 만들었다. 〈물처럼 바람처럼〉은 가로로 긴 한지를 선택해 물길과 바람의 여백을 마련하고 글씨를 흘려 쓴 다음 물결의 푸른색과 날리는 낙엽을 그려 넣었다. 내용이 지닌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시각적 공감을 자아내게 한 것이다. 이처럼 이호신 화백의 '한글 뜻그림'은 눈과 귀의 언어가 교차되는 지점, 즉 시청각이 하나되는 지점에서 포착할 때 더 풍성하게 다가오고 제대로 해독된다. 그림이 글씨이고, 글씨가 그림이 되는 경지, 곧 시서화가 일체를 이룬다. 그러나 전통의 답습으로서 문인화 내지는 시서화가 아니다. 말을 기록하고 전달하는 수단으로서의 문자 이전에 글씨에 담긴 내용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 이는 작가의 심상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이호신 화백의 '한글 뜻그림'은 그림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작품 〈불〉은 문자를 가지고 '불이야!' 하고 소리를 내지르듯 그리고 있다. 〈산다는 것은 꽃 소식을 듣는 일〉은 매화가 개화하는 순간을 귀로 먼저 보게 하며, 〈아름다움이란 자연스러운 것〉 역시 '콸콸콸' 흐르는 지리산 계곡물의 푸른 소리를 그린다. 〈물소리에 귀 씻고〉는 폭포수가 용솟음치는 듯하다.

한편, 무심한 일곱 줄기 필획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는 〈깊은 강물은 소리가 없네〉와 〈풍경소리〉 〈강물〉 등에서 이호신 화백의 붓질은 시공의 적막을 넘나든다.

이호신 화백은 문자와 그림 이전에 재료가 가진 본래적 물성, 즉 한지의 성분과 물감의 색에 천착한다. 이 연구를 통해 인조색과 자연색을 넘나들며 먹과 색의 놀라운 조화를 이뤄낸다.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색으로 하나 되는 생명의 빛을 구현한다.

〈꽃〉은 붉은 노랑의 천지이고, 〈꽃에 취한 얼굴〉은 온통 홍색의 바다이다. 〈날개〉가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라면, 〈바람이 솔솔, 낙엽이 분분〉은 새 생명을 잉태한 검은 나무의 갈색노래다. 이호신 화백은 오래전부터 전통한지를 사용해 왔다. 우리 한지는 질기기로 수명이 1000년을 가는 우수한 문화유산이다. 그는 이 한지를 그냥 쓰지 않고 여러 가지 염료로 염색해 바탕지로 보관해두었다가 '한글 뜻그림'을 제작할 때 내용에 맞는 빛깔의 한지를 꺼내 사용한다. 한글 내용과 그림 이미지를 구상하고 나서 붓을 들기도 하고, 반대로 염색된 바탕지에 이미지를 구현하고 난 다음 글씨를 쓰기도 한다.

이에 대해 저자는 "편선지에 물들인 오색 한지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고, 좋아도 새롭게 시도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편지 한 장을 정성껏 육필로 쓰지 않고 사물에 대한 관찰과 애정이 없이 새로운 발상이 나올 수 없다. … 조각가의 경우 좋은 재료(나무 철 등)를 우선 찾는 것이 필수요, 그림의 경우는 채색과 용구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바, 서예가는 너무 단순하고 안일한 재료 선택에서 깨어나야 할 것이다. 재료의 변화를 통해 내용과 실험의 기대가 반증되고 창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135x58.5cm, 한지에 수묵채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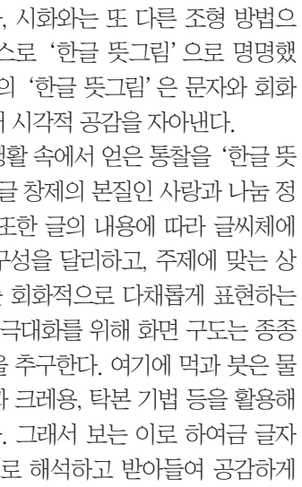
31x56.5cm, 한지에 수묵채색.

자연과 생활 속에서 얻은 통찰 한글 뜻 그림에 담아
한글 창제 본질인 사랑과 나눔 정신 실천 30년 결실
눈으로 보는 그림서 귀로듣는 음악, 침묵까지 형상화
글자와 그림, 사람과 자연이 색으로 하나된 물아일체

▲작가 **이호신**은?

1957년생. 동국대 교육대학원서 미술을 전공했다. 화가 이호신(아호: 현석, 검돌, 검은돌)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상생하는 세계, 그 아름다운 시공간을 재발견하는 동시에 진정한 삶의 본질을 일깨워주는 그림과 글을 꾸준히 발표해왔다. 그의 붓길은 오랫동안 소중한 문화유산과 자연생태를 탐사해왔다. 그중에서도 수년 전부터 우리 산하에 흩어져 있는 정겨운 마을과 그리운 사람들의 품속 깊이 스며들어가 마음의 눈으로 그려낸 그림들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리가 잃어버린 삶의 진원지를 돌아보고 혼란스러운 정체성을 정립하게 만드는 미적 성찰이 마을 연작들 곳곳에 자연스레 녹아 있는 까닭이다. 겸허한 열정과 자유로운 실험정신을 함께 지닌 이호신은 지금까지 20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그의 주요 작품들은 국립현대미술관, 영국 대영박물관,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주 탄자니아 한국대사관 등 여러 곳에 소장되어 있다. 2017년 정부로부터 문화포장을 수훈했다. 저서로는 〈지리산둘레길 그림 편지〉(공저) 〈화가의 시골편지〉 〈지리산진경〉 〈가람진경〉 〈근원의 땅, 원주 그림순례〉 〈남사예담촌〉 〈그리운 이웃은 마을에 산다〉 〈나는 인도를 보았는가〉 〈길에서 쓴 그림일기〉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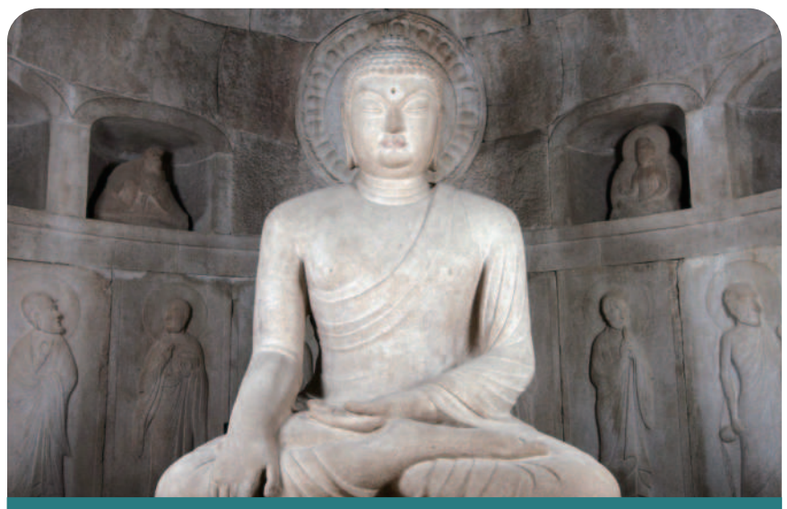
중국불교의 교과서이자 필독서!
승조의 『조론』과 감산덕청의 『조론 약주』 완역!



조론 역주

진정한 중국불교의 문을 연 위대한 승려 승조의 『조론』과 명나라 고승 감산의 주해, 이 두 저서에 대한 철저하고 정확한 번역과 상세한 주로 그 정수를 드러내보인다.

승조 지음/감산 약주/덕우 강승욱 역주/신국판/760쪽/값 38,000원



진리의 말씀! 붓다의 지혜!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순수한 형태로 남아 있는 경전!

담마빠다

시대와 종교를 뛰어넘어 곁에 두고 읽으며 되새기면 '삶의 지남'이 되고 '인생의 지혜'를 일깨우는 내용들이 가득하다.

화령 역주/국판/192쪽/값 14,000원



보리심을 일깨우는
대승 수행의 지침서!
게송으로 이루어진
입보리행론을
현대적 언어로 풀어쓰다

산티데바와 함께 읽는 입보리행론

대승불교의 핵심인 보리심과 공성의 가르침과 수행법을 간명한 게송으로 전하는, 티베트불교에서 종파를 초월하여 모든 수행자들이 반드시 배우고 수행하는 논서!

산티데바 원저/하도겸 편역/국판/240쪽/값 15,8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출토 유물로 되살아난 사찰역사

월정사성보박물관 특별전
'출토유물로 되살린 강원지역 사찰의 역사'
월정사성보박물관 10월 7일~12월 31일

월정사 등 강원 남부지역 6개 사찰 관련
발굴조사 출토 유물 · 자료 100여 점 전시
흥녕선원지서 발굴 금동반가사유상 관심






① 흥녕선원지 출토 금동반가사유상 ② 월정사출토 양녕,효령대군명 암막새(1446년) ③ 월정사 출토 소조불좌상(10세기말~11세기) ④정암사 출토 '교율정암강(敎律淨巖講)' 명 명문와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월정사성보박물관(관장 해운)은 10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2층 기획실에서 특별전 '출토유물로 되살린 강원지역 사찰의 역사'를 개최한다. 2022년 박물관 문화관광 지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오대산 월정사를 비롯하여 영감사 오대산사고지, 영월 법흥사 흥녕선원지, 보덕사, 정선 정암사, 강릉 보현사 등 강원도 남부지역 6개 사찰을 소개하며 그동안 정밀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물과 자료 100여 점을 선보인다.

전시에서는 삼국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각 사찰의 역사를 알려주는 여러 명문 기와와 연꽃, 용, 봉황 문양으로 장식한 다양한 막새기와, 당시 사찰에서 쓰였던 도자기편과 금속유물 등이 전시된다.

특히 2017년 영월 법흥사 흥녕선원지 발굴조사 때 출토된 금동반가사유상은 크게 주목받는 유물이다. 높이 15cm, 폭 5cm 크기의 소형으로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 위에 올리고 오른손을 뺨에 살짝 댄 채 명상에 잠긴 모습으로, 삼국시대(7세기)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반가사유상의 모습이다. 국내에서 출처를 알 수 있는 최초의 사례이며 작지만 조형적으로 자연스러운 표현과 높은 완성도를 갖춘 수작으로서 삼국시대 불교문화의 위상을 확인해볼 수 있다.

흥녕선원(興寧禪院)은 자장율사가 세웠다고 전해지며, 선종 구산선문 가운데 하나인 사자산문파의 본거지로, 통일 신라 시대 징효대사(826~900)에 의해 크게 번창한 사찰이다. 흥녕사는 891년 소실된 후 943년 중창했으나 계속되는 전란으로 사세가 기울어 오랜 시간 명맥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02년부터 진행된 발굴조사는 통일신라부터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유구한 역사를 알려주고 있다. 현재는 5대 적멸보궁 중의 하나인 법흥사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법흥사에는 징효대사 탑비(보물 제612호)와 부도 등이 남아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643년 자장 율사가 창건한 이래 문수성지로서 오랜 시간 번창했던 오대산 월정사의 역사를 밝혀주는 여러 명문 기와를 만나볼 수 있다. 그 중 '양녕 · 효령대군' 명 암막새는 1446년 월정사 중건 당시 세자인 양녕대군과 효령대군이 참여했음을 알려주며 조선 왕실과 오대산 월정사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유물이다.

월정사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사찰의 위상을 확립하고, 동국대학교 건립을 주도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해왔다. 한국전쟁 당시 오대산 암자들이 전소될 때 월정사 역시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럼에도 화엄학의 대가이며 불교경전은 물론 동양사상 전반을 아우른 탄허 스님이 주석하면서 사격을 회복했다. 현재 월정사는 명상마을과 성보박물관 등을 전통사찰의 영역 밖에 새롭게 조성하면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승화시킨 주역으로 기억되고 있다.

강릉 보현사에서 출토된 금동제 풍탁 역시 주목할 만한 유물이다. 풍탁은 사찰의 처마 끝에 매다는 작은 종으로, 풍경 또는 풍령이라고 불리며 삼국시대 불교의 수용과 함께 전래한 것으로 추정한다. 10세기경 제작된 보현사 풍탁은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여 고려 초기 금속공예의 아름다움과 보현사의 역사를 잘 보여주는 유물이다.

보현사는 보현보살이 창건했다는 설화가 전하는 사찰이다. 650년(진덕여왕 4년)에 자장 율사에 의해 창건됐다. 889년 낭원대사에 의해 지장선원이란 이름으로 중창되면서 크게 번창했다. 낭원대사는 사굴산문의 개산조인 범일 국사의 법맥을 이었다.

보현사에는 대웅보전(강원도 문화재자료 제 37호), 삼성각, 영산전이 전해오고 있으며 대웅보전 내에 모셔진 아미타삼존불상은 조선후기에 조성된 원만상으로 불자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친근한 상을 갖추고 있어서 많은 참배객이 이어지고 있다. 소장 문화재로는 940년에 세워진 낭원대사탑(보물 제191호), 낭원대사탑비(보물 제192호), 목조보살좌상(보현보살 ·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보현사 십육나한도(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71호), 보현사 대웅보전(강원도 유형문화재), 보현사 소조보살좌상(강원도 문화재자료), 보현사 부도군(강원도 문화재자료) 등이 있다.

월정사성보박물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전란과 화재 등으로 소실되어 잊힌 사찰의 역사를 확인해보고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살펴보면서 생생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시의 취지를 밝혔다.

남종현 '천천히 아주 천천히 겨울 연' 展
〈蓮〉


남종현 作 겨울연

조계사 경내 10월 18~27일
모노톤의 겨울 연 사진 15점

사진작가 남종현이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겨울 연(蓮)' 展을 개최한다. 남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의 에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에 게재했던 겨울 연 사진 15점을 국화축제가 열리고 있는 조계사 앞마당에서 선보인다. 이번에 선보이는 연은 겨울을 배경으로 한 모노톤의 연이다.

남 작가의 겨울 연 작품은 우리 전통 한지에 사진을 인화해 연의 소박하면서도 담백한 아름다움을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마치 한 폭의 동양화처럼 보인다. 오랫동안 광고사진을 찍어왔던 남 작가는 생산하는 사진이 아닌 기록하고 새기는 사진으로 돌아가고자 광고사진 작업을 접고 새로운 소재와 주제를 찾아 나섰다. 그리고 그가 만난 새로운 주제는 눈과 연꽃이었다. 카메라를 통해 동양화를 그린 듯한 느낌을 주는 그의 작품은 오랜 여운을 남긴다. 남 작가는 여백을 통해 비우는 것과 채우는 것을 동시에 표현한다. 빈 공간에 가득 찬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사물이 아니라 주변의 빈 공간을 찍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의 작업은 피사체마다 다른 인화지와 다른 인화방식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사진과 그림의 경계를 오가는 남 작가의 작품이 주는 느낌을 화면으로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남 작가는 연 작품을 조계사에 보시해 판매 수익금 일체를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 기금으로 보시한다. 문의 010-2684-6041.

박재완 기자

제 8회 돌샘 작품전


하경진 作, 석가모니 후불탱 140X158 면본석채

불화장 석정물모 10주기 맞아
경주 황룡원 10월 21 ~ 30일

불화장 석정 스님의 맥을 잇고 있는 돌샘이 석정 스님 10주기를 맞아 작품전을 연다. 10월 22일부터 30일까지 경주 황룡원 중도타워에서 개최되는 '돌샘 제8회 작품전'이다. 국가무형문화재 불화장 전승교육사 하경진의 공개시연도 함께 열리는 이번 작품전은 하경진(전승교육사), 강다은 등 24명의 돌샘 회원들이 참여해 작품 20여 점을 선보인다.

불교가 이 땅에 들어온 이래로 수많은 불모들이 우리만의 전통 불화를 발전시켜왔다. 그리고 고려시대의 불화는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그 시대에 걸 맞는 불화로 조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과정에는 의겸, 금호, 보응, 일섭, 석정 등 불모들의 신심과 원력으로 그 맥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2009년 창립전을 열었던 돌샘은 이번 전시에서 그 동안 불화장 이수자와 전수생이 함께 어울려 붓끝 하나하나에 열정을 모아 그려온 작품들을 선보인다.

돌샘은 석정 불모가 우리 불화의 전통을 물려주기 위해 지어준 이름으로, 돌샘의 회원들은 계고창신(繼古創新)을 좌우명으로 불화전수회관 담향산방에서 이 시대에 맞는 불화 전승발전을 위해 정진하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118호 불화장(佛畵匠) 기능보유자 석정 스님은 1928년 강원도 고성군 신북(외금강)면에서 출생해 1940년 순천 송광사에서 친아버지이자 효봉 스님의 은사인 석두(石頭)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같은 해 불모 일섭 스님으로부터 불화를 사사하고 그 다음해 인가를 받았다.

박재완 기자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붓다 전기, 어떻게 변화돼 왔을까

동국대 WISE캠 불교사회문화硏 추계학술대회

붓다 전기 연구 4번째 시리즈
동아시아 구법승 유행록 통해
전륜성왕 인식 변천 조명 눈길
붓다관 변화 살핀 논문들 발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사회문화연구원은 10월 6~7일 양일간 교내 원효관 4층 글로벌에이스홀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삶을 기록해 전해지는 '붓다 전기(佛傳)'가 시대와 지역을 거치며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피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사회문화연구원(원장 석길암)은 10월 6~7일 양일간 교내 원효관 4층 글로벌에이스홀에서 '불교의 전파경로와 붓다 전기의 변용 양상-붓다 전기의 한국적 형성화 과정의 전 이해Ⅳ'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붓다 전기 변용을 주제로 열리는 네 번째 학술행사인 이번 대회에서는 지역, 시대를 거치며 나타난 붓다 전기의 변화 양상을 조명하는 논문들이 발표됐다.

한지연 동국대 WISE캠퍼스 교수는 '구법승의 유행록(遊行錄)을 통해 본 동아시아인의 붓다관과 전륜성왕에 대한 인식의 흐름 양상'에서 기존 전생고사와 대승불교의 관계성이 전파된 지역에서 변화하는 양상을 고찰하고 동아시아의 전륜성왕 사상 및 실천이 본격화되는 배경을 붓다 전생의 보시행과 연결해 눈길을 끌었다.

한 교수는 "붓다 입멸 후 인격체로서의 붓다보다는 대승불교의 교학체계와 더불어 신격화된 붓다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이때 전생고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대승불교의 보시바라밀은 신격화된 붓다와 보살이 지녀할 덕목으로 전환되는데 그 근거가 바로 전생고사"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 교수는 양 무제와 동일선상에서 북위 호태후의 전륜성왕을 지향하는 실천행이 존재했고, 동시에 국가불교화의 대표 주자인 북위 불교교단에서 대승불교 전통을 계승하는 움직임이 있었음을 밝혔다.

'보살계관의 변용에 관한 고찰'을 발표한 법장 스님(동국대 WISE캠퍼스)은 동아시아 대승불교의 보살계를 유가계와 범망계로 구분해 양자 간에 나타난 영향관계와 상이점을 파악했다. 보살계의 특징 중의 하나인 호상(好相)의 견불체험에 나타난 불타관을 확인하고 전계(傳戒) 주체의 변화와 그에 따른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래된 보살계관의 변용을 고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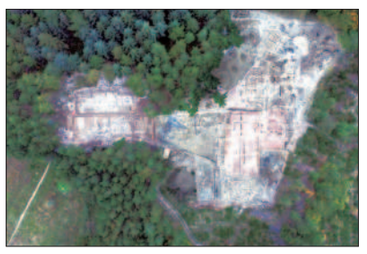
정천 스님(동국대 WISE캠퍼스)은 '신라왕의 봉불과 본생설화와의 연관에 관한 연구'를 통해 신라의 왕이 불교를 수용하고 불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부처님의 본생설화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폈다. 정천 스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생담은 불교를 믿고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불을 위한 바라밀행이 무엇인지 제시해주고, 사회의 윤리적 기준을 마련했다"면서 "보살의 마음가짐과 서원 · 바라밀행은 신라왕들의 봉불행위에 큰 영감을 주었으며, 백성들의 신앙과 도덕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일본에서의 붓다관의 변용: 붓다에서 종조로'를 발표한 이석환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일본에서 붓다에 관한 관념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일본불교의 특징인 종파불교를 통해 살폈으며, 김경의 동국대 WISE 캠퍼스 교수는 '남종선 시기 붓다 이해의 다양성'에서 신수와 혜능, 신화 등 남종선 시기 선사들의 다양한 붓다관을 고찰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학술대회에 대해 석길암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사회문화연구원장은 "불교가 전파되면서 시대와 지역에 따라 일어나는 변화들을 '붓다전기'의 변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불교사회문화연구원은 불교의 문화적 전통의 계승 및 재해석을 통한 불교의 사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라 승관사찰 흥전리사지 '사적' 지정

문화재청 10월 6일 지정예고
발굴서 국통 등 비편 출토돼
당시 위세 높은 巨刹로 추정
"불교 · 건축사 중요 유적지"


사적으로 지정예고된 삼척 흥전리사지 발굴 유구 전경.

삼척 지역을 대표하는 산지 가람이자 신라 승관사찰로 추정되는 흥전리사지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10월 6일 관고를 통해 "삼척 흥전리사지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흥전리사지는 2014년부터 7년 동안의 발굴 조사를 통해 대규모의 산지가람임이 밝혀졌다. 절터에서는 '국통(國統)' '화상(和尙)' 명 비편 등이 출토됐으며, '범웅관아지인(梵雄官衙之印)'이 새겨진 청동인장이 처음 출토돼 문헌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던 승단조직의 실체가 증명됐다.

2020년에는 국립춘천박물관이 비편 접합 조사를 통해 탑비의 주인공이 귀족 출신 김씨 성을 가진 스님임이 확인됐다.

사적 지정예고에 대해 문화재청은 "삼척 흥전리사지는 발굴조사 결과 당시 상당한 위세를 확인할 수 있는 '국통' 명 · '대장경' 명 등 비편과 완벽한 형태의 청동정병, 인주까지 포함된 인주함과 청동관인, 금동투조 장식판 등 통일신라시대 유물이 출토됐다"면서 "출토 유구와 유물을 통해 문헌에서만 확인되는 신라 승관제도를 실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척 흥전리사지는 통일신라 및 고려시대 불교사, 미술사, 건축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유적지로서, 사적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보존 · 관리할 필요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에 지정 예고한 '삼척 흥전리사지'를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여수 향일암 일원, '명승' 지정된다

문화재청 10월 13일 지정예고…"경관적 가치 높아"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어 경관적 가치가 높은 자연유산인 '여수 금오산 향일암 일원'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10월 13일 밝혔다.

'여수 금오산 향일암 일원'은 남해 수평선 위로 솟아오르는 아름다운 해돋이 경관과 하늘과 맞닿은 봉황산(금오산의 모산)의 지평선, 여수만 건너 남해 금산 등 수려한 해상경관을 볼 수 있는 최적의 자연 조망지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실제, 거북이(금오산 지형)가 경전(향일암)을 등에 짊어지고 남해 용궁으로 들어가는 지형적 형상과 거북이 등껍질 무늬의 암석들, 해탈문 등 석문(石門) 그리고 기암절벽 사이의 울창한 동백나무숲이 서로 조화를 이뤄 그 자체 경관도 빼어나다.

우리나라 주요 관음기도도량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향일암은 원효 스님이 창건 · 수도하던 중 관세음보살을 친견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사찰로, 도서지역 불교문화를 살필 수 있는 좋은 사례이기도 하다. 문화재청은 '여수 금오산 향일암 일원'에 대해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예고된 여수 향일암 대웅보전 전경.

韓불교사학회, 상주지역 고녕가야국 유적 조명

한국불교사학회(회장 고영섭)는 10월 22일 오후 1시 상주문화회관에서 '경북 상주 함창 고녕가야 권역의 유적과 유물의 재검토'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문경 봉천사 주지 지정 스님의 '임나와 가라의 정체와 성격' 기조발제로 시작하는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상주 지역 고녕가야국을 조명하는 논문들이 발표된다.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가 '경북 상주의 고대국가 사량벌국과 고녕가야국의 역사 인물과 유적 유물'을, 이용현 경북대 인문학술원 HK 연구교수기 '경북 상주 사벌국과 고녕가야국 유민의 영덕 사도성 이주 시말'을, 박달석 세종문화재연구원 부장이 '경북 상주 사벌국의 이부곡토성과 병풍산성'을, 이진혁 상주박물관 학예연구사가 '대구박물관 소장 고녕가야의 유적과 유물'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훈민정음, 불교 도움 있어 완성"

통도사, 10월 7일 학술대회
훈민정음 창제 新관점 조명
종정예하 "묻힌 역사 발굴을"



"정의공주와 신미 대사는 새로 만든 문자를 '언문자모'와 불교이론으로 새롭게 정비해서 우리말을 표기하기 시작했다. 신미 대사와 불자들은 고대 인도의 조음음성학의 이론으로 새 문자를 해설하고 우리말 표기에 적합하도록 정비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가 10월 7일 경내 해장보각에서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주제로 특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사진〉

한글날 제576돌을 맞아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조명하는 첫 학술대회로 의미를 더했다.

학술대회는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의 기조연설로 시작을 알렸다. 성파 대종사는 기조연설에서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발표하기까지 많은 억압이 있었다. 세계에서 인정받는 한글이 억압받고 묻혀 있던 역사를 밝히는 것이 이 시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기조연설 이후에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정광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는 '새로운 시각으로 본 훈민정음 제정의 경위-세종의 새 문자 제정에 참여한 인물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 명예교수는 "세종은 우리말을 완성해 표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꿈꿨으며 신미 대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말을 표기했고 비로소 언문이라는 이름이 생겼다"며 "신미 대사는 범어(梵語)와 실담(悉曇)에 능통했고 고대인도의 범자와 성명기론을 새 문자 제정에 원용하여 문자 체계를 정비했다"고 말했다. 특히 정 명예교수는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불경을 새긴 '옥책(玉冊)'을 공개해 눈길을 모았다.

이어 김무봉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는 '훈민정음 창제와 한글 불전 간행의 의의'를, 임근동 한국외대 대학원 고전언어문화학과 교수는 '고려대장경의 실담문자-유가금강정경석자모품의 음운을 중심으로'를, 오윤희 운허기념사업회 언해불전연구소장은 '언해불전, 번역과 해석의 이론적 근거'를 각각 발표했다.

종합토론에는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 문광 스님, 김기종 전북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최종판 한국외대 인도어과 교수, 이계황 前 인하대 일본언어문화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이도경 부산지사장



법인등록번호 284121-0003832

(사)해동불교 약사종

약사신앙으로 한국불교를 중흥시킬 구도자를 찾습니다.

1. 약사경을 소의 경전으로 종단 운영에 관심이 있으신 분
2. 약사신앙을 연구하며 공부하고자 하는 분
3. 약사여래 부처님을 모시고 계시는 분
4. 현시대에 약사신앙의 필연성을 인식하시는 분
5. 종단에 소속되어 보호받고자 하시는 분

현시대에 걸맞은 약사기도 수련법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사) 해동불교약사종 총무원장 원담 일광

종무소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잠곡로 16-1 전화 031)585-8064 팩스 031)584-8063
총무원장 010-8228-7908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86

▶ 87회 예고
우빠굽따는 아쇼까왕에게 바라나시 근교의 추나르 사암 채석장을 말한다. 이때부터 칙령이 새겨진 추나르 사암 석주는 전국으로 퍼진다. 또한 우빠굽따는 아쇼까왕에게 석주에 얹히는 사자, 말, 코끼리, 법륜 등의 뜻을 설한다.



목갈리뿟다띳사, 아쇼까라마를 떠나다

보드가야 순례에서 돌아온 아쇼까왕은 한동안 붓다가 위없는 깨달음을 이룬 그 자리의 삡팔라 나무를 잊지 못했다. 과거의 왕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몹시 흡족해했다. 할아버지 짠드라굽따왕이나 아버지 빈두사라왕은 순례보다는 사냥이나 오락을 즐기기 위해 왕궁을 나섰던 것이다. 아쇼까왕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앞으로 나는 순례하는 동안 담마의 실천자로서 사문이나 브라흐민들을 만나면 보시를 하리라. 늙은이나 가난한 자들에게도 보시를 하리라. 백성들을 만나면 담마를 알리고 담마의 근본을 얘기하리라. 나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될 테니까. 어떤 즐거움도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으리.'

그런데 그때 마힌다가 아쇼까왕 집무실로 들어왔다.

"장로여, 무슨 일이오?"

마힌다는 출가한 뒤 3년 동안 목갈리뿟다띳사에게 경, 율, 론 삼장을 배워 장로의 지위에 올라 있었다.

"대왕님이시여, 목갈리뿟다띳사 장로님께서 꾸띠를 청소하고 계십니다. 아쇼까라마를 떠나시겠다고 합니다. 저에게 아쇼까라마를 맡으라고 하시지만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우빠굽따 장로가 와 있기 때문이오?"

"그건 아닙니다. 두 분은 사이가 아주 좋으십니다."

"내가 순례하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오?"

"이전부터 있었지만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마힌다는 아쇼까라마 내부사정을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목갈리뿟다띳사가 책임을 지고 떠나려는 마당에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은 이교도들의 잘못된 행태를 묵인하는 행위라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대왕님이시여, 6만 명이 머물고 있는 아쇼까라마에는 불교 사문보다 이교도들이 더 많습니다."

"얼마나 많소?"

"이교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장로님들이 관용을 베풀어 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교도들이 사문에게 예의를 지켰지만 지금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마힌다의 보고는 사실이었다. 왕족과 브라흐민들이 불교로 귀의하여 많은 이익과 명성을 누리자, 이교도들의 설 자리는 차츰 없어졌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아쇼까라마로 오지 않을 수 없었다. 아쇼까라마에서 공양은 물론 의복을 제공하고 병들었을 때 치료까지 해주었으므로 그들에게는 지상낙원이나 다름없었다. 그들은 아쇼까라마에서 주는 노란 가사를 입고 사문 행세를 하면서 붓다의 가르침을 헐뜯기까지 했다. 아쇼까왕이 마힌다에게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오?"

"우뽀사타 법회에 성스럽고 지혜로운 장로들이 참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뽀사타(Uposatha)란 포살법회를 뜻했다. 매월 1회 출가자와 재가자들이 참여하는 참회법회로 계율을 외우거나 장로의 설법을 듣는 전통 불교의식이었다.

"이교도들이 우뽀사타 법회에 참석하여 법회를 방해하는 언동을 일삼아 왔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이오?"

"빠와라나 법회에 장로들이 참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빠와라나(Pavarana)란 자자법회를 뜻했다. 수행자들이 우안거가 끝나는 날에 우안거 기간 동안 저지른 잘못을 서로 지적하고 참회하는 의식이었다.

"빠와라나 법회 때도 이교도들이 참석하여 계율을 훼손하는 언동을 해왔습니다."

아쇼까왕은 크게 실망하여 얼굴빛이 어두워졌다.

"그동안에 목갈리뿟다띳사 장로는 무엇을 했다는 말이오? 수석장로라면 아쇼까라마의 질서를 바로 잡았어야지요."

"율사이신 목갈리뿟다띳사 장로님은 누구보다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로운 분이어서 나서지 않고 자정이 되기를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아쇼까왕이 말했다.

"그래도 내가 믿는 장로 중에 한 분인데 어떡하겠소. 가시는 것을 만류하시오. 어서 가서 목갈리뿟다띳사 장로를 데려오시오."

"예, 대왕님. 장로님을 모셔오겠습니다."

마힌다는 서둘러 아쇼까라마로 향했다. 아쇼까라마는 여전히 삼지창 같은 장대를 어깨에 메고 다니는 이교도들로 북적거렸다. 마힌다는 아쇼까라마 비하르를 지나 목갈리뿟다띳사가 머물고 있는 꾸띠로 걸어갔다.

그러나 꾸띠는 텅 비어 있었다. 목갈리뿟다띳사는 이미 떠나버리고 없었다. 마힌다가 아쇼까왕 집무실에 있을 때, 목갈리뿟다띳사와 사문들이 우뽀사타(포살법회)와 빠라와나(자자법회)를 중지하기로 결의한 뒤 강가강으로 내려가 버렸던 것이다. 마힌다가 한 사문을 붙들고 물었다.

"목갈리뿟다띳사 장로님은 어디에 계시오?"

"방금 사문들과 우뽀사타와 빠라와나를 무기한 중지하기로 선언하신 뒤 떠나셨습니다."

마힌다는 잰걸음으로 강가강 나루터까지 달려갔지만 목갈리뿟다띳사는 보이지 않았다. 뱃사공들에게 수소문해보니 강가강 상류인 아호강으로 가겠다고 배를 탔다는 것이었다.

"목갈리뿟다띳사 장로님을 보지 못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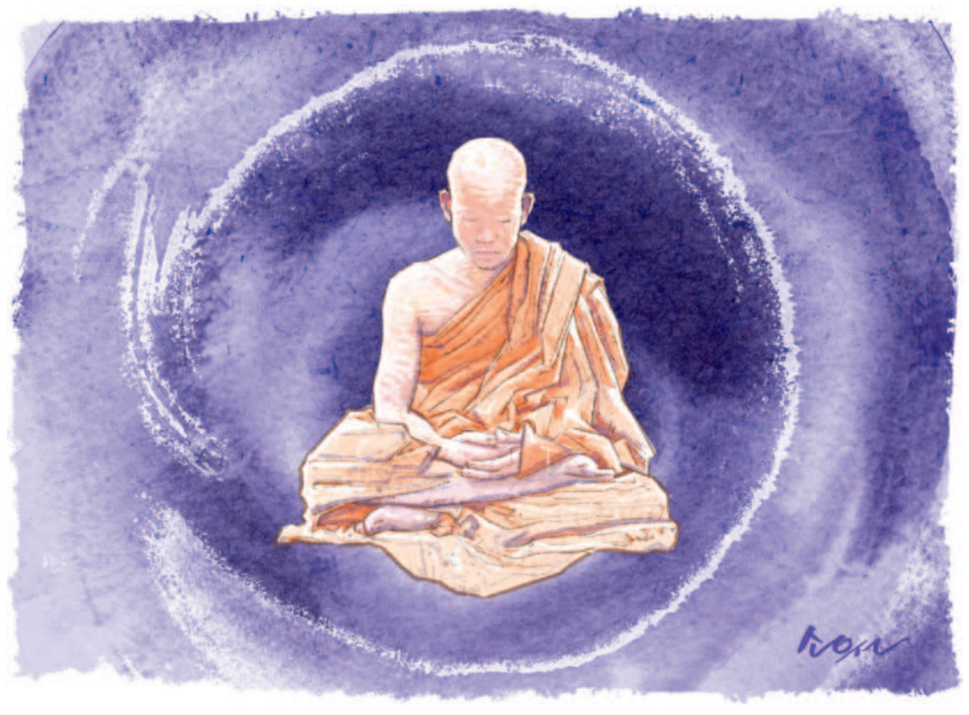
"장로님은 아호강으로 가는 상선을 타고 떠나셨습니다."

빠딸리뿌뜨라에서 아호강으로 다니는 상선은 하루에 한 번 있으므로 뒤쫓아 가려면 내일이나 가능했다. 마힌다는 왕궁으로 돌아와 아쇼까왕에게 사실대로 보고할 수밖에 없었다.

"대왕님이시여, 장로님은 아호강으로 떠나셨습니다."

"사문들에게 남긴 말은 없었소?"

"예, 우뽀사타와 빠라와나를 사문들과 함께 중지하기로 결의했다고 합니다."



"떠난 장로를 붙잡을 방법은 없소. 장로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 힘으로 아쇼까라마를 정화할 수밖에 없소."

"대왕님시이여, 아쇼까라마가 정화된다면 목갈리뿟다띳사님이 돌아오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백성들에게 담마 칙령을 내려 정화할 것이오. 마힌다 장로는 아쇼까라마 이교도들을 정화하시오."

아쇼까왕은 떠난 목갈리뿟다띳사를 포기했다. 아호강으로 마힌다를 보낼 생각도 하지 않았다. 아쇼까왕은 가장 온건한 방법을 선택했다. 아쇼까라마를 정화하고 나면 목갈리뿟다띳사가 돌아올 수도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문들이 포살법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당장의 문제였다. 아쇼까왕은 마힌다에게 말했다.

"장로시여, 나는 사문들이 우뽀사타에 참석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오. 내 명령을 사문들에게 전하시오. 사문들이 우뽀사타에 참석하여 종교 간에 화합을 도모해야 된다고 전하시오."

"예. 그런데 대왕님이시여. 사문들이 목갈리뿟다띳사 장로님 앞에서 우뽀사타를 중지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나의 명령을 어기면 누구라도 극형에 처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하오."

아쇼까왕은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예, 대왕님."

아쇼까왕의 명을 받은 마힌다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사문들을 모아놓고 아쇼까왕의 명령이라며 앞으로는 우뽀사타에 참석하라고 전하기는 하겠지만 자신이 나서서 강요할 생각은 없었다. 스승 목갈리뿟다띳사가 결의한 사항을 제자인 자신이 뒤엎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아쇼까왕은 자신의 명령이 지켜지는가를 보기 위해 마하마따 한 명을 아쇼까라마에 파견했다. 마하마따란 우뽀사타에 참석하여 아쇼까왕의 명령이 집행되는지를 감독하는 담마 대관을 뜻했다.

아쇼까왕은 마하마따 파견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붓다의 가르침은 물론이고 아쇼까왕의 담마정책이 효율적으로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였다. 잠부띠바 각 지방에 마하마따 사무소를 두어 그곳에서 붓다의 가르침을 알리고, 더 나아가 의료, 복지 등의 일을 관장하게 했다.

그러나 처음에는 아쇼까왕의 명령이 잘 집행되지 않았다. 아쇼까라마만 해도 사문들 중에는 왕의 명령을 받들어 우뽀사타에 참석하는 장로가 있고, 목갈리뿟다띳사의 결의를 지키고자 완강하게 반대하는 장로가 있었다. 마하마따가 보고하자 아쇼까왕은 격노했다.

"내 명을 어기면 사문이라도 극형에 처하시오."

"감옥으로 보내 사형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아쇼까왕은 '승가의 보호자'이자 '담마의 실천자'라는 자부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승가의 화합을 위해 승가를 분열하는 자는 용서할 수 없었다. 마하마따는 우뽀사타에 참석하지 않는 사문과 장로들을 지옥궁전이라 불리는 감옥의 전옥(典獄) 전타기리가에게 보냈다. 그러면 전타기리가는 그들을 사형 집행장으로 보내 처형했다.

하루는 띳사꾸마라 장로도 여러 명의 장로와 함께 감옥으로 압송돼 왔다. 띳사꾸마라는 아쇼까왕의 친동생 비가따쇼까였다. 띳사꾸마라는 출가하여 얻은 그의 법명이었다. 다행히 마하마따는 띳사꾸마라를 알아보고 아쇼까왕에게 보고했다. 아쇼까왕은 즉시 띳사꾸마라를 집무실로 불렀다.

"띳사 장로여. 어찌하여 하나뿐인 동생을 내가 처형해야 한다는 말이오!"

"대왕님이시여. 붓다께서는 내가 남에게 살해당하는 것을 싫어하듯이, 남들도 나와 마찬가지니, 살생을 하지 말라, 고 하셨습니다. 대왕님은 담마의 실천자입니다. 그런데 대왕님은 무슨 까닭으로 살생을 하십니까?"

"내가 명령을 내린 것은 승가의 화합을 위해서였소. 우뽀사타의 참석을 놓고 승가가 분열하고 있으니 내가 나선 것이오."

"그렇다고 하더라도 승가를 보호해 왔던 대왕님께서 담마를 수호해 왔던 사문을 죽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아쇼까왕은 띳사꾸마라의 말에 승복했다. 그의 짧은 설법에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오! 띳사 장로의 말이 맞는 것 같소. 마하마따에게 지시하겠소. 나는 오늘부터 내 명을 거역했다는 이유로 살생하는 것을 멈추게 하겠소."

"대왕님은 진정한 담마의 실천자이십니다."

"나는 이미 동생 장로가 출가 전에 내게 선물했던 칼을 다야강에 버린 왕이오. 그 자리에서 나는 담마로 세상을 정복하기로 맹세했소."

"훌륭하십니다. 대왕님이시여."

아쇼까왕은 즉시 전옥 전타기리가를 불러 감옥에 있는 장로들을 다 풀어주라고 지시했다. 이 소식을 들은 마힌다 장로는 마하마따 대관을 불러 부탁했다. 마하마따는 마힌다가 아쇼까왕의 아들이란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든 다 들어주었던 것이다.

"대관이시여, 아쇼까라마 경내에는 이교도들의 상징물이 많습니다. 일단 이것들부터 제거해 정화시켜주시오."

"장로님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교도들이 설치한 요니와 링가, 불의 제단부터 당장 치우겠습니다."

"대관님의 수고를 대왕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즉 정화했어야 할 일입니다."

마힌다는 사문들이 우뽀사타에 참여하고 경내가 정화되기를 서두르지 않고 기다렸다. 어느 정도 정화가 된다면 아호강가에 은둔하고 있는 목갈리뿟다띳사를 찾아가 다시 아쇼까라마로 와주기를 간청할 생각이었다.〈계속〉



김진무의 중국불교의 고승들 ⑳ 남종선(南宗禪)의 창립자, 혜능(慧能)

▶ 한줄 요약
동산법문(東山法門)의 홍인(弘忍)을 계승한 혜능은 중국불교에 결정적인 사상적 변용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佛'에 대한 신앙을 '自心' 신앙으로

동산법문(東山法門)의 홍인(弘忍)을 계승한 혜능은 중국불교에 결정적인 사상적 변용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혜능의 어록(語錄)인 〈육조단경(六祖壇經)〉(이하 〈단경〉)이 후대에 많은 첨삭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혜능의 사상으로부터 출발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단경〉에 나타나는 사상은 가히 '혁명' 적이어서 중국 학계에서는 이른바 '육조 혁명'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일개 조사의 어록을 '경(經)' 이라고 칭하는 것과 '단(壇)' 을 붙이고 있는 점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본래 불교에서는 '일겁일불(一劫一佛)' 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현겁(現劫)의 명칭은 '사바(娑婆)' 로서 이 겁의 법주(法主)는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임을 제창한다. 그런데 〈단경〉에서 '경' 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은 혜능이 '부처' 라는 의미라 하겠다. '경' 은 '부처님의 말씀' 을 뜻하기 때문이다. 또한 '단' 은 바로 '계단(戒壇)' 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경〉이란 중국인인 혜능이 부처가 되어 새롭게 '계단' 을 세우고, 새로운 교의(教義)를 제창하여 중생들을 교화한다는 의미가 숨어져 있는 것이니, 가히 '혁명' 의 의미가 숨어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단경〉에는 기존의 불교사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상이 제시될 것이고, '계' 의 수여 역시도 새로운 형식과 사상이 담겨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단경〉의 사상적 내용과 수계를 모두 논함은 짧은 글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단경〉의 출현은 중국의 불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상에 거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에도 중국 역사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친 '10대 고전' 에 선정되어 지식인들의 필독서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단경〉의 원천인 혜능(638~713)의 생애와 사상을 간략하게 고찰하기로 하겠다.

중국불교는 '안사(安史)의 난' (755~763) 이후에 조사선(祖師禪)이 주류가 되었고, 〈단경〉이 조사선의 종전(宗典)으로 받들어지면서 혜능의 전기는 다양하게 각색되어 출현하고 있다. 혜능의 전기는 상당히 많은 전적에 실려 있고, 자료에 따라 '능선사(能禪師)' , '惠能' , '慧能' 등으로 표기된다. 종보본 〈단경〉에 부록으로 실린 〈육조대사연기외기(六祖大師緣起外記)〉에서는 혜능이 태어났을 때, 어떤 승려 둘이 찾아와 부친에게 이름을 '혜능' 으로 지으라고 하면서, "'혜(惠)' 는 법혜(法惠)로 중생을 구제함이고, '능(能)' 은 불사(佛事)를 능히 일으킨다는 것이다"라고 했다는 고사를 싣고 있다. 그렇지만 후대로 갈수록 '慧能' 표기가 일반적이다.

돈황본 〈단경〉에서는 혜능의 부친이 본래 범양(范陽: 현 河北省 保定市 涞水縣) 출신의 관료였지만, 좌천되어 신주(新州: 현 廣東省 新州縣)로 쫓겨났다고 한다. 그러나 〈육조대사연기외기〉에서는 혜능의 부친이 좌관(左官)으로 신주로 부임했으며, 혜능의 모친은 회임한 지 6년 만인 정관(貞觀) 12년(638) 2월 8일 자시(子時)에 혜능을 낳았다고 한다. 당시 광동(廣東)은 변방으로 비교적 천대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본래 중원(中原)에 가까운 범양 출신임을 강조한 것이고, 2월 8일 자시는 주지하다시피 석존(釋尊)이 출가한 일시와 같다. 따라서 이는 혜능의 가문과 출생에 신이(神異)적인 효과를 부여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사실상 〈단경〉의 여러 판본과 다양한 전기를 대조하면, 혜능의 출신과 행적에 대하여 조금씩 달라짐을 볼 수 있는데, 그 까닭은 조사선을 일으킨 조사에 합당한 위상을 정립시키고자 한 의도라고 볼 수 있다.

혜능은 부친이 어려서 세상을 떠나 집안이 곤궁하여 홀어머니를 모시고 땔나무를 팔아서 연명했다는 내용은 모든 자료가 일치하고 있다. 한편 〈조계대사별전〉에서는 혜능의 30세(혹은 33세)에 조계(曹溪)로 갔는데, 그곳에서 유지략(劉志略)과 의형제를 맺었는데, 유지략의 출가한 고모인 무진장(無盡藏)으로부터 〈열반경〉의 독송을 듣고서 그 구절을 해석하자 무진장이 경전을 주며 읽어보라고 했지만, 글을 모른다고 했다는 고사가 실려 있다. 그렇지만 여러 정황상 혜능은 이 시기에 3~4년간 불법을 공부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후 함형(咸亨) 3년(672) 혹은 5년(674) 혜능은 혜기(惠紀) 선사로부터 황매에 홍인의 선문(禪門)에서 수학하라는 충고를 받고 홍인 문하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는 〈단경〉에 우연히 〈금강경〉의 독송을 듣고서 홍인 문하로 갔다는 내용과 조금 다르다.

'혁명'으로 불리는 혜능의 〈단경〉
중국 전체 사상에 거대한 영향력
'10대 고전' 선정, 지식인 필독서
기존 불교 · 禪과 전혀 다른 사상



소주(韶州) 자사는 혜능이 살았던 신주의 고택에 사찰을 건립하여 국은사(國恩寺)로 하였고, 연화(延和) 원년(712)에 혜능은 국은사에 머물다 선천(先天) 2년(713) 8월 3일에 세수 78세로 입적하였다. 사진은 국은사 모습.

여러 정황상 혜능은 홍인의 선문에서 수학하기 전에 이미 불법을 공부했으며, 나아가 '사도(私度)' 로 출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단경〉에 묘사되는 홍인으로부터 법을 얻고 갑자기 동산법문을 떠났다는 내용은 조사선의 입장에서 극적인 스토리텔링의 기술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특히 홍인 문하를 떠나 숨어 살았다는 점은 그 심증을 더한다. 홍인 문하에서 신수(神秀)와 노안(老安) 등도 '사도' 였던 까닭에 갑자기 홍인 문하를 떠난 사실이 있다. 만약 〈단경〉의 묘사처럼 행자였다면 홍인 문하를 떠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혜능은 쫓기는 몸이 되어 광동의 사회(四會), 회집(懷集) 등지로 계속 도망했으며, "사람들과 섞여 농사짓고 장사하였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 기간에 대하여 짧게는 3년에서 5년, 길게는 17년에 이르도록 자료에 따라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혜능은 의봉(儀鳳) 원년(676)에 광주에 이르러 제지사(制旨寺)에서 인종(印宗)법사가 〈열반경〉을 설한다는 소식을 듣고 법석에 참여했다. 〈단경〉에는 이곳에서 유명한 '깃발' 의 고사를 싣고 있는데, 깃발이 흔들리는 것은 바로 '마음' 이 흔들린다는 내용이다. 이후 혜능은 인종법사로부터 드디어 계를 받고 정식으로 출가하게 되었으며, 그해 2월 28일 법성사(法性寺)에서 지광(智光) 율사에게 구족계(具足戒)를 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로부터도 혜능이 '사도' 의 경력이 있었음이 추정되는데, 계를 받자마자 바로 구족계를 받기 때문이다. 이후 혜능은 40년 동안 법을 펼치는데, 중요한 도량은 곡강현(曲江縣; 현 廣東省 韶關市)의 성내에 있는 대범사(大梵寺)이고, 또 하나는 조계촌(曹溪村)의 보림사(寶林寺) 등 두 곳이다.

혜능의 명성이 높아지자 신룡(神龍) 원년(705) 중종(中宗)은 사신을 파견하여 입경할 것을 청했지만, 당시 노환으로 거절하였고, 중종은 마납가사(摩納袈裟)와 오백 필의 비단을 내렸으며, 보림사를 중흥사(中興寺)로 개명하였다. 또한 소주(韶州) 자사는 혜능이 살았던 신주의 고택에 사찰을 건립하여 국은사(國恩寺)로 하였고, 연화(延和) 원년(712)에 혜능은 국은사에 머물다 선천(先天) 2년(713) 8월 3일에 세수 78세로 입적하였다. 이후 제자들은 혜능의 유체를 조계로 모셨으며, 헌종(憲宗) 시기에 '대감선사(大監禪師)' 의 시호를 받았다.

혜능의 제자들은 상당히 많지만, 〈경덕전등록〉과 〈전법정종기〉에는 43명의 제자를 거명하고, 〈조당집〉에서는 8명의 제자를 거명하고 있다. 이러한 제자들 가운데 주목할 이들은 청원 행사(靑原行思), 남악 회양(南嶽懷讓), 하택 신회(荷澤神會), 남양 혜충(南陽慧忠), 영가 현각(永嘉玄覺) 등이다. 그 가운데 신회는 당시 주류였던 신수의 북종에 대항하여 '육조현창운동' 을 펼쳤으며, 하택종(荷澤宗)을 세웠다.

송대 지반(志磐)이 찬술한 〈불조통기(佛祖統紀)〉에서는 "육조 이후 두 파(派)를 이루었는데, 하나는 청원 행사이고, 행사는 석두 희천(石頭希遷)에게 전하였으며, 그 문하에 조동(曹洞) · 운문(雲門) · 법안(法眼)을 이루었다. 다른 하나는 남악 회양으로, 회양은 마조(馬祖)에게 전하였고, 그 문하에 임제(臨濟) · 위앙(口仰)을 이루었다. 이렇게 오가종파(五家宗派)가 되었으나 도(道)는 하나일 뿐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청원계' 에서 조동 · 운문 · 법안의 3종이 출현하였고, '남악계' 에서 위앙 · 임제의 2종이 출현하여 '오가(五家)' 를 이루었으며, 이는 모두 혜능으로부터 계승된 것이기 때문에 "도는 하나일 뿐"이라고 칭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오가' 는 바로 중국불교의 주류를 형성했으며, 우리나라와 일본에 그 법이 전해져 현재까지도 불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혜능의 선사상은 당연히 〈단경〉으로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혜능의 직제자인 남양 혜충(南陽慧忠, ?~775)이 "저 〈단경〉을 개환(改換)하여 비천한 논리를 더하여 섞어서 성의(聖意)를 깎아버리고, 후학들을 미혹하여 어지럽게 하니, 어찌 언교(言敎)를 이루었다고 하겠는가! 괴롭다! 나의 종(宗)이 손상되었도다"라고 한탄하는 것으로 보아 혜충의 시대에 이미 〈단경〉이 있었으며, 그 사상에 대한 개환도 진행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현존하는 〈단경〉은 20여종의 판본이 존재하는데, 그 가운데 돈황본이 최고본이고, 종보본이 최후의 판본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렇지만 돈황본도 학자에 따라서는 당말(唐末) 혹은 오대(五代) 시기의 필사본이라고 하니, 혜능조사의 온전한 법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 〈단경〉의 최고본과 최후의 판본을 통해 그 사상을 파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단경〉의 선사상은 상당히 간결하면서도 심오한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 이를 최대한 간략하게 논하자면, 무엇보다도 '불성' 을 우리가 늘 접하는 세상 사람들의 인성(人性)과 심성(心性)으로부터 접근하여 '자심(自心)' 과 '자성(自性)' 으로 귀결시키고, 나아가 그에 대한 깨달음으로 '돈오(頓悟)' 를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돈오' 에 입각하여 정혜등학(定慧等學)과 '무념(無念)' , '무상(無相)' , '무주(無住)' 를 수행과 궁극적인 경지로 제창하고 있다. 이러한 〈단경〉의 사상은 기존의 불교나 선에서는 '불성' 을 '인성' 을 초월한 보다 상위개념으로 설정하는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사상이라 하겠으며, 이로부터도 '혁명' 이라고 칭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외에 〈단경〉은 기존의 불교나 선과 차별적인 사상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이를 모두 논할 수는 없지만, 〈단경〉의 수행한 사상적 작용을 최대한 간략히 말하자면, 기존에 '불(佛)' 에 대한 신앙을 '심(心)' , 그것도 '자심(自心)' 에 대한 신앙으로 전환했다고 하겠다.

〈前 동국대 불교문화원 부교수〉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한 쉼터

바쁜 일상, 속도에 쫓기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지친 삶의 연속이다. 그러다보니 자신이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종속적인 삶 속에서 혼란과 두려움 뿐이다.

어떻게, 무엇에 의지해야 하나?

마음치유 · 심신수련 · 쉼 터

빙의, 신병, 우울증, 불면증, 화병, 중독, 스트레스,
가정 · 사업문제, 심령치유, 소원성취기도, 장기요양

한반도 시작, 땅 끝 해남 견성원에서
새로운 삶의 기운을 받아 가세요!

수행도량 견성원 010-8208-7836

사주명리 / 점술 개인지도 · 애동제자 환영

비바미 신발은
우리 몸과 자연의 합일을 추구합니다

승복과 어울리는 색상과 디자인입니다.

신으면 자연과 지구를 발로, 온 몸으로 느낍니다.
발볼이 넓어 발가락과 발바닥의 기능을 살립니다.
걸으면서 명상하기 적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 판매 : vivame.co.kr ◈ 전화 : 02-922-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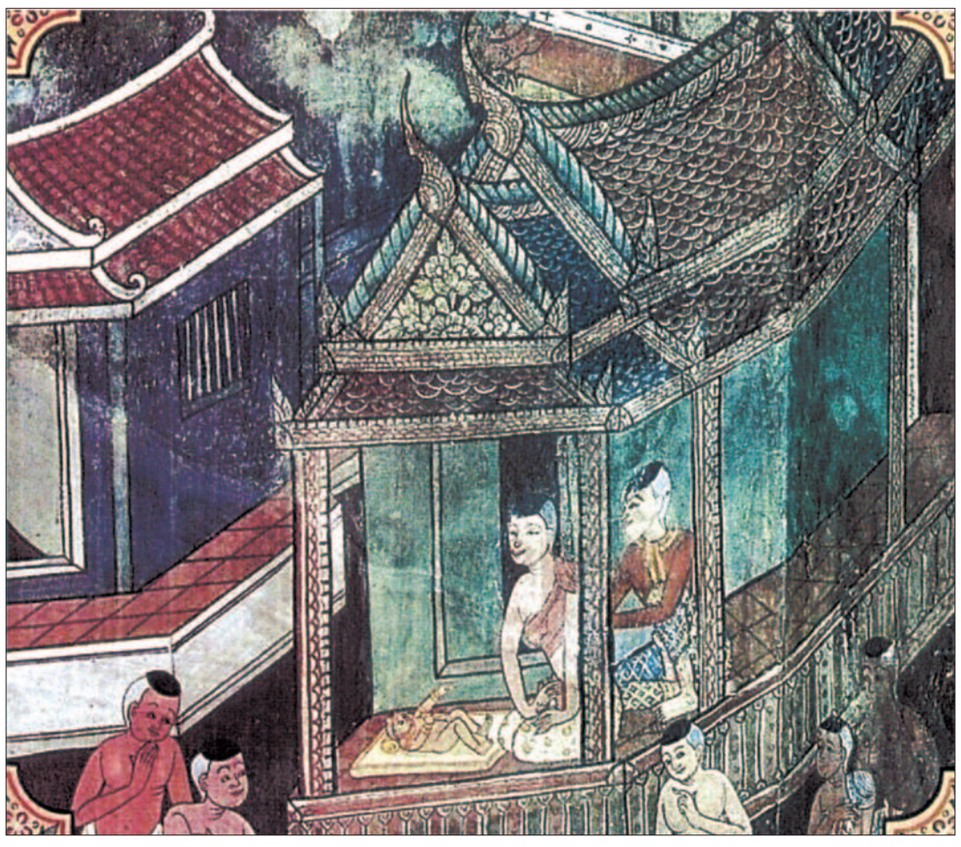


조성금 교수의 스토리텔링 본생경 ⑲ 마하 움마가 자타카

▶ 한줄요약
서로 자신의 아이라 우기는 여인을 두고 내린 솔로몬 왕의 판결에 대한 이야기는 유명하다. 이 같은 이야기는 부처님 전생담에도 있으니 바로 '마하 움마가 자타가'와 〈현우경〉 '단니기품'이다.



'솔로몬 판결'보다 훌륭한 부처님 전생담



그림① 태국 방콕의 왓 크루아완 와라위한 사원 벽화 부분. 아유타야 왕국 시기인 15세기에 조성됐으며, 부처님 본생담인 '마하 움마가 자타카'의 내용을 담았다.



그림② 쿠차현 키질 석굴 38굴에서 출토된 벽화로 현재 독일 베를린 아시안아트 뮤지엄에 소장됐다. 6세기에 조성됐으며, 〈현우경〉의 '단니기 본생도'를 도상화했다.

지혜로운 왕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솔로몬 왕'을 떠올린다. 솔로몬 왕은 정치적으로도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왕으로도 손꼽힌다. 다윗과 밧세바의 아들인 솔로몬은 어머니의 출신 때문에 왕이 되기 어려웠으나, 뛰어난 지혜로 왕위에 올라 군사·행정·상업 등 여러 문제를 잘 해결해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다고 한다. 현인으로서 기억하는 가장 대표적인 일화는 '솔로몬의 판결' 즉 한 명의 아이에 대해 두 명의 여인이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한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구약성경〉 열왕기 상편 3,16-28절에 기록돼 있다. 대략적인 줄거리는 이렇다.

어느 날 솔로몬 왕에게 여인 둘이 찾아와서 한 아이를 사이에 두고 서로 엄마라고 주장했다. 아이를 빼앗겼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던 여인이 말하기를 두 여자가 사흘 차이로 아이를 낳았는데, 나중에 아이를 낳은 여자가 자다가 자신의 아들을 깔아뭉개어 죽였다고 했다. 죽은 아이의 엄마가 모두 잠든 사이 먼저 태어난 아이와 죽은 아이를 바꾸어 놓았는데, 날이 밝은 뒤에야 품 안에 죽어 있던 아이가 자신이 낳은 아이가 아님을 알았다고 한다.

참과 거짓을 가리기 위해 두 여인은 솔로몬 왕 앞에서 산 아이는 내 아이이고, 죽은 아이가 네 아이라고 말싸움을 벌였다. 그때 왕이 칼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리며 말하길, 산 아이를 공평하게 둘로 나누어 반쪽은 이 여자에게 또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라고 하였다. 그러자 산 아이의 어머니는 제 자식을 생각하며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고, 아이를 죽이지만은 말아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네 아이도 아니니 똑같이 나눠 갖자고 하였다. 이를 본 왕이 아이를 죽이지 말라며 애원하던 처음 여자가 진짜 어머니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솔로몬 왕의 판결로 널리 알려진 이야기는 팔리어로 적힌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와 한역 경전 〈현우경(賢愚經)〉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초기 경전에 해당하는 팔리어 자타카 547편의 이야기 중 546번째 '마하 움마가 자타카' (Maha-Ummagga Jataka, 큰 용솟음 또는 큰 불기둥이라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마틸라(Mithila) 지역의 베데하(Vedeha) 왕국은 실제로 남쪽은 갠지스강, 서쪽은 간다키강, 북쪽은 히말라야 산기슭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인도 아리아인이 이곳에 베데하 왕국을 세우고 후기 베다 시대(기원전 1100~500년경) 동안 고대 인도의 주요 정치 및 문화 중심지 중 하나가 됐던 곳이다. 매우 방대한 '마하 움마가 자타카'의 내용을 아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마틸라의 베데하 왕은 어느 날 밤 꿈에 궁전의 네 개의 기둥 한가운데에서 하늘을 향해 불타오르며 온 세상을 비추는 다섯 번째 커다란 불기둥을 보았다. 왕이 네 명의 지혜로운 조언자들에게 꿈에 대해서 이야기 하자, 자신들보다 더 지혜로운 다섯 번째 조언자가 곧 태어나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 예언했다. 그때 부유한 상인의 집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인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미 7살이 되었을 때 왕국 전체에서 그보다 현명한 사람은 없었다. 어느 날 굶주린 야차녀가 젖을 먹이고 있는 어머니와 아기를 보고, 아기를 잡아먹으려고 데리고 도망쳤다. 아기의 어머니는 쫓아가서 야차녀를 잡았으나, 두 여인 모두 그 아기의 어머니라고 주장했다. 이때 지혜로운 소년은 야차녀의 검붉고 깜빡이지 않는 눈 그리고 햇빛에 서 있어도 그림자가 없는 몸을 보고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다. 하지만 두 여인이 서로 아기의 어머니라 우겨서 재판을 통해서 진짜를 가리기로 하였다.

지혜로운 소년은 마루에 선을 긋고 아기를 그 위에 눕히고, 각각 두 여자에게 아기의 손을 잡고 힘껏 당기라고 말했다. 어느 쪽이든 아기를 많이 잡아당기는 사람이 어머니라고 이야기하자, 두 여자들은 아기를 당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기가 고통으로 크게 울부짖자 진짜 어머니는 아기의 손을 놓아주고 울기 시작했다.

이를 본 지혜로운 소년은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자식을 아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진짜 어머니라고 말하면서, 다른 여자는 아기를 잡아먹으려는 야차녀라고 밝혔다. 이에 야차녀가 자신의 정체와 나쁜 의도를 고백하자 지혜로운 소년은 그녀가 과거의 생에 죄를 지어 야차녀로 태어났는데, 또다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녀를 꾸짖었다.

베데하 왕은 부처님의 제자인 랄루다이(Laludayi)의 전생이었으며, 왕의 네 명의 조언자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존경하고 따랐던 네 명의 금욕주의자들의 전생이었다. 그리고 지혜로운 소년은 당연히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의 인물이다."

마하 움마가 자타가·단니기품
친자 분쟁서 賢人 명판결 담아
열왕기 '솔로몬 판결'과도 유사
키질 석굴 벽화 등서 도상화돼

이러한 팔리어본 '마하 움마가 자타카'를 그림으로 잘 표현한 예를 태국 방콕의 왕실 사원 왓 크루아완 와라위한(Wat Kruawan Worawiharn) 사원 벽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림을 보면 궁전의 전각 마루에 한 아기가 누워있으며, 그 옆으로 두 명의 여인이 앉아서 아이를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전각 아래 사람들이 아이와 두 여인을 보면서 귓속말을 나누거나 손가락으로 아이의 앞에 앉은 한 여인을 가리키고 있다. 손가락으로 여인을 가리키는 인물이 아기의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석존의 전생인 지혜로운 소년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그림①)

한역 경전인 〈현우경〉 권11 '단니기품(檀膩羈品)'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어떤 두 어머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왕에게 와서 제각기 제 아들이라 주장했다. 왕은 현명하고 지혜로워 방편으로 그 두 여자에게 말했다. '지금 아이는 하나인데 두 어머니가 서로 주장하는구나. 너희들 둘은 각기 그 아기의 팔을 한쪽씩 잡고 당겨라. 누구든 빼앗는 이가 바로 그 어머니다.' 어머니가 아닌 이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힘을 다해 마구 잡아당기면서 아이가 상할까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아이를 낳은 어머니는 아이를 매우 사랑하기 때문에 끌려가면서도 아이를 아껴 차마 잡아당기지 못했다. 왕은 곧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그 힘을 낸 여자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는 실로 네 아들이 아니다. 억지로 남의 아이를 욕심낸 것이다. 지금 내 앞에서 사실대로 고백하라.'

그녀는 곧 머리를 조아리고 왕에게 아뢰었다. '실로 거짓이었습니다. 남의 아이를 억지로 제 아이라 하였습니다. 대왕님의 밝고 거룩하심으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왕은 아이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고 보내었다."

〈현우경〉 속의 60여 개의 전생담을 벽화로 도해한 중국 신장성 위구르 자치구의 쿠차현(庫車縣) 키질(克孜爾)석굴에서 위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그림을 찾아보면 키질 38굴의 벽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키질 38굴의 벽화는 6세기경 그려진 것으로, 이 그림은 19세기 초 독일의 중앙아시아 탐험대에 의해 절취돼 현재 독일 베를린 아시안아트 뮤지엄에 소장돼 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화면의 왼쪽에 무릎을 꿇은 여인이 강보에 싸인 아기를 안고 있으며, 그 앞에 긴 칼을 든 사람이 아기를 향해 칼을 내리치려는 듯한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돼 있다.(그림②)

만약 이 그림을 '마하 움마가 자타카'나 〈현우경〉 '단니기품'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보았다면, 이 벽화의 제목을 '솔로몬 왕의 판결'이라고 하였을지도 모른다. 역시 아는 만큼 보이고, 그 또한 내가 본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부처님의 말씀 '군맹무상' (群盲撫象)이 떠오른다.

이스라엘에 솔로몬 왕이 있다면, 불법을 믿고 따르는 우리 불자들에게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다.

〈울산대 역사문화학과 강사〉

나는 이렇게 붓다가 되었다
– 깨달음의 경 –
『붓다자나 아카데미』는 붓다를 완성한
"깨달음의 경" 전법으로
아라한을 성취케 하는 수행 불사입니다.
정법을 선양하고 붓다의 혜명을 이어가고자 하는
청정 수행자의 지원을 환영합니다.

수강과목	붓다자나(깨달음의 경) 수행체계 (141아디까싸라 : 118싸띠, 21보디, 2쌈보디)
수강인원	16 아라한(선착순 마감)
수강대상	만 50세 미만, 비구·비구니 (종단 구별 없이 신청 가능)
수강기간	1년(매주 목요일 오후 2시–5시)
수 강 료	월 10만원 (농협 843173-51-026991, 예금주 : 길상암) ※입금시 "보궁 00(법명)"로 하시고 문자 바람.
전법교수	보궁선원장 수완나
수강문의	010-9176-7000
개 강 일	2022년 10월 20일(목) 오후 2시
수료혜택	붓다자나 전법인증서 수여
수강장소	해인사 길상암 선인당 ※경남 합천군 가야면 가야산로 1645-8(치인리)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길상암 감원 광해

수맥파차단 건강온수매트
침대 유해수맥파는 각종 질병및 암을 유발한다.
◈ 우울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 각종암, 고혈압, 당뇨 등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 피로 회복의 효과가 탁월합니다.
◈ 불면증에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 유해수맥파 차단으로 편안한 숙면을 보장합니다.
◈ 유해수맥파로 인한 악몽, 가위눌림 등을 해결합니다.
– 수맥파차단 온수매트 샘플색상 –

수맥파차단 꽃담 싱글 | 수맥파차단 금사 더블 | 수맥파차단 황토 싱글 | 수맥파차단 루비 싱글
수맥파차단 건강온수매트 규격 (온수보일러-전자파 제로)

호칭	규격(가로×세로)	두께(T)	온수보일러
S	1000×2000	30	220V60HZ– 280W
W	1400×2000	30	"
Q	1500×2000	30	"

수맥파차단 건강온수매트와 함께
면역력을 높여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총판 : 오 륙 building
전화 : (062) 351–1981 HP : 010–3616–1200
공장 AS : (031) 765 – 9297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오직 호흡뿐 = 호흡의 물리가 터짐 = 제6차크라 열림 = 전기뱀장어의 몸 = 기공의 대가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뇌의핵심〈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구광국의
화엄으로 본 보로부두르대탑

❷ 〈화엄경〉 유통과 보로부두르대탑

▶ 한줄 요약
보로부두르대탑의 2~4회랑의 부조상 대부분은 〈화엄경〉 '입법계품'을 소재로 하고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에 〈화엄경〉이 유통돼 왔다는 중요한 증거이다.



印尼에도 '화엄경' 전파…대탑 사상적 기반

인도네시아에 〈화엄경〉이 유통됐다는 문헌적 단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보로부두르대탑이 발견된 후 선구적 학자인 크롬과 그의 제자 보쉬의 노력으로 보로부두르대탑의 2회랑, 3회랑, 4회랑의 부조상 대부분이 '입법계품'의 내용을 소재로 조성됐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크롬은 대탑의 전체적 구조를 밀교금강계 만다라로 규정하고 그의 이러한 주장은 불교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 대탑의 '입법계품' 부조상은 인도네시아 자바에서 〈화엄경〉 유통과 화엄 사상과는 관계없이 일시적이고 우연히 조성된 단지 대탑의 장엄의 용도 정도로만 취급되는 실정이다.

이에 대탑이 '화엄탑'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도네시아에 대탑의 건립 전 〈화엄경〉이 유통되었음을 밝히고 그 화엄사상위에 대탑이 건립되었을 것으로 보일 필연성이 있다. 또한, '화엄탑'임을 밝히기 위해 대탑에 적용된 화엄경류(類)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대탑에 어느 부류의 〈화엄경〉이 적용됐는지에 따라 대탑의 구조와 불상의 명호와 각층의 부조상 파악이 달라진다. 이러한 분석은 대탑이 '밀교탑'이란 논쟁을 종식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다.

먼저, 인도네시아의 〈화엄경〉 유통 역사를 전법승들을 통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불교계에 유통된 화엄경류를 서로 비교하여 보로부두르 건립 당시 유통됐을 〈화엄경〉을 드러내고자 한다.

현재 남방불교권인 이곳에 〈화엄경〉의 유통 가능성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나 해상 실크로드의 길목에 위치하여 오래전부터 대승불교의 전법승이 다녀간 기록이 풍부하다.



보로부두르대탑 2회랑 16번 주벽 부조상. 〈화엄경〉 '입법계품' 중 첫 선지식인 문수보살이 적멸도량에서 대중들에게 설법하는 장면을 담았다.

인도네시아 내 불교 유입

인도네시아에 최초로 불교를 전파한 전법승은 계빈국(현 카슈미르) 구나발마(Gunavarman, 367~431)이다. 그의 행적은 자바의 등장과 자바의 불교 전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된다. 구나발마는 계빈국 왕자 출신으로 20세에 출가했고, 30세에 왕위를 마다하고 왕국을 떠나 스리랑카 아바야기리대탑(Abhayagiri)에서 기거했다. 그 후 인도네시아 자바로 수행처를 옮겼는데 이곳의 힌두교 신봉자이던 왕모와 왕을 불교로 교화해 불교 왕국으로 전향시켰다.

구나발마는 왕사로서 국민의 신망을 받았고, 왕은 출가를 결심할 정도로 불심이 깊었다. 고승의 소문이 해외에 이르러 중국 송나라 문제(재위 424~453년)의 간곡한 요청으로 바닷길로 건너가서 424년 남쪽 광저우에 먼저 도착했다. 그 후 유람해 금릉(現 중국 남경) 기원사에 431년 도착하였으며, 왕의 요청이 있어 이전에 동향인 계빈국 고승 불타발타라가 한역 역경한 60〈화엄경〉과 〈십지경〉을 강설했다. 구나발마는 이미 계빈국의 삼장법사였으며 송문제의 초청을 받아 금릉에서 〈화엄경〉과 〈십지경〉을 설했다는 것은 인도네시아 자바 체류 기간에 〈화엄경〉과 〈십지경〉을 설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이른 시기에 인도네시아 최초로 〈화엄경〉이 전파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외 직접적으로 인도네시아에 〈화엄경〉을 전파한 기록은 없지만 다른 곳에서 〈화엄경〉을 역경하고 전파한 전법승들이 이곳을 경유한 사례들은 여럿 있다. 〈불국기〉를 저술한 구법승 법현(法顯, 339~420)은 인도와 스리랑카에서 구법 후 412년에 6개월간 자바에서 체류하고 15년 만에 귀국하여 60〈화엄경〉 역경 사업(418~420)에 참여했으며, 중국 3대 역경승의 한 명인 인도 웃자인 출신 진제(499~569)는 〈화엄경〉을 가지고 해상 길로 중국에 가서 〈화엄경〉을 역경했다. 〈대당서역구법고승전(大唐西域求法高僧傳)〉에 의하면 역경승 의정(義淨, 636~713)은 인도 나란다 대학 유학과 귀국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에 8년간(687~695) 머물렀는데 장안에 귀국해 80〈화엄경〉 역경에 참여했다.

남인도 마두라이 출신인 보디세나(Bodhisena, 704~760)는 733년경 참파(현 베트남 중부와 남부 지역에서 2세기 말부터 17세기 말까지 존재한 현 비엣족과 다른 강성한 참족의 왕국)를 지나 735년경 일본에 도착해 25여 년 기거하며 동대사 노사나불을 점안했으며 화엄종을 창건하고 범어를 가르쳤다.

이들의 행적에는 이들이 직접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화엄 사상을 교류한 사실을 밝히는 확실한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법승은 그들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일생을 바쳐 여러 곳을 유람하며, 가는 곳곳의 승가 집단에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거주하며 법을 펴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를 근거로 구나발마 이후에도 해상 무역의 거점인 인도네시아는 불교사상과 문화의 거점으로 화엄의 전법승들이 그들의 화엄 사상을 이곳에서 교류하고 전파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 塔 2~4회랑 부조상 '입법계품' 소재인니 '화엄경' 유통됐다는 중요 증거
> 대승불교권 구법승들 인니서 활동해
> 산스크리트본 '화엄경' 조성에 바탕

전체적으로 전법승들의 행장과 정황을 정리해 보면 인도네시아 〈화엄경〉의 유통은 구나발마에 의해 5세기에 시작돼 〈화엄경〉의 사상이 응용된 보로부두르대탑을 건립(775~835년)한 시기에 정점을 거쳐, 사일렌드라 마지막 왕 발라푸트라(Balaputra, 재위 833~873?)가 축출된 856년 이후 한동안 지속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당시 유통되던 화엄경전류 비교

보로부두르대탑은 인도네시아에서 〈화엄경〉이 유통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 이에 당시 유통됐던 〈화엄경〉 내용과 구조를 보로부두르 대탑의 구조와 상호비교분석해 둘이 일치성을 확인하면 대탑이 '화엄탑'임을 밝히는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는 현재까지 〈화엄경〉이 출토됐거나 보존돼 있지 않다. 따라서 현존하는 한역 〈화엄경〉의 분석을 통하여 자바에서 보로부두르대탑을 건립(775~835년)한 시기에 유통됐을 화엄경을 드러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대탑건립의 시기, 세계불교계에는 산스크리트본 〈화엄경〉, 60〈화엄경〉, 80〈화엄경〉이 유통되던 때이다. 80〈화엄경〉은 60〈화엄경〉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다시 역경된 경전이다. 실제로 80〈화엄경〉에 추가된 부분을 빼면 번역 시 음역과 의역의 차이가 있으나 60〈화엄경〉과 거의 같다. 이 의미는 60〈화엄경〉과 80〈화엄경〉의 기본 원본이 크게 다르지 않으며, 산스크리트본 〈화엄경〉이 그 당시까지 일반적으로 유통됐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일반적 유통 현황을 근거로 한자권이 아닌 산스크리트어가 통용된 대승불교 왕국이었던 자바의 사일렌드라 왕국에서 산스크리트본 〈화엄경〉이 통용됐음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는 당시 사용되던 산스크리트본 〈화엄경〉 완본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산스크리트본 〈화엄경〉의 내용과 구성을 밝혀주는 자료는 60〈화엄경〉과 80〈화엄경〉과 〈자은화엄〉이다.

〈자은화엄〉은 중국 화엄종 2조 지엄(智儼, 602~668)이 대자은사에서 산스크리트 본 〈화엄경〉을 보고 직접 품을 정리한 내용이다. 현시점에서 자바에 유통된 산스크리트 화엄경을 밝히기 위해 〈자은화엄〉, 60〈화엄경〉. 80〈화엄경〉의 품을 분석 비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화엄경〉 들의 품(品)을 서로 비교분석해 품의 이름과 구성을 파악이 필요하다. 이는 대탑 구조에 적용된 〈화엄경〉과 화엄사상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대탑 활용 화엄경은 산스크리트본

반야삼장에 의해 795~798년 편찬된 40〈화엄경〉은 1품인 '입부사의해탈경계보현행원품(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으로 이뤄져 대탑의 전체적 구조를 보여주지 못함으로 품 구성도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60〈화엄경〉, 80〈화엄경〉, 〈자은화엄〉의 품을 서로 비교한 결과 상당 부분 60〈화엄경〉 품명과 일치되는 번역을 했다. 그러나 '적멸도량회(寂滅道場會)' 부분에서 〈자은화엄〉의 품이 80〈화엄경〉의 품과 더 일치함을 보임으로써 60〈화엄경〉보다 80〈화엄경〉이 현존하는 경전 중에 가장 산스크리트본에 가까운 경전이라 할 수 있겠다.

80〈화엄경〉이 39품인데 반해 〈자은화엄〉은 44품으로 구성됐다. 60〈화엄경〉을 보완하기 위해 측천무후의 명에 의해 실차난타(實叉難陀, 652~710)가 80〈화엄경〉을 역경하고 그 후 보완을 걸쳐 지금의 80〈화엄경〉이 완성본으로 유통됨을 보았을 때 보로부두르대탑 당시 유통됐을 산스크리트본은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산스크리트본은 80〈화엄경〉의 5품 華藏世界品과 39품 入法界品에서만 품이 증가하였으며 그 외에서는 80〈화엄경〉의 품을 거의 다 품고 있기에 두 본 경의 내용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같은 내용으로 판단이 된다. 따라서 보로부두르대탑의 구조와 불상 부조상을 분석하고 해석 시 80〈화엄경〉을 위주로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산스크리트본 〈화엄경〉이 유통돼 그 위에 화엄대탑이 건설되었을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이러한 가능성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80〈화엄경〉에 근거해 〈화엄경〉의 사상적 구조와 대탑의 10층 구조를 배대하고 불상의 배치를 〈화엄경〉의 불타관 우주관에 근거해 세밀히 보여줘 각 회랑의 부조상 분석을 〈화엄경〉의 수행 계위인 52계위(階位)에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아제여행사 대표〉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경남 고성 대명사, 전국 캠핑장 캠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 등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문의 010-3267-1263

신행의 시작은 '귀명'에서…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㊴ 예경문

〈원문〉 "여래의 미묘하신 몸은 세상에서 짝할 수 없는 것. 견줄 바 없이 불가사의하니 그러므로 지금 공경히 예배드리나이다. 여래의 몸은 다함이 없고 지혜도 또한 그러해 일체의 모든 법에 항상 머무시니 그러므로 제가 지금 귀의하나이다. 마음으로 지은 허물인 악업과 몸으로 짓는 네 가지 악업도 이미 다 조복하신 경지에 이르렀으니 법왕께 절하옵니다. 일체의 알아야 할 바를 모두 아시며 지혜의 몸이 자유자재하시며 일체의 법을 모두 지니셨으니 지금 공경히 예배하나이다. 부처님의 크신 공덕 헤아릴 수 없음에 예배하며 비유할 수 없음에 예배하며 가없는 법문에 예배하며 불가사의함에 예배하나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를 보호해 주시고 법의 종자가 자라나게 하소서. 금생에도 다음 생에도 원하옵나니, 부처님 언제나 거두어 주소서. 부처님! '내 이제 너를 편안케 하여 전세에 이미 깨달음을 얻게 하였고 이제 다시 너를 거두어 주노니 미래의 생에도 그러하리라' 하소서. 저는 이미 공덕을 지었으니 현재에도 또 다음 생에도 이와 같은 온갖 선근으로 원하옵나니, 거두어 주실 것을 보여 주소서."

〈강설〉 〈승만경〉의 제1장인 '여래진실공덕장' 에는 승만 부인의 예경문이라 할 수 있는 글이 나와 있다. 지극한 정성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면서 예배드리는 내용이다. 부처님의 공덕, 지혜 그리고 불가사의함을 생각하며 몸과 마음을 다 바친다는 귀명문(歸命文)이기도 하다. 종교적 신앙생활은 예경(禮敬)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를 달리 귀명례(歸命禮)라고도 하는데 정성을 다하여 귀의하고 예배하는 것을 말한다. 〈석문의범(釋門儀範)〉에는 의례 때 지송(持誦)하는 귀명게(歸命偈)가 나와 있다. "시방세계의 부처님께 모두 귀의하오니 죄를 멸하고 청정한 믿음을 내어 연화장세계와 극락정토에 태어나기를 바라옵니다(十方盡歸命 滅罪生淨信 願生華藏界 極樂淨土中)", 예불문의 칠정례(七頂禮)도 '귀심귀명례' 로 시작되는데 귀명(歸命)이란 말이 귀투신명(歸投身命)의 줄인 말로 몸과 목숨을 던져 돌아가 의탁한다는 말이다. 또 귀순교명(歸順敎命)의 뜻이 있어 부처님의 교명(敎命)을 따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환귀본명(還歸本命)이라 하여 명근(命根)을 그 근본에 돌려보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중생의 육근(六根)이 일심에서 일어난 것인데 스스로 그 근원을 등지고 수많은 외부 경계에 끌려가 허덕이게 된다. 그래서 모든 감관을 거두어들여 근원인 일심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귀명이란 말에 이와 같은 세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다. 범어를 음사(音寫)해 쓰는 나무(南無: namas)라는 말도 귀명의 뜻이다.

불교의 신행 자세 혹은 신앙 정서는 귀명에서 시작하여 찬탄하고 참회하며 발원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대승경전에서는 거의 공통으로 귀의, 찬탄, 참회, 발원의 네 가지 요소가 다 설해져 있다. 승만 부인의 예경문 안에도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들어 있다. 금생에도 다음 생에도 거두어 달라는 간절한 청을 부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 지극히 감동스럽다.

대승기신론 서두에도 저자 마명보살이 삼보에 귀의하며 논을 짓는 뜻을 밝힌 귀명게가 있다. "언제 어디서나 온 시방에서 가장 훌륭한 일을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색신이 걸림 없이 자유자재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대비하신 분과 그리고 그 몸의 본체와 나타나는 모습이신 법성 진여 바다의 한량없는 공덕의 창고와 여실히 수행하는 이들에게 몸과 마음을 바쳐 돌아가 의지하나이다." 삼보에 귀의하는 말을 이렇게 설해 놓았다. 또 부처님께 예배하는 예법을 정례(頂禮)라고 하는데 원래 이 말은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고 예를 올리며 하는 말이다. 이는 자신의 신체에서 가장 높은 부위인 이마를 부처님의 가장 낮은 발에 예를 올리는 것으로 공경의 극치를 나타내는 말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고통 벗으려면 '無明' 먼저 제거를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㊷ 중생심 바로 알고 자성불 깨닫자

5. 견성성불을 위한 길

△분별심으로는 부처 못 만나

모든 생명체는 항상 본능적으로 감각기관에 의지해서 뭘 보려 하고, 알려 하고, 찾으려고 하는 작용이 있다. 우리 인간 역시도 감각기관에 의지해서 살고 있는 생명체이다. 그러다 보니 감각기관에 의지해 알려고 하는 분별심이 이미 훈습되어있다. 따라서 기도와 수행을 하는 과정 중에서도 감각기관을 의지해서 부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결코 부처님을 만날 수 없다. 왜냐하면 부처는 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찾는다고 만나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강경〉 '제5 여래실견분' 에서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여래를 보리라."라고 형상이 아닌 진실한 부처님을 설명하고 있다. 찾으면 찾을수록 더 천리만리 멀어져 버리고,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마음은 더욱더 암흑 속으로 빠지게 된다. 찾으려는 마음이나 구하려는 마음 모두가 생멸하는 마음이다. 이 생멸하는 분별심으로는 결코 부처님을 만날 수 없다.

△무분별심 되어야 부처 만나

자성불을 만나려면 생멸이 없는 무분별심(無分別心)이 되어야 한다. 구해서 얻어지고, 찾아서 얻어지는 부처라면, 그 구함이 없으면 깨져버릴 것이고, 찾는 바가 없어지면 사라져 버릴 것이다. 만약 구하고, 찾아서 만날 수 있는 부처라면 반드시 사라진다. 그래서 구하고, 찾아서 볼 수 있는 그런 부처님이 아니라, 구하는 바 없고, 찾는 바 없이 본래 갖추어진 영원한 부처님을 만나야 한다.

△견성 못하는 이유, 마음의 장애 때문

우리가 부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무명에 의한 마음의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마음의 장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번뇌의 장애[煩惱障]' 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적인 장애[所知障]' 이다.

번뇌의 장애란 번뇌로 인해 항상 마음이 요동치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의 마음은 무명(無明) 업식(業識)으로 인해 항상 이런저런 번뇌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법(諸法)에 대한 실상(實相)을 깨닫지 못하고 자성불 또한 만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걸 '번뇌의 장애' 라고 한다.

지적인 장애는 '소지장' 이라고 하는데, 지혜의 장애를 말한다. 무명 업식으로 인해 지혜가 식(識)으로 전변(轉變)하여 지적인 장애가 일어난다. 이때 내 마음속에는 꼭 '나' 자신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자아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보이는 대상은 남이라고 판단하는 착각이 자꾸 생겨난다. 이래서 아집(我執)이 생기고, 아견(我見)이 생기고, 아상(我相)이 생깁니다.

그리고 보이는 바깥 대상 경계에는 법에 대한 집착인 법집(法執)이 생기고 법견(法見)이 생겨난다. 이것은 마치 눈에 병든 사람이 헛것을 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정신에 분열증과 착란증을 일으킨 사람이 환청과 환각을 체험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에 지적인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자꾸 '나' 라고 하는 아견을 내면서 아집을 일으키고 또한 '일체 존재가 있다' 라고 하는 법집과 법견을 일으켜서 나와 모든 존재에 대한 실상을 바로 보지 못하고 미혹에 빠져서 전도미망(顚倒迷妄)을 일으키는 중생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번뇌의 장애와 지혜의 장애는 중생이 가지고 있는 근본 장애인 것이다.

또 우리 마음은 이미 물들어 있다. 감각기관을 통해 접촉하는 형상과 색깔에 물들어 있고, 좋은 소리에 물들어 있고, 맛 나는 음식에 물들어 있고, 내가 집착하는 것에 물들어 있고, 그래서 물든 마음으로 세상을 살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내가 좋아하는 것은 자꾸 취하려고 집착하고, 싫어하는 것은 버리려 하는 경계를 취사(取捨) 선택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이 바깥 경계에 의해 오염된 마음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요동치는 것이다.

고통을 벗어나려면 바로 중생의 근본 무명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흐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㊴ 말룽끼야뿟따에 대한 경 2

분별심 있는 한 괴로움 못 벗어

"말룽끼야뿟따여, 어떤 사람이 독이 짙게 묻은 화살을 맞았다고 하자. 그의 친구들이나 동료들, 친지들이나 친척들이 와서 그를 외과의사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그가 '나는 나를 쏜 사람이 귀족인지 아닌지, 이름과 성이 무엇인지, 키가 큰지 작은지, 피부가 검은지 하얀지, 온 곳이 작은 마을이나 부락인지 도시인지, 보통의 활인지 석궁인지, 활줄이 갈대인지 힘줄인지, 깃털이 독수리의 것인지 까마귀의 것인지를 알아야 뽑을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하자. 말룽끼야뿟따여, 이 사람은 그러한 사실을 알기도 전에 죽을 것이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 사실을 사실대로 바르게 알 수 있는 원리는 생겨나지 않는다. 모양이 생겨나기 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왜 본질은 시작이 없고 끝이 없는지 아는 것이다.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개념적으로 잘 접근하더라도 그것은 수박 겉핥기일 뿐이다. 본질은 언어와 모양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념이라는 것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뭇 삶들은 개념 속에 본질이 있다고 생각하여 본질을 개념 속에 가두려 한다. 본질을 흐리는 것은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 시선이 계속 밖을 향함은 안타까운 일이다. 어느 날, 오조 법연 선사는 세 명의 제자와 밤길을 걷고 있었다. 들고 있던 등불이 갑자기 꺼지자 선사는 제자들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원오 스님은 "발밑을 보라[照顧脚下]"라고 대답했다. 원오 스님은 주어를 생략했다. 이것이 원오 스님이 전달하고자 한 가르침이다. '나[我]' 의 발밑을 보라는 것이 아니다. '나[無]' 가 무엇인지를 잊지 말라는 말씀이다. '나[我]' 가 있고, '나[我]의 것' 이 있고, '나[我]의 존재' 가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나[我]' 에게 필요한 것은 생겨나게 명령하고, 필요 없는 것은 사라지게 명령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도 '나[我]' 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때부터 괴로움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삶이나 수행에서 '주어' 는 존재하지 않는데 뭇 삶은 자신이 주어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믿는다. 주어로 사는 한 '조고각하' 의 뜻은 오리무중이 된다. 어둠과 밝음의 경계를 알 수 있을까? 어디에 점을 찍어야 정확한 경계이겠는가? 몸과 마음으로 인식하려고 하면 벌써 견해에 빠져버린 것이다. 경계를 구분하려는 그 한 생각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림자임을 알아야 한다. 그림자를 알게 되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보고 듣고 알고 하였던 모든 것들이 그림자의 관념이지, 사실은 나타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거짓을 거짓으로 아는 마음이 바로 성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본질을 아는 것은 오온이 가지고 있는 감각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 감각이 일어나면 본질을 알지 못하게 하는 장벽을 만드는 것과 같다. 물론 생각과 감각이 아니면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냐고 반문하겠지만, 이 생각이 본질을 가리는 가장 큰 장벽이라는 것을 파악해야 한다. 물질은 거짓[幻]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그것이 거짓[幻]으로 만들어진 것을 모를 뿐이다.

작가가 언어로, 화가가 물감으로, 음악가가 음표로, 도공이 흙으로 작품을 만든다. 이들이 처음 시도할 때의 마음과 끝날 때의 마음이 일치하는 것이 가능할까? 진행 과정에서 수정하고 변화하고 빼고 넣고를 수 없이 반복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어도 보는 사람에 따라, 시대에 따라 수많은 견해가 생겨나고 사라진다. 박물관의 전시품들은 처음 만들고자 하는 사람의 의도와는 다른 '무엇' 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전시품들은 지금 사람들의 견해로 평가될 뿐이지, 그 처음과 같은 견해는 분명 아닐 것이다. 뭇 삶의 사대오온도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과 비슷하다. 과거로부터 흘러온 것을 지금의 견해로서 보고 있으니 "우연히 맞을 수 있는 것이 있겠지"하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지금 견해에서의 착각이지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보이고 들리는 것은 과거이다. 과거는 진실이 아닌 견해로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사대오온에 지금이라는 것은 나타날 수 없음을 알 때, 모든 근심에서 풀려난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상담환영합니다!

빙의제거와 신기운 제거는 최고 전문가(빙의 전문의)를 만나야 문제 해결이 됩니다!!

[상담대상]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가지 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가지 신체적 장애,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킵니다.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 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리하고 똑똑했던 자녀가 어느 시점 이후 갑자기 학습능력 저하, 우울증 걸리고 방콕하고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연예인, 연극인, 영화배우, 탈렌트, 가수등 마음이 여리고 순수하고 감정, 감성 중심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빙의와 신기운에 잘 접속되고 벗어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인생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예 : 만성우울증, 가위눌림, 불면증, 공황장애, 공포증, 불안장애등에는 반드시 빙의가 접속되어 있습니다!)
◉ 다 그런건 아니지만 직업상 시신을 자주 접하는 사건 현장 담당 경찰업무 하신분, 119대원, 소방업무 종사자, 장례식장 종사자 등 심약하신 분들은 빙의에 접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 가위눌림, 악몽자주꿈, 불면증, 망자가 꿈에 자주 나타나는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 몸이 무겁고, 만성 피로감등)
◉ 이상행동, 어느 시점 이후 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등
◉ 희귀병 (병원에서 낫지 않은), 조현병, 분노조절장애는 100% 빙의로 인한 것입니다! (감정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직업상 묘이장, 파묘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 건강이상, 정신이상 증세, 가정불화(의처증, 의부증 심함), 잦은 우환,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여러번 천도재, 굿해도 효과 못보신 분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 (환자직접 오지않아도 됨) ⇨ 최고 전문가만 가능
◉ 문제해결, 증상해결 중심으로 상담 ◉ 전생빙의치유, 마스터과정수료
◉ 20여년 빙의, 신기운 천도 경력 노하우 갖춤
◉ 증세가 오래 되었거나 심한 경우는 일정기간 간격을 두고 천도정성과 사후 관리를 꾸준히 받으면서 가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원격사후관리 가능)

※ 전화 ·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제주불교금강선원 (빙의천도, 신기운천도 전문 상담원) ☎ 064-746-0789 오시는길 :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 3층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4만원/회 ◆가로 8㎝: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408호 | 17 | 전면광고

여러 악한 종류에 무리들이 많지 않게 하며 모든 악이 다하고 스러져서 스스로 사람을 여의게 하며 모든 악한 생각들은 생각함이 없게 하며 가령 이렇게만 된다면 누가 세간을 즐기지 않으리까.



부처님 말씀 읽기 - 《수행본기경 출가품》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과정 모집 •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울산태화영산회 회원모집

❖ 제1기생 학인모집 00명
❖ 수료후 영산회 회원 가입 자격 부여
❖ 작법무 천수바라 서울 소리 범음 범패
❖ 각종 사찰 행사 전담 문의
❖ 승속 종단 불문 가입, 재가불자 가입가능
❖ 교육기간 6개월 교육비 무료

010-9190-5896
010-4147-1999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영통철학 1개월 완성

◈ 1주일에 1회 개별 책임교육
◈ 불교 비급전수
◈ 3주후부터 상담가능

정 광 합장
(동국대 대학원 석사졸업)

전화 010-3936-2295

16나한님 모셔갈 분

연식이 오래된 것입니다.

❋ 대구지역 ❋
2천6백만원 (절충가능)

010-5003-1899



추천 - 책이름 검색 해보세요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지역

010-8721-2198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 행자 하실 분 모십니다.

010-2078-9595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부산시 강서구 보시는 상담후 결정

010-3570-0144

우주광명 「누진통」「천안통」 시공을 초월한 수행법

단 한시간이면 업장소멸, 번뇌가 사라져 무상무념이 되고 해탈이 되어 매일 선정과 삼매에 들어 깨달음을 이루고 병고액난의 고통과 삼악도에서 벗어날수 있음.

일광 합장 010-3586-6091

"영험약수"로 힐링(치유)가능

◈ 효능 : 변비, 오십견, 몸 아프신 분 ◈
◈ 식약청 46가지 검증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적천리 113 미륵암
지평대사 : 033-336-2309 / 010-4804-2309
※ 몸 아프신 분들 천도재 해드립니다.
※ 땅 양도 안되시는 분들은 연락주십시오.

사주명리, 상담 가능한 "비구니스님 및 보살님" 특별대우로 모십니다.

대전시내 중심 원광사 ◈ 출가자 상담환영 ◈

042)252-2034, 010-3422-3232

- 장기간 공양주 하실 분, 부부 환영
- 충청북도와 강원도 경계에 공기 좋고 경치, 교통 좋은 사찰내에서 요양원 운영할 분
- 장기간 부전이나 절을 운영할 스님

연락처 010-8945-1424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한 쉼터

빙의, 신병, 우울증, 불면증, 화병, 중독, 스트레스, 가정 · 사업문제, 심령치유, 금식기도, 장기요양

❋ 마음치유 · 심신수련 · 쉼 터 ❋

땅끝마을 청정지 해남 견성원에서 새로운 삶의 기운을 받아 가세요!
견성원 문의전화 010-8208-7836

전생에 "도선국사"

샛별을 보고 득력, 1년에 햇무리 무지개가 30일 이상 뜹니다. 음택, 양택, 명당 한자리를 찾아주면 햇무리 무지개가 뜹니다. 마곡사, 보리암, 연주암 같은 명당은 전국에 80여 군데나 비어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충남 계룡산 신도안으로 이전하면 국운상승, 남북통일이 2030년 안으로 됩니다.

기축생 경력 35년 관상 이무기상 청룡당 남 원명스님 합장

(부산) 전화 : 010-4413-3377

관상(손금) 성철 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묘터 물 찬곳, 암,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상, 배우자가 일찍 죽을상
- 스님, 무속인, 법사, 무당, 공무원, 일반인 특별개인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성명학, 사주명리, 손금, 구성학
- 신을 받았어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 빙의로 몸이 항상 아프신 분

상담문의 010-4014-8822 타로 특별 비법 지도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상술 비법 전문지도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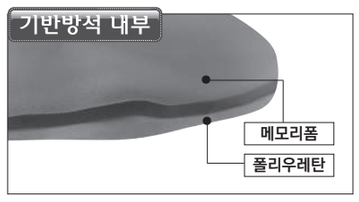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 계 최 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로즈마리
판매가 : 15,000원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10월 19일 수요일 | 불기 2566년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08호 | 18 | 전면광고

인자하여 생물을 죽이지 않고 말을 삼가고
마음을 지키면 거기는 죽음이 없는 곳,
어디를 가나 근심 없으리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법구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부지 : 45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및 주차가능
◎ 가액 : 25억원

◎ 위치 : 부산
◎ 부지 : 110평
◎ 건평 : 약100평
◎ 산 및, 주차가능
◎ 가액 : 8억 5천만원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천년사찰터 다량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안내 가람

- 경남 사천 넓은 도량 사찰입니다.
- 부지 총면적 : 54,944㎡(16,620평)
- 건물 총면적 : 269.95㎡(81평)
- 가액 : 15억원

사진은 인터넷 검색창 "사찰양도안내가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10-8980-4789
다래공인중개사사무소 : 서울중랑구 봉우재로203-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공기 맑고 아늑한 절
- 잡종지 내의 대지 143평
- 가액 : 1억2천5백만원(조정 가능)
- 노스님 몸 아픈 관계로 급양도
- 가전제품 보시 ●당일법회 가능
- 현재 운영중입니다.
- 법사님, 보살님도 환영합니다.

010-4180-17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상운면 내 산세, 경치, 공기 맑고 수련하기 최고
- 부지 : 1400평(봉화 시내버스 다님)도로옆
- 대지 : 200평(마당 강자갈, 주차 15대)
- 법당 15평, 산신각 6평, 정자, 그네, 요사채 25평, 콘크리트 건물, 큰거실, 큰방2개, 수리완벽, 지하수, 집기보시
- 가액 : 2억5천만원

010-7144-7846

사찰전세안내

- 감곡사찰 1,000평 전세
- 감곡전철 10분 거리
- 청주사찰 전세 9층 건물 중 6, 7층 각100평

010-5883-2255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 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앞산(큰도로변 2층)
- 사찰 이전관계로 급 임대
- 보증금 : 3천만원 월 : 110만원(부가세포함)
- 시설비 상담후 조정

010-6302-3823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익산시 (시내에서10분거리)
- 대지 : 종교부지 500평, 밭포함, 약 1000평
- 건물, 법당, 산신각, 요사채 (현대식건물), 법당 집기 일체 포함
- 가액 : 4억5천만원

010-5581-3081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시 산외면 금곡4길 68-81 (603번지) ●대지 : 700평 외 전(실사용 천평) ●건물 : 법당, 산신각, 칠성각, 용왕당 ●요사채 : 황토방 2동, 슬라브 2동, 해우소 1동(문 5개) ●유실수 다량 ●따뜻한 남향, 도로 포장, 차량진입, 주차장(10대), 주변에 개발지역 ●가액 : 5억원

010-9203-1165
010-9564-1165

지리산 명당터 안내

- 위치 : 산청군 단성면 청계리 소재
- 대지 종교부지 전 임야 총 16,000평 택지개발 3,000평 분할매도 가능
- 건물 36평 2동, 8평 2동, 지리산 웅석봉 아래 백두대간 정혈 큰터, 청계호수를 바라보는 정남향 절경
- 답사 상담 협의 후 가격 결정

010-4752-0459

사 찰 안 내

- 위치 : 양산 물금신도시
- 사용대지 : 250평 중 개인땅 93평
- 산속에 아담한 암자
- 가액 : 3억5천만원

010-3497-1471

사찰(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소재
- 대지600평, 법당, 산신각, 요사채 2동,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 스님 노환으로 급 양도
- 시내 인접, 집기 무료 제공
- 가액은 상담 후 결정

010-2366-2821

사찰(3,4복층)안내

- 위치 : 김해시 내외로11번길 3-19
- 3층 : 넓은 법당(옥향로, 촛대, 공양기) 시설완벽, 스님방, 넓은주방, 화장실
- 4층 : 아주 큰방1, 작은방2(살림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법당 시설비 일체 : 1천5백만원
- 비품 일체(5백만원상당) 무료제공
- 스님 몸만 오시면 바로 법회 가능

010-5458-2955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명당터, 경관좋음
- 대지 : 1,239평, 주차 약 30대, 앞에 큰 도로, 버스정류장 약 300m
- 1층 요사채, 2층 법당, 삼성각, 원주시청, 충주시청, 문막읍 약 20km
- 가액 : 7억5천만원
- 답사하실 분만 전화 요망

010-5371-5567

임법당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북부지역
- 대지 : 326평, 본채40평, 별채40평, 공양간10평, 큰창고 2개, 방7, 욕실3, 화장실 4, 산신각, 지장전
- 가액 : 4억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2008-037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상대동 3층중 2층
- 법당34평, 삼존불, 신중탱화, 산신당, 방1개, 화장실
- 보증금 5백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천5백만원(절충가능)
- 몸만 오시면 됨

010-7476-9002

멋진사찰(급급)안내

-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 대지 : 약 173평
- 건물 : 법당 1동 25평(단청) 산신각 1동 약 4~5평
- 요사채 : 1동 약 23평, 1동 약 25평, 2층 약 6평
- 가액 : 3억2천만원에서 5천만원 빼드림

010-4999-562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원주시 흥업면 연세대학교 근교
- 2층중 2층 30평, 법당30평, 삼존불, 신중탱화, 지장탱화, 방1, 욕실겸 화장실, 옥상, 산신각2평
- 보증금 5백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0-4799-5699

부산 포교원(급)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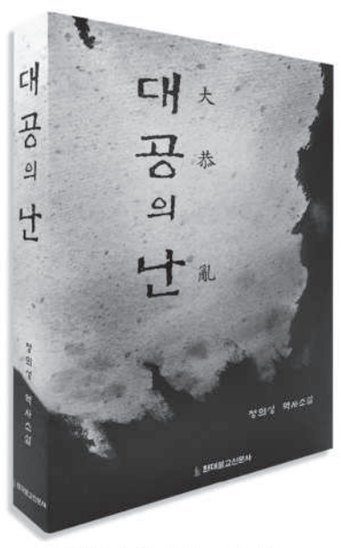
- 위치 : 온천장 시장 바로 인근
- 2층 약50평(방, 친견실)
- 시설비 3천2백만원 (2개월전 완전수리)
- 보증금 2천만원, 월 70만원
- 개인사정으로 급 양도

010-5511-7000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소재
- 대지 1600평
- 건평 100평(대웅전, 요사채, 사무실)
- 산세 수려한 청정지역
- 주차장 완비
- 가액 : 12억원(절충가능)

010-2857-2811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 ⇨19,800원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구입문의 — 02)732-1520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218쪽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292쪽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 - 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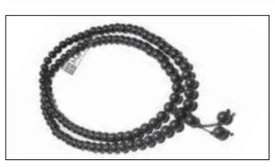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 15,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엽 스님의
자연힐링차
⑲ 한방차의 좋은 점 1

차, 단순한 음료 아닌 건강 필수품

'차' 라는 단어는 옛날부터 매우 친숙한 단어였다. 남녀노소, 신분의 귀천을 떠나 한국인들의 일상에서 흔히 마시는 음료였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을 '다반사(茶飯事)' 라고 했다. 이제는 '다반사' 라는 뜻을 생각하며 계절의 변화 속에서 마시기만 하여도 질병이 치료가 되는 한국의 우리 약차를 소개하고자 한다. 다반사라는 단어를 커피에 빼앗긴 지 오래되었지만 서서히 젊은 층도 건강에 좋은 음료를 찾고 상담을 원하는 걸 보면서 다시 혁명적으로 우리 차에 집중할 것이라는 희망을 느낀다. 한방이라는 것은 5천년에 걸쳐 경험과 체험에 의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것으로 과학적 증거와 데이터가 축적되어 이제는 일반화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로 인해 한방차의 인지도와 차를 마시고난 후 경험담과 임상들이 신비로운 약차의 보감으로 누적되고 있다. 한방은 개인의 체질과 주어진 자연의 변화와 환경을 중시한다. 체질을 개선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흐트러진 기운을 보강한다. 한방은 약뿐만 아니라 음식과 테라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한방차는 먼저 체질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여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준다. 우리는 물처럼 차를 마시면서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행복한 선물을 이미 가지고 있다. 자기 몸에 맞는 한방차를 만들어 물을 마시듯 따뜻하게 마시기만 하면 질병 해결에 도움이 된다. 필자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 확신한다.

그럼 이제부터 자세히 약차의 재료인 약초와 약재의 효능을 알아보고자 한다. 가을 시골길을 운전을 하면서 지나다보면 노란 국화를 볼 수 있다. 바로 감국이다. 감국은 간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며 신경계를 편안하게 한다. 또한 당귀와 구기자는 눈을 밝게 해주며 눈의 열을 없애준다. 그리고 두통을 치료하고 해독제 역할을 한다. 갱년기를 지난 사람이나 40, 50세가 넘은 사람들의 혈관에는 콜레스테롤이라는 노폐물이 쌓인다.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비결은 몸속의 활성산소와 콜레스테롤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모든 병원에서 심장질환과 뇌질환의 주범으로 콜레스테롤을 지목한다. 3가지의 약차를 법제를 잘하여 따뜻하게 꾸준히 마시면 눈의 충혈과 눈이 붓는 것,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막아 준다. 식사를 매일 하므로 쌓이는 혈관 속 노폐물에 우리의 혈관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식사 후 50분에는 반드시 차를 마실 것을 권한다. 밥을 먹고 난 후 밥그릇을 청소하듯 우리 혈관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는 일이 바로 따뜻한 차를 마시는 일이다.

지금 설명하는 차는 기력이 없고 피로로 인해 입맛이 없고 입이 자주 마르고 열이 나는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 권한다. 열이 난다는 것은 혈액과 몸 안에 염증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한방차에서 이야기하는 생맥산차는 인삼과 맥문동 오미자 산수유등을 넣어 만든다. 이 한방차를 오랫동안 마시게 되면 피로를 모르고 피부에 탄력이 생겨 항상 젊음을 유지하게 도와준다. 그런데 모든 일에는 정진력이 필요하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생체의 리듬과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보충해주어야 한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스님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 피부도 좋고 건강해보이며 늘 좋은 에너지가 넘친다"고 한다. 모든 이유는 한결같이 다양한 약차를 만들어 마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안경을 쓰지 않고, 좋은 시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바로 한방차를 꾸준히 마시기 때문이다.

요즘은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다. 원인 중 하나는 카페인을 과다하게 마시기 때문이다. 과다한 카페인이 중추신경을 자극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불면증에 효과가 있는 한방차가 있다. 바로 상추와 산조인이다. 이 차는 신경을 안정시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며 잠을 못 이루는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 여름을 지난 상추는 대가 튼실하게 자란다. 사찰에서는 상추대를 두들겨서 부침개를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상추쌈을 많이 먹으면 잠이 잘 온다고 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상추쌈을 자주 먹지 말라고 할 정도로 상추에는 잠을 잘 오게 하는 성분이 들어 있다. 그리고 산조인은 한의원에서도 불면증을 치료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약재로 알려져 있다. 요즘같이 불면증이 많은 현대인들에게는 필수로 차를 즐기면 좋을 듯하다. 옛 어른들은 밥 잘 먹고 잘 배출하고 잠 잘 자는 일을 보약을 먹는 것과 같다고 했다.


한방차의 재료가 되는 약재들

한국의 요즘 음식은 서구화가 이미 다 되었다. 어디를 가도 커피와 빵과 샐러드 그리고 육식의 스테이크문화 과당 진한 탄산음료들로 인해 위가 약해져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속이 더부룩하고 허약한 사람들이 많다. 한방차는 몸을 보호하고 비장과 위장을 튼튼하게 하며 위의 활동을 도와주고 비위가 냉해지며 몸이 냉한 것을 막아준다. 비장은 피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비장을 상하게 하는 잘못된 음식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음식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의 피는 몸을 상하게 하는 저질의 피를 생산한다고 느껴야 한다. 자연의 한방차에 들어 있는 성분은 오장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면역계와 혈액의 생성 자체를 건강하게 해 우리 몸을 순환시킨다. 입맛이 없을 때 구미를 돋아주고 갈증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며 위장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마시면 건강한 소화기인 위장을 도와준다. 산약과 백출은 비장을 보호하고 인삼은 냉한 비위를 덥혀주며 위의 활동이 부족한 것을 도와주게 되며 계피는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다.

〈체질별약차 전문점 마음정원 대표〉



박주용의
소금&건강
⑲ 현대병과 활성산소 그리고 소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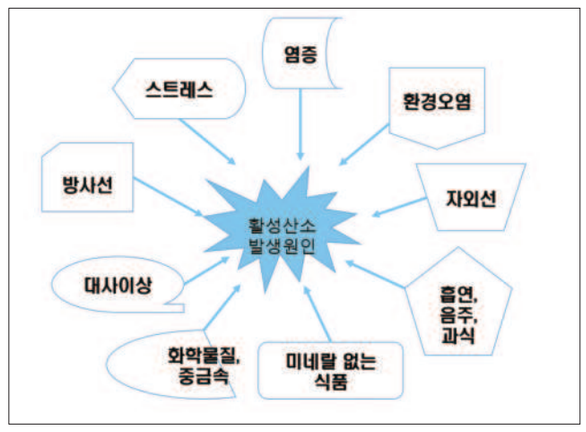
미네랄 부족, 현대 질병 원인

아픈 사람도 많고 질병의 종류도 많다. 현대병으로 이야기되는 질병으로는 많은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는 아토피성 피부염, 전 인류가 공포를 느끼는 암을 비롯하여 두드러기, 원형탈모,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전립선 비대증, 통풍, 고혈압, 부정맥, 심장질환, 부전증, 치매 등을 들 수 있다. 병명을 나열하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질병들로 인해 인류가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질병들이 완전히 극복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학이 밝혀낸 인류의 많은 질병의 원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를 든다면 '활성산소' 이다. 사람의 몸에는 산소를 호흡할 때마다 부산물로 활성산소(ROS-Reactive Oxygen Species)가 생기게 된다. 이 활성산소에는 슈퍼옥사이드라디칼, 하이드록시라디칼, 과산화수소, 일중항산소 등이 있는데 이들은 반응성이 매우 높아서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과 반응해 인체를 산화시킴으로서 파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 활동 정도는 상당히 심해서 만성질환의 거의 90%가 활성산소와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될 정도다. 우리 몸에서 생산된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 조직, 기관을 손상시킴으로써 노화를 촉진하고 만성피로, 심혈관질환, 신경질환, 암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기존의 질병을 악화시키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활성산소가 구체적으로 몸에 해를 끼치는 활동을 예를 들어 보면 호르몬의 균형을 깨뜨리기도 하고, 폴립 등을 만들어 세포 변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만들기도 하며, 유전자에 상처를 입혀 세포 기능을 파괴하기도 하고, 조직 세포를 공격하여 노화를 촉진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활성산소는 왜 생기는 것일까?

활성산소는 몸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몸이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즉 산소를 활용하여 몸의 에너지를 만들 때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불가피한 산물이다. 물론 우리 몸은 활성산소의 나쁜 점을 잘 알고 있기에 그에 대한 대비책 또한 훌륭하게 세워놓고 있다. 그것이 바로 'SOD(Superoxide dismutase - 슈퍼옥사이드 디스무타아제)' 이다. 활성산소를 무력화시키는 항산화 방어체계 중 가장 상위에 있는 SOD는 활성산소와 반응하여 다른 항산화 효소 및 항산화 물질이 질서있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SOD는 항상 체내에 존재하여 산화와 항산화의 균형을 유지한다. SOD의 활성이 떨어지면 활성산소를 제거하지 못하여 노화 및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된다.

과학의 진보로 인해서 구리, 아연, 망간, 마그네슘, 철, 셀렌 등이 활성산소를 소거하는 효소의 파트너로서의 보좌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철, 구리, 아연, 망간, 셀렌 등은 SOD 효소의 구성 원료다. 산소를 태워 에너지를 만드는 세포인 미토콘드리아에는 망간을 포함한 SOD 효소가 들어있다. 그 밖에 활성산소의 하나인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효소인 카탈라아제에는 철, 망간, 구리가 들어있고, 글루타치온 페르옥시타아제 효소에는 셀렌이 들어 있다. 따라서 이들 미네랄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들 미네랄과 미네랄을 원료로 만들어진 효소가 총동원될 때 우리 몸을 활성산소로부터 지켜질 수 있다. 미량미네랄이 부족하다면, 흡수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몸은 활성산소에 의해 더욱 급속하게 망가지게 된다.



활성산소 발생원인

미국 농무부 보고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경우 90%가 미네랄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경우는 성인의 80%가 마그네슘 결핍 증세를 보인다는 충격적인 보고도 있다. 섭취하는 야채에서 미네랄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식품 가공 정도가 점점 심해짐에 따라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미네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소금 또한 미네랄 없는 소금의 섭취로 인해 그나마 먹던 미네랄도 먹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미네랄 부족을 만들고 우리를 현대 질병으로 내몰고 있다.

1936년에 작성된 미국 국회 상원 문서 264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우리의 농토와 강호, 토양은 미네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먹는 사람들은 미네랄 결핍증에 걸린다. 따라서 이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려면 미네랄 보조식품을 섭취해야 한다."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다. 당시 선진국들은 화학비료에 의지하는 농사를 시작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토양에서 미네랄이 이미 사라진 것이다. 화학비료는 소위 N, P, K 즉 질소, 인, 칼륨을 말한다. 이 세 가지 비료 즉 질소, 인, 칼륨을 여러 가지의 비율로 배합해서 뿌리면 수확량이 늘어난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수많은 미네랄은 질소, 인, 칼륨만이 아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수많은 종류의 미네랄은 비료로 공급되지 않는다. 그런 모든 미네랄을 함유한 비료는 없다. 있다고 해도 가격이 비쌀 것이고 비싼 미네랄을 농토에 뿌려봤자 눈에 띄게 수확량이 늘어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농부들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화학비료만을 사용하면 농작물을 수확할 때마다 농작물이 토양에서 미네랄을 흡수해가기 때문에 그 농토의 미네랄 고갈은 5년 내지 10년 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 결과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이전에 미네랄 섭취 부족국가가 된 것이다. 현대 질병에서 벗어나려면 바다의 미네랄이 그대로 든 소금을 통해 미네랄을 고르게 먹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주)오씨아드 이사〉

일일시호일

응급 수술 받았지만
심장 구멍 다시 뚫려 생명 위험

스리랑카에서 온 산지와씨 염색공장에서 10년간 일해
의식 잃고 쓰러져 응급실행…청구된 병원비만 2200만원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마음책 다시 읽기

스님의 그림자 5 고통의 체험

▶ **한줄 요약**
부모님을 비롯한 다른 이들이 앞서 비슷한 고통을 겪고 이를 극복했음을 느끼면, 감사의 마음과 함께 자연스럽게 고통이 극복된다.

고통을 이기는 힘 '감사의 마음'



고통 주원인 '내면 불안'
감사함 자각서 극복시작
부모에 대한 감사 명상
고통 경감, 행복 가져와

고통을 무척 싫어해

아카데미에서 처음 며칠은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어서 새벽에 몇 번씩 깼다. 오전 수업은 대부분 7시 즈음 시작하는데, 그날은 5시도 안 되어서 명상홀로 갔다. 입술이 터진 것을 보니 뭔가 불편하고 힘든 것 같은데, 의식은 그렇지 않았다.

나는 아카데미에 도착하고 일주일간 혼자 호텔방을 사용했다. 경험이 많은 다른 일행들은 축복이라며 부러워했지만, 나는 약간의 불안과 소외감을 느꼈다. 혼자 넓은 방을 사용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언어가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했고, 혼자라서 외로웠다. 이것은 내가 아주 싫어하는 감정인데, 이것을 다시 체험하도록 한 것일까! 피하고 싶은 불편한 감정과 다시 마주 할 수밖에 없는 기회가 생겼으나, 접촉하기보다는 없애고 싶었다. 나는 내면의 본성과 접촉한 적이 있었으나, 완전히 연결된 느낌을 갖지는 못한 상태였다.

선생님은 저녁 명상 수업 시간에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올라오는 감정만 표현하도록 우리를 이끌었다. 그런데 내 머릿속엔 자꾸만 통역이 맘에 들지 않아 통역사에게 화가 났고, 다리가 아프니까 짜증이 올라와 소리를 질러댔다. 선생님은 몸을 움직이지 말라는 안내를 계속해서 했다. 한참 지나, 나는 속으로 '내가 졌어!', '내가 항복이야!' 라며 다리를 움직여버렸다.

다리 통증이 너무 싫었고, 그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그때 진정으로 내가 고통을 무척 싫어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통과 함께 있기보다 없애고 싶었다. 짜증, 화, 분노상태에서 복종, 항복 등이 연상되었다. 참여자들이 처음에는 웃는 사람이 많았으나, 점점 소리를 지르는 쪽으로 변해 갔다.

명상(사다나 sadhana) 자세를 취하는데 왜 그리 눈물이 나는지, 눈물의 의미도 모른 채 울었다. 시간이 한참 흘러 몸을 자유롭게 하는 춤을 추도록 했다. 즐겁고 신났다. 나는 이런 춤을 추고 싶어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듯, 춤은 자연스러웠고 몸은 유연했다.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며 그날 밤 깊은 잠에 빠졌다.

아침 요가 시간이었다. 며칠 동안 요가를 했으니, 순서와 방법을 알 거라며, 통역사 자신도 요가를 하겠다며, 그래서 통역을 안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

'난 아직 순서를 못 외웠는데!' '이 요가는 눈을 감고 하라는데?' '미친년! 누구 맘대로!' 나는 순간 화가 나서 속으로 욕을 해 버렸다. 세상에 내가 욕을! 나는 통역비를 지불했기 때문에 정당하게 통역서비스를 받고 싶었다. 게다가 수신기는 일방적으로 듣는 기능밖에 없어서 요가 시간 동안에는 건의를 할 수도 없었다.

요가 시간을 마치고 노트를 챙기려고 명상 홀로 가는 길이었다. 일행 한 사람이 다가와 내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나는 그녀에게 "위안이 돼요"라고 말하자 그녀가 나를 안아주었다. 그렇게 한참 있으니 눈물이 났다. 서러움일까!

통역에 대한 불만으로 화가 나 있던 상태에다가, 영어를 못하는 서러움과 더불어 스님이라는 체면 때문에 항의도 하지 못하고 괜찮은 척하면서 무척 속상한 상태였다. 그녀는 나를 어루만져 주었는데, 이때까지 나는 나 자신을 돌보고 어루만지는 법을 몰랐다.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면에 있는 프로그램을 관찰하는 강력한 명상을 했다. 선생님은 마인드가 생각하지 못하도록 정보를 주지 않았고, 빠른 풀무호흡(풀무질하듯이 급격하게 숨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을 하도록 이끌었다.

"자신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봐야만 하고, 고통은 경험해야 다시 똑같은 상처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상처를 갖고 있으면 타인에게 관심을 갖지 못해요. 갈등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자각해야 합니다."

선생님은 우리가 자신의 상처에 가 닿을 수 있도록 밀어붙였다. 아카데미에서 느꼈던 내 내면의 두려움은 이러했다.

'이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으면 어떡하지!' '전세방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면 어떡하지!' '사랑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계속 시간 강사만 하면 어떡하지!'

내 의식은 두려움으로 물들어 있었다. 여전히 내면에는 미래와 관련된 불안이 재잘거렸다. 어릴 때 생긴 분리불안으로 인한 두려움은 내 삶의 전반에 드러났다. 예컨대, '버림받으면 어떡하지!'라는 강력한 무의식의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나는 남자친구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살았다.

강력한 명상 중에 두 팔과 몸통까지 내 몸이 아닌 것같이 전파가 흐르듯 찌릿찌릿했고 내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다. 그 와중에 계속 드는 생각은 '저 우마지-삼매 상태에서 6년동안 머물렀다는 바가반의 수승한 제자-선생님의 호흡은 녹음인가? 실제로 그렇게 강하게 하는 건가? 녹음한 거겠지? 그런데 너무 자연스러운데?' 하는 의심이 끊임없이 올라왔다. 선생님은 어떤 감정이든지 허용하고, 그 감정을 경험하라고, 무언가를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감각을 느끼고, 그 감정을 내보내라고 밀어붙였다.

강력한 호흡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나 참았는데, 조금 춥게 느껴졌다. 이때 과거 생인지, 미래생인지 알 수 없으나,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법문하는 장면을 보았다. 나는 신망을 얻은 능력 있는 설법가로서 대중 앞에서 차분하게 설법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오늘의 경험에 대해 우주지성 아미타불에게 감사의 기도를 하는 시간에, 나는 짜증이 올라왔다. 엄청 힘겹고 피곤할 때 짓는 표정이 저절로 지어졌다. 대체로 불만족에다가 하나도 즐겁지 않았다.

한편, 나는 햇살이 쏟아지는 양지바른 곳에서 작은 보라색 꽃들이 무더기로 피어 있는 모습을 보았다. 선생님은 웃음보가 터져 말을 제대로 맺지 못할 정도였고, 사람들도 크게 웃었다. 나는 웃음의 의미를 몰라 싱숭생숭했다.

다음날 질의응답 시간에 선생님은 "우리가 의식이기 때문에, 의식이 확장되면 기쁩니다." "아이들은 즐거운데 그 이유는 계속 성장하기 때문입니다"고 말했다.

내 무의식의 프로그램은 불안과 불신 그리고 화와 불만족인 것 같았다. 지금까지의 노력으로 알고는 있으면서도 저항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체험해야만 했다.

감사함을 모른다

'달래서 얻더라도 적게 여기며, 더 주어도 항상 부족하게 생각하며, 백 번 달래서 백 번 주어도 은혜를 생각지 않으며, 한번만 마음에 쾌하지 않아도 문득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자비도량참법〉 5권

나는 매일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뭔가 더 경험하고 싶어서 부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선생님이 '어제 했던 체험에 대해 경험을 나눠달라' 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신비로운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나는 계속해서 손을 들었으나,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 차례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다. 내가 자꾸만 손을 번쩍 들었던 것을 기억한 쿠마지-아카데미의 우수지도자-선생님이 한참 후에 나를 지목했다. 나는 어제 아무런 감사함이 일어나지 않았고 즐겁지도 않았다고 고백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선생님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평소에 '감사함을 모르고 산다' 며 예를 들었다.

"아내가 바라는 것을 남편에게 열 가지 이야기했다고 합시다. 남편이 아홉 개를 해주면, 부인은 받지 못한 한 개를 말해요. 인간은 만족하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함과 함께 있으면 빨리 성장합니다. 말로만 '감사하다' 고 말해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자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얼마나 감사함이 없는지부터 시작해야 해요. 그래야 감사함이 생깁니다. 감사함이 있다면, 감사함이 있다고 증명할 필요도 없지요."

선생님은 우리가 부모님, 파트너, 친구, 우주지성에게 얼마나 감사함을 못 느끼고 사는지를 알 수 있도록 명상하는 시간을 주었다. 나는 그동안 부모님과 부처님 그리고 도반에게 감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생각나서 많이 울었다. 부모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부분은 이러하다.

부모님의 육체적인 · 심리적인 고통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그들의 고통을 느끼지 못했으며, 감사한 마음을 내지도 못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의 육체적인 고통과 외로움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홀로 견딘 것에 대해서도 몰랐다. 부모님이 돈을 아껴 쓰며 모아서 자식들에게 남겨 주려는 마음에 감사할 줄 몰랐다.

시골집에서 춥고 불편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도,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데도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도, 83세(2017년)에도 큰 병 없이 홀로 사는 것에 대해서도, 자식들을 위해 늘 기도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못했다.

나는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 5일째 되는 날 비로소 오길 참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와야 할 곳에 온 것 같았다.

기억하는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을 떠올리며 감사드렸고, 문자로 한국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지인들과 감동을 나누었다. 나를 아카데미에 초대하고 인도에 올 수 있도록 안내해 준 코디에게 감사의 문자를 보내고 긴 통화를 했다. 그녀에게 났던 화가 눈이 녹는 듯 녹았다.

명상 시간에 어제와 비슷한 강력한 체험이 있었는데, 어제와 달리 우마지 선생님의 호흡에 믿음이 갔고 안심이 되었다. 선생님은 참여자들이 강력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호흡을 이끌었는데, 어제 없던 믿음이 오늘은 생겨났다. 선생님의 호흡을 믿는 순간 눈물이 났다. 믿으니 의심이 사라졌고 뒤이어 행복감이 밀려왔다.

강력한 호흡을 하면서 짜증이 나고 힘들 때마다 입 밖으로 크게 소리를 내질렀으며, 부모님의 고단했던 삶의 경험이 떠올라서 그들의 고통을 없애 달라고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나머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떠올리며 고통에서 벗어나고 풍요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드렸다. 그리고 내담자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들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시각화했다. 앉아서 호흡을 했는데도 누워서 했을 때처럼 양쪽 팔과 전신이 전기로 충전된 것 같이 찌릿찌릿했다.

저자 : 효록 스님(운주사)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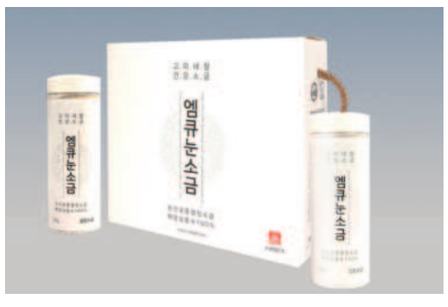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품구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품구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품구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대행 스님

나 자체가 바로 일체 만법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불교라 하는 그 자체가 개별적으로 어디 한 군데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포괄적이면서도 모든 것이 한데 귀결돼서 한 주먹에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체 생명의 근본이 불(佛)이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나 보이는 세상이 전부, 일체가 다 같이 통하고 말하고 돌아가는 그 자체가 교(敎)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란 어느 한 군데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교든 기독교든 알라신교든 힌두교든 어느 교를 막론해 놓고, 거지든 부자든 풀 한 포기든 모두 생명이 있고 또 근원이 있어서, 그게 불이니만큼 불교 안에 모든 종교가, 이름이 거기에 포함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종교 저 종교 따지면서, 내 집 네 집을 따지면서, 내 생명 네 생명을 따지면서 이렇게 가야만 되겠습니까?

부처님이 49년을 설해 주시고 길을 인도하실 때 그 뜻을 바로 일러 주시고 "한 마디도 한 예가 없고 한 걸음도 걸은 예가 없고, 한 말 한 생각도 한 예가 없다." 하신 뜻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잘 생각을 해서, 나 하나만이 독불장군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일체 만물 일체 생명이 다 같이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하고 돌아간다는 그 사실을 명백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우주의, 아니 삼천대천세계의 근본이 인간의 마음에 직결이 돼 있고, 세상만사가 돌아가는 모든 것이 인간의 마음에 가설이 돼 있습니다. 그 가설이 돼 있는 자체는 바로 우리가, 너 나가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둘이 아님을 생각하게 되고, 수억겁 동안 미생물에서부터 쫓고 쫓기고 진화되고 화하고 나투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컬어지죠.

그런데 사람 개개인에게 어떠한 것이 주어져 있는가? 직결돼 있고 가설돼 있는 이 몸에 말입니다. 나 하나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어떤 것도 무효입니다. 어제, 내일, 오늘도 없이 말입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있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상대가 생기고 인연이 생기고 인과가 생기고 윤회가 생기고, 유전성이니 업보성이니 그 모두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를 발견할 것인가. 나에게는 나를 이끌어 가는, 바로 수억겁 전부터 끌고 왔으며 지금까지도 진화시켜 가면서 화해서 돌아가게 하는 나의 주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딴 데다가 상대를 두고서 부처님을 찾는다거나 상대를 두고서 갖은 이름을 다 찾으면서 기도를 한다면 부처님의 마음은 한 치도 꿰뚫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일체 중생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일체 만물만생의 마음을 서로 둘이 아니게 꿰뚫어 보려면 내 집부터 전화를 놔야 됩니다. 내 집부터 전화를 놓지 않는다면 전화를 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체를, 이끌어 가는 나를 똑바로 보라 이겁니다. 나 자체가 바로 일체 만법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체가 없어서 일체제불을 다 한데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삼천대천세계를 다 집어넣는대도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다 꺼낸다 하더라도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나 자신부터 알아야 합니다. 바로 내 마음과 내 육체, 이 자체가 어디로부터 와서 이렇게 내가 끌려다니고 있나 하는 거를 지켜보는 그 자체가 참선인 것입니다. 좌선을 한다, 입선을 한다, 행선을 한다, 와선을 한다 하는 것도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바로 나 자신 주인에 맡겨 놓고 돌아간다면, 그리고 지켜보고 실험하고 체험한다면 그것이 참선인 것입니다.

참선이라는 것도 그러하지마는 이 세상의 마음들을 모두 내놓으라 해도 하나도 내놓을 수가 없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이 없는 것을 기준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붕도 없고 벽도 없는데 문을 찾아서 부처님 도리를 배우려고 한다면 그거는 천만 리 먼 것입니다. 천칠백 공안도 이 세상 돌아가는 데 있고, 천당 지옥도 이 세상 돌아가는 데 있고, 부처님 법도 이 세상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이 지금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로 다 하리까.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중생들이 병이 나아야 내 병이 낫겠다고 한 유마힐 거사의 그 대답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몸속에 있는 수십억의 생명과 의식과 모습이 바로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됐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 수십억의 의식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재 솔솔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를 보면 과거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으며, 현재에 사는 것을 지켜본다면 자기가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인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몸뚱이 속의 업식이, 악업 선업이 뭉쳐서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자기 영혼과 더불어 같이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도 "오신통이 오신통이 아니니라. 네 몸속의 중생들부터 제도하고 네 몸속에서 벗어나야 네 몸뚱이를 굴릴 수 있으며 이 세상 통을 굴릴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느 수좌가 동짓날 팥죽을 쑤는데 그 팥죽 솥에서 팥죽 방울이 끓어서 술술 나오니까 "요것도 문수, 요것도 문수!" 했다는 말은 아마 모르시는 분 없이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자체가 팥죽 솥이라면 수없이 일어나는 그 번뇌 업식이 바로 그 솥에서 나오는 죽 방울이 아니겠습니까. 제 솥에서 제 죽 방울이 일어나는 것이지 딴 솥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을 했다 하면 법이고, 몸을 움죽거렸다 하면 화신이고, 가만히 있으면 부처니 셋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몸속에 있는 모든 업식들이 수없이, 좋게도 나오고 언짢게도 나오고 병고도 나오고 애고도 나오고 화도 일으키고,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일들을 일으키는 것은 모두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진다면 자동 컴퓨터죠. 숙명통이란 자동 컴퓨터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이 모두 오신통은 가지고 있으나 오신통도 도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오신통 속에서 벗어나야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컵을 줄 수 있고 자기도 목마르면 물 한 컵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름해서 누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을 원망하고 남의 탓을 하고, 저 스님은 잘하고 저 스님은 못하고, 또는 저 사람은 잘하고 저 사람은 못하고, 저 사람으로 인해 망했고…, 그러면서 시비를 합니다. 한 가정에 살면서도 "저놈 저렇게 하다가는 깡통이나 차지." 하고 자식 욕을 하거나, 부부지간에도 그러한 문제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이 부처님 법이며 여러분의 법이 부처님 법이지 여러분의 법을 버리고 부처님의 법이 어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타심통이다, 천이통이다, 신족통이다, 천안통이다, 숙명통이다 하는 것도 모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지수화풍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충만히 여러분 앞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발을 붙이고 다니고 통신을 하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기들이 물속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지금 공기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공기에도 중심이 있기 때문에 오선이 있고 오심이 있어서 만법의 기준을 한데 합쳐서 오르고 내리는 데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고기들도 물이 없으면 죽듯이 우리 인간도 공기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지수화풍에게 감사할 줄을 모르고 허무하게만 생각한다 이겁니다. 내 몸뚱이도 지수화풍이라, 그래서 허망하게만 생각할 것도 아니고 또 허망치 않다고 생각할 것도 없고, 모두가 귀중하게 생각을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대로 참다운 부처님 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다 깨쳤다 하더라도 바

☞ 22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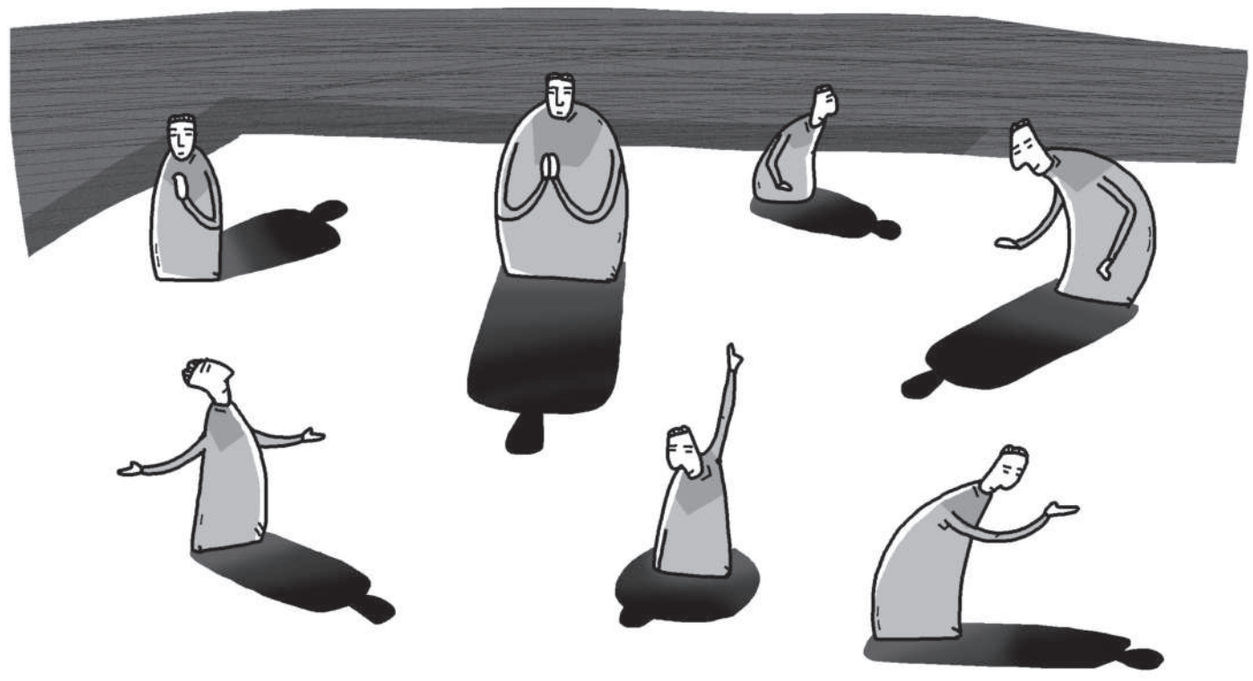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이 세상 만물만생이 자기 아님이 없다

☞ 21면에서 계속

로 한 부처입니다. 부처님은 아니 되시는 게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보!" 하면 금방 남편이 돼서 말도 행도 다 그렇게 나가고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돼서 그렇게 나가듯이 부처님 마음도, 명이 짧아서 애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칠성으로 응해 주시고, 몸이 아파서 애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약사로 응해 주시고, 좋은 데로 못 가서 애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장으로 응해 주시고, 물에 빠져서 허덕이면 용신으로 화해 주시고, 길을 가다가 원하면 지신으로 응해 주시고, 어떠한 병고가 있고 가난해서 염원을 하면 바로 관세음으로 응해 주시고…, 그렇게 원하는 대로 응해 주십니다.

동방에는 아촉으로 이름을 해 놓으시고, 서방에는 아미타로 이름을 해 놓으시고, 사바세계는 관세음으로 이름을 해 놓으시고, 지천국에는 지장으로 이름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기 한마음, 마음에서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이치를 그렇게 이름 지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부처는 하나지 둘이 아니라고 했던 거고 부처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부처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삼재가 들어서 안 되느니, 이사를 가야 할 텐데 손이 있어서 못 가느니, 조상을 모시는데 뭐가 잘못돼서 안 되느니, 모두 이러는데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관습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탁 떼 버리고 내가 가고 싶은 날 이사를 가면 그게 좋은 날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나서 지금 살아나가기도 급급해 죽겠는데 종교마저도 그렇게 거북해서야 어떻게 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게 다 종교입니다. 종교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안방에 들어가시면 자기가 있기 때문에 안방에 부처가 계시고 변소에 가도 자기가 있기 때문에 부처가 계십니다. 법당에 가시면 항상 그 형상은 내 형상이요, 그 마음은 내 마음이요, 그 생명은 내 생명이니 둘이 아닌, 그 진실한 마음으로 일 배를 올려도 만 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 배를 올려도 일 배도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이 모두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렸으니, 마음이란 어마어마하고 너무나 광대무변해서 모두 알 길이 없겠죠. 천당 지옥이다 하는 것도 말로만 알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 본다면 실감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인간세계에 나와서 개같이 살았더랍니다. 그다음 생에 개로 화해서 개 모습을, 무명을 쓰고 나왔죠. 개 모습으로 하고 나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개로 대접을 해 주더라 이겁니다. 개 모습이니까 개 노릇을 해야 하고 개 대접을 받아야죠? 자기가 아무리 사람의 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통은 면할 길이 없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천세계 중천세계 하천세계라고 해 놓은 것은 모든 천차만별의 사생의 그 뜻이 그냥 같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세계라는 것은 체로 거르듯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거르듯이 이렇게 걸러져서 위로 차원이 높아지느냐 아래로 떨어지느냐의 교차로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실에 솔솔 나오는 것은 바로 자동적인 마음의 컴퓨터에 그렇게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되입력을 한다면, 모든 걸 거기다가 방하착 하고 놓는다면, 그리고 거기서만이 이끌 수 있고 '안 되는 것도 법 되는 것도 법이다.' 하고 다 거기다 놓는다면 바로 되입력이 돼서 앞서 입력된 것이 몰락 무너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은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만 알고 혼자 생각하고 아무도 모르게 나쁜 일을 하고 또 속으로 남을 원망하고 욕을 하고 이랬다 해서 혼자만 아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우주와 세상과 직결이 돼 있고 가설이 돼 있다고, 우주간 법계에 가설이 돼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것을 우주간 법계에서 다 알고 있으니 어찌 감추오리까. 이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 세간에서 그런 말들을 하죠? 태교가 참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실천을 못 합니다.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못 하는 원인은 실감이 나질 않기 때문입니다. 실천에 옮겨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 실천으로 돌아가는 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업보성이나 세균성이나 영계성이나 윤회성, 이 모두에 끄달려서 여러분은 고통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이열치열이란 말이 있죠. 자기가 길을 걸어가다 엎드러지면 그 길을 짚고 일어나야지 허공을 허우적거려서 일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상대를 두고서 기도를 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가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모든 것을 공심으로 돌려놓는다면 만 개가 있어도 하나요, 또 하나가 있어도 만 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 놓은 대로 일일이 각각 찾고 돌아다니니 자기 마음은 언제 보겠습니까? 보는 대로 자기 아님이 없고 이 세상 만물만생이 자기 아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생물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우리 인간이 되기까지, 구름이 모였다가 헤어지고 또 딴 구름하고 모이고 이러듯이, 모두 돌고 돌아서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이렇게 짐승이든 새든 독사든 사람이든 수없이 거푸거푸 돌았기 때문입니다. 돌면서 수없이 거듭거듭 해 온 그 자체가 바로 자기 주인인 것입니다. 주인이 그렇게 끌고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되돌려 놓고 거기를 지켜보는 관을 하시란 말입니다, 관! 지켜보는 관이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세음을 찾을 때 저 높이 올려놓고 찾거나, 주인공을 찾는다 하더라도 둘로 보고 '주인공, 나에게 이런 걸 좀 해 주시오.' 한다면 벌써 이건 어긋나는 겁니다. '주인공만이 할 수 있어! 안 되는 것도 주인공이 한 거니까 되게 할 수 있는 것도 주인공이야!' 하고, 할 수 있다 없다를 다 그냥 거기다가 되돌려 놓고 지켜보고 실험하고 체험하는 그 자체가 바로 참선인 것입니다.

> **할 수 있다 없다를 다 주인공에다 되돌려 놓고**
> **지켜보고 실험하고 체험하는 그 자체가**
> **바로 참선인 것입니다.**

부처가 만 개가 있은들 어떻습니까. 만 개도 하나요 하나도 만 개니, 칠성이다 독성이다 산신이다 약사다 지장이다 하고 따로따로 찾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왜냐. 부처님의 한생각이 문수도 되고 보현도 되고 그러니까요. 한생각을 일으켰다 하면 문수요 한생각을 일으켜서 움죽거렸다 하면 바로 보현입니다.

부처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여러분도 지금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름이 좀 많습니까. 가정에서 금방 형이 됐다가 금방 아버지가 됐다가, 금방 남편이 됐다가 금방 자식이 됐다가, 금방 사위가 됐다가 금방 친구가 됐다가 하고 있고, 또 사회에서의 이름, 안에서의 이름, 그 이름 이름이 좀 많습니까. 지네가 그렇게 많은 다리를 가지고도 걸리지 않고 여여하게 걸어가듯 여러분도 그냥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부처님 법이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이 부처님 법을 그렇게 등한시하고 "아이고, 부처님 법을 어떻게 찾어?" 하든가 또 "난 기독교를 믿으니까 뭐, 불교 그까짓 마구니 소굴." 이렇게 밀쳐 버리고 마는데 그런 거는 정말이지 절대적으로 100%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불교란, 불법이란 어느 한 군데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거를 어떻게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부처라고 했습니다. 즉 가정에서 아버지 노릇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건가요, 남편 노릇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건가요, 또 자식 노릇 할 때 내가 했다고 할까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거든 했다고 할 것이 없다 이겁니다.

또 풀 한 포기, 벌레 하나라도 아니 되시는 게 없습니다. 돼지를 건지시려면 돼지 소굴로 들어가서 응해 주시고, 독사가 염원하면 독사로 화하시고, 찰나찰나 이렇게 화해서 돌아가는데 어떤 거 되실 때 부처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처지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전력이 들어와 있는데도 전깃줄과 전깃줄이, 전자와 전자가 한데 합치지 않는다면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자와 전자가 한데 합치니까 불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불을 누가 켰을까요? 이쪽 줄이 켰을까요, 저쪽 줄이 켰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느 스님한테 덕을 봤다든가 좋은 법을 내가 배웠다 하더라도 내가 했다 네가 했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전깃줄이 했다 할 수도 없고 저 전깃줄이 했다 할 수도 없는 것이 부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 부처님의 법이 법당에 가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법당에 가야만 부처님 법이 있다고 한다면 진리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구는 쉴 사이 없이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데, 그 시공이 없는 진리를 진리 속에서 파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리에 포함돼서 내가 가고 있는데도 앉았다가 일어났다고 하거나 잠시 잠깐 했다고 한다거나 '법당에 가서 이렇게 하고 오니까 참 마음이 편안하더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법당에 갈 때만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어졌다가도 도로 끊어지니까 도루묵이죠, 도루묵. 이어졌다가도 그냥 순식간에 끊어져 버리니까 갔던 것이 무효가 된 거죠.

앉아서 좌선을 해도, 좌선을 한다 안 한다는 이유가 붙으면 좌선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이 좌선이 돼야지 몸뚱이가 좌선이 돼서 되겠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마음이 찰나찰나 돌아가면서 아주 그냥 잠재해 있듯이, 어디서 뇌성벽력이 들어온다, 하늘이 깨져 무너진다, 밥을 굶는다, 생명이 죽어 없어진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움죽거리지 않는 마음을 부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그거를 알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평등공법으로 볼 수 있고 활궁공법으로 볼 수 있고 수레공법으로 볼 수 있으니 말입니다. 또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선지식들께서 "나는 샘물도 젖지 않는다 하리!" 이렇게 말씀하셨던 원인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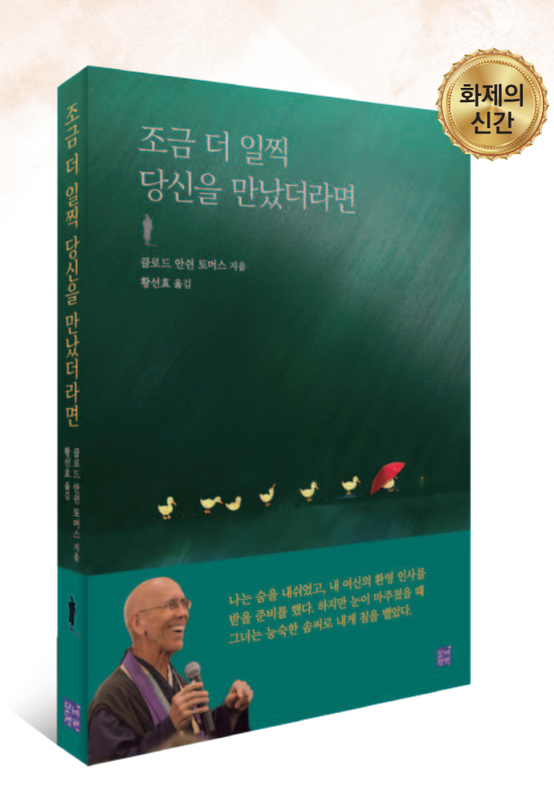
여러분, 생활 속에서 알아 둬야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은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입니다. 외국에 가 보니까 부부가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가정이 많아요. 전체가 다 그래요. 한국에서도 그런 가정이 많죠? 가난해서도 그렇지마는 돈이 있어도 활동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런데 백일기도를 드리러 올라간다면서 목욕재계하고 음식도 모두 가리고 남편도 자식들도 굶주리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부의 잠자리까지도 거부하면서, 아무리 백 일 아니라 천 일을 올라가서 기도를 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중에는 남편은 배가 고파서 주전부리를 하게 되고 애들은 이탈이 되고, 이렇게 되면 가정 파괴가 오고…. 그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모두가 다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부처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한생각이 중요한 것이므로 법당에 자주 나가되 그렇게 끈질기게 노닥거리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구가 기도드리는 백 일만 돌아가나요? 그러면 기도드리고 왔을 때는 지구가 멈춰지겠네요? 한날 한시도, 일 분일초도 떠나지 않는 자체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이것을 '끊어뜨리지 않아야지' 한다면 끊어지는 법이고, 끊어뜨린다 끊어뜨리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없어진다면 그대로 여여한 겁니다. 그래 여북하면 여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처님만 여래가 아니라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여여하게 돌아가는 사람들은 다 여래죠.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2년 11월 1일 국내 지원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

| 현불논단 |

꼴찌 위한 불교 만들자



석길암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학업부터 취업까지 경쟁 만연한
'학력 만능주의' 빠진 한국사회
자녀를 키우고 학생 가르쳐보니
"공부 못해도 똑똑해요" 실감해
꼴찌라도 현명한 학생들이 많아

'학력 만능주의' 이제 걷어내고
韓불교부터 꼴찌들을 품어보자
학력서 벗어나고픈 청년들 모아
본인 가능성 확인 기회 제공을

세상은 다양하다. 다양하다 못해 극과 극을 달리는 이들이 서로 태연하게 부딪히며 살아가는 곳이 세상인 듯도 하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렇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한 줄에 세우는 버릇이 있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그리고 취업까지 모두 한 줄로만 세운다.

늘어세운 한 줄에서 일등을 하는 사람이 있고, 꼴찌를 하는 사람이 있다. 당연히 일등을 하는 사람이 사회에서 살아남기에 좀 더 유리하다. 그래서 내 자식이 그 줄에서 앞 등수를 차지하는 장한 인재이기를 응원한다.

그런데 일등이 있는데 꼴찌가 없겠는가? 일등이 있으려면 반드시 꼴찌가 필요한 법이다. 고백하건데, 나는 수학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한다. 수학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니 굶어죽어도 백번은 굶어 죽어야 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우여곡절 헤매다가 보니, 중간보다 조금 등수가 나은 곳도 있어서 겨우 밥은 먹고 살아간다.

이제 자식을 키우다 보니, 어렸을 때는 절대 안 믿었던 말을 믿게 되었다. "우리 아들이 공부는 못해도 똑똑해요."

예전에는 이 말을 못 믿었다. 그런데 자식을 키우다 보니, 젊은 학생들을 가르치다보니 믿게 되었다. 공부는 못해도 똑똑한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가 없어서 믿게 되었다. 똑똑한 데가 다를 뿐이라는 것을 한참이나 후에 깨닫게 되었다. 이 말에 수긍하는 사람이 아마도 필자만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우리 젊은이들을 학력이라는 하나의 줄에서 앞머리에 세우려고 안간힘을 쓴다. 똑똑한 젊은이들을 데려다 꼴찌를 만들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셈이다. 묻고 싶다. 왜 똑똑한 자식을 잘하는데서 일등 만들지 않고 굳이 꼴찌가 되는 줄에 세우는지?

학력 만능의 사회는 이제 그만 두자. 부모들도 자식들도, 학력 일등이 사회 일등이 되는 것이 아닌 줄을 뻔히 안다. 그러면서도 그 줄의 앞에 세우고 싶은 것은 내 자식이 좀더 쉽게, 고생하지 않고 안정된 삶을 누렸으면 해서일 것이다. 마음은 알지만, 부모도 자식도 더욱 힘들어질 뿐이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다. 불교라도, 우리 불교라도 꼴찌들을 위한 불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꼴찌를 모으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사회가 만들어놓은 학력이라는 한 줄에서 벗어나고 싶은 젊은이들을 위한 대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다. 공부를 지지리도 못하고 자기 이름조차 잊어버리곤 했던 주리반타카도 부처님의 일깨움에 따라서 청소만 하다 아라한과를 성취하지 않았던가?

단 하나의 줄만 세우는 학력사회에서 학력으로 일등 못하는 젊은이를 탓하고 비난할 일이 아니다. 그들이 학력으로는 일등이 아니더라도 정말 좋아서 일등인 곳을 찾아줄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 2600년 동안 불교는 일등이 아닌 꼴찌들을 위해 정말 많은 콘텐츠를 생산해왔다. 줄탁동시(啐啄同時)가 바로 그것이다. 부처님이 제자들을 일깨워왔고, 조사스님들이 제자를 일깨웠던 것이 어디 한두 번이었던가? 불교 전등(傳燈)의 역사가 오롯하게 줄탁동시의 역사이기도 하다. 또 꼴찌를 일등으로 만들어낸 콘텐츠를 재생산해온 역사이기도 하다.

혹시 우리는 그 경험을 역사 속에 묻어버리고 한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는 그 경험들을 끄집어내어서 수많은 꼴찌들을 위해 제공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꼭 하고 싶은 제안이 있다. 꼴찌라고 착각하고 한숨 내쉬기 바쁜 젊은이들에게 멍 때릴 수 있는 공간부터 제공해보자. 멍 때리기 좋은 공간이 우리 불교에는 정말 많다. 공부는 꼴찌라도 똑똑한 젊은이들이 찾아와서 멍 때리기 좋은 곳, 그런 쉼터를 제공하는 데서부터, 우리 불교가 변화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社 說

열암곡 마애불 入佛, 국민과 함께 하자

지난 10월 5일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취임사에서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 바로 세우기를 국민에게 제안했다. 진우 스님의 제안 이후 마애불 입불(入佛)에 대한 여론들이 확산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관련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그간 현상 유지를 통한 보존 · 관리에 중점을 뒀지만, 진우 스님의 대국민 제안 이후에는 마애불 입불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경북도 소재 5개 본사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열암곡 마애불 입불 불사를 '대국민 원력불사'로 만들겠다는 조계종 제37대 집행부의 계획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0월 12일 열암곡 마애불 바로 세우기 불사의 슬로건으로 '천년을 세우다'를 제안하고 국민 성금 모연 등을 통해 대국민적인 불사로 확대할 것도 지시했다고 한다.

경주 남산에는 약 120여 구의 불상이 계곡 곳곳에 산재돼 있다. 일부는 사찰에 봉안돼 있기도 하고, 어떤 불상은 노천에서 경주 일원을 굽어본다. 신라의 민중들이 남산에 수많은 불상을 세운 것은 그들의 수도 서라벌이 불국토이기를 바란 지극한 신심으로 발원이다. 천재지변으로 넘어진 부처님을 세우는 것은 후손들이 해야 할 마땅한 도리이다.

진우 스님이 취임사에서 "아름다운 민족의 문화 자산을 천년이 넘도록 넘어진 채로 방치하는 것은 우리들의 부끄러움이자 직무 유기"라고 지적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선조가 세운 부처님을 다시 일으키는 것, 온 국민이 함께 해야 할 일이다.

18대 중앙종회, 제도적 발전 이끌길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의원 81명이 최종 확정됐다. 새롭게 구성된 18대 중앙종회는 11월 9일 출범할 예정이다. 중앙종회는 종단 입법기구이자 대의기구로서, 종무행정 및 종단 운영에 대한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때문에 37대 집행부가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불교중흥 원력을 함께 이뤄나가기 위한 제도적 정비 등 향후 입법 활동에 대한 책임감이 무겁다.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제도 개선부터 종단 현실에 맞는 종법 실현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무엇보다 이번 중앙종회는 그 어떤 종회보다 화합의 기틀을 갖췄다. 직선직 의원을 선출하는 교구본사 24곳 가운데 19곳이 선거절차 없이 의원을 선출했기 때문이다. 경선을 통한 과열 경쟁을 지양하고 화합을 우선하는 종단 분위기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중앙종회의원 선거는 이후 여러 논란과 후유증을 낳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만큼, 화합으로 선거 없이 당선된 종회의원들이 대폭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평가된다. 동시에 화합으로 출발한 만큼, 더욱 적극적인 입법 활동으로 교구와 종단 발전에 이바지하는 성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해 한국불교의 새로운 중흥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중앙종회 또한 이에 발 맞춰 구시대적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한국불교 발전을 이끌 토대를 굳건히 다지기 위해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종회의원 개개인의 역량과 노력은 물론, 종단 발전을 이루겠다는 확고한 공감대가 필요하다.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면 격렬한 논쟁과 대립도 발전을 향한 디딤돌이기 때문이다. 제18대 중앙종회가 입법활동을 통해 종단 발전의 새 전기를 만들어가길 발원한다.



송마나의
시절인연

적멸의 시간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라는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이다. 옛사람들은 10월을 상달(上月)이라 불렀다. 추석 차례를 지내고, 오곡백과를 거둬들여 곳간에 식량이 그득하게 쌓여 있어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니 이보다 좋을 수는 없을 것이다. 거기다 덥지도 춥지도 않고, 하늘마저 높고 푸르러 일 년 중 으뜸가는 달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10월이면 잘 사는 집이나, 못 사는 집이나 자기 형편에 맞게 하늘에 제(祭)나 고사(告祀)를 지냈다. 한 해의 농사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것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제이다.

그런데 남들과 달리 곳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은 '계절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버렸나?'라는 회의에 빠져들게 된다. 나이 든 사람일수록 한 해가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다고 세월을 한탄한다. 일주일이야, 눈 깜박할 사이에 사라져버렸다고 탄식한다.

어린아이는 하루 종일 놀아도 시간이 안 간다. 자기 생일이 며칠 남았다 하면 그날들은 한없이 길다. 어린아이에게 시간은 더디 흘러간다. 어쩌면 시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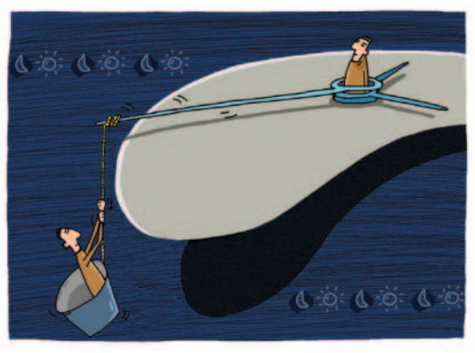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흘러가지 않는지도 모른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흘러가는데 사람마다 느끼는 시간의 속도가 다른 것은 무슨 까닭일까?

시간에는 흐르는 시간과 흐르지 않는 시간이 있다. 흐르는 시간은 생멸(生滅)의 시간이고, 흐르지 않는 시간은 적멸(寂滅)의 시간이라고 한다. 생멸이란 유한의 세계이고, 적멸이란 무한의 세계이다. 생멸의 시간에는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적멸의 시간에는 죽음이 끼어들 수 없다. 시간이 없어지는 세계, 삶과 죽음이 없는 무의 세계이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면 시간은 휙 지나가고 만다. 그러나 깊이 생각을 하면 일 년이, 하루가 길게 느껴진다. 의상 대사는 '법성게(法性偈)'에서 찰나가 무량겁이요, 과거 · 현재 · 미래가 찰나 속에 깃든다고 했다.(一念卽是無量劫, 九世十世互相卽) 무량겁이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을 일컫는다. 영원은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멈춰 살아 있는 지금, 찰나의 시간이다. 삼매(三昧)에 빠져들면 시공을 초월하여 영원한 현재로 머물게 된다. 현재가 영원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내 생각의 우주선은 빛의 속도가 되어야 한다. 의식의 흐름을 가속화해서 광속으로 달리면 시간은 휘어진다. 생각이 무념(無念)의 세계에 이르게 된다. 바로 부처의 광휘 속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생멸의 시간은 끊어지고, 적멸의 시간이 상달의 밝은 달처럼 교교하게 펼쳐지리라. 〈작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4, 8216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BTN 불교TV 방송포교 27년
- 코로나19 속에서 찬란한 빛을 발하다 -
만약, 이 시대에 부처님께서 나투신다면 어떻게 전법하실까요?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사람들을 만나면서 법을 전하였지만,
오늘날이라면 방송국 카메라앞에서 법문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방송포교 매체가 BTN불교TV입니다
BTN 붓다회는 BTN불교TV의 방송포교 원력을 후원하는 모임으로
누구나 동참가능합니다.
BTN 붓다회 BUDDHACLUB
오늘 방송포교 불사의 주인공, 붓다회 회원이 되어주세요!!
가입문의 1855-0108
BTN 채널안내 | olleh 233번 Btv 30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현대불교신문과 함께하는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지도법사 : **대연스님**

한국 유일의 인도 · 네팔 불교성지순례 가이드북의 저자이시며 인도를 30회 이상 다녀오신 대연스님이 직접 안내와 설명을 하는 성지순례입니다.

현대불교신문 성지순례는

- 지도법사스님의 신심나는 설명과 유익한 순례를 약속합니다.
- 인도불교미술에 대한 심도있는 설명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 불교전문 가이드가 진행합니다.
- 쇼핑 옵션이 없습니다.
- 동참하신 분들께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출발일 : **2022년 11월 22일(12일)** 동참금 : ₩**3,290,000** / 출발일 : **2023년 2월 7일(15일)** 동참금 : ₩**3,790,000**


녹야원


부다가야


항하사


나란다대학터


영축산


죽림정사


바이샬리


쿠시나가르


룸비니


기원정사


타지마할


델리문화탐방

11월 22일(12일) 주요일정

1일 : 인천 - 델리(인도항공 AI 0313) 인천국제공항 1청사 10시 05분 출발
2일 : 델리 - 국내선 - 바라나시 - 초전법륜지 녹야원, 사르나트 박물관 관람
3일 : 바라나시 겐지스강 보트 유람 - 항하사 - 부다가야
4일 : 보드가야 순례, 보리수, 마하보디 대사원, 전정각산, 수자타탑, 네란자라강
5일 : 최초의 사원 죽림정사, 영축산 여래향실, 칠엽굴, 날란다 대학 순례, 바이살리 도착
6일 : 바이샬리 : 부처님 진신사리탑, 대림정사 중각강당, 원숭이 연못, 아소까 석주 순례, 께사리아 발우탑 순례, 열반성지 꾸시나가르 도착 - 열반지 쿠시나가르 : 열반당
7일 : 쿠시나가르 - 인도 - 네팔 국경 통과 - 부처님의 진신사리탑 랑그람 순례, 룸비니 도착
8일 : 탄생성지 룸비니, 석가족의 왕궁 카필라바스투, 네팔 - 인도 국경 통과, 삐쁘라흐와 진신사리탑 순례, 쉬라바스티 도착
9일 : 기원정사, 사위성, 앙굴리말라 회심처, 천불화현탑 순례 럭나우 경유 아그라 도착
10일 : 타즈마할, 아그라성(城) 관광, 뉴델리로 이동
11일 : 국립박물관 -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꾸뚭미나르, 연꽃사원, 뉴델리 관광 뉴델리 국제공항 출발(인도항공 AI 0312) 21시 50분
12일 : 인천국제공항도착 08시 15분



문의 : **현대불교문화사업단 02)2004-8213, 730-4008** 순례진행 : (주)케이투어 아제여행 불교성지순례 & 특수지역전문